



서울대 同窓會 報

총동창회 지표 : 참여·협력·영광

<http://www.snua.or.kr>

2002년 9월 15일

(1976년 4월 24일 창간)

【월간】 제294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발행인 林光洙 / 편집인 孫一 根 / 편집주간 李世震 / 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121-8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FAX : 703-0755



한국대학 동창회 최대의 장학금 선후배의 마음 하나로 잇는다!

〈커버스토리 4~5면〉

관악춘추

얼마 전 국내 최대 규모의 장학재단이 설립됐다. 5천억원 규모의 「삼성 이견희 장학재단」이 매년 해외 유학생 1백명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에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에 걸쳐 국내 한 대학에 지금까지 2백억원이 넘는 장학금을 기증했다.

2000년 여름에는 병원에 입원 중인 70대 할머니가 의료대란 속에서도 묵묵히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감동, 평생 모은 재산 1억원을 이 대학병원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선뜻 내놓았다.

우리 주변에서는 누가 들어도 가슴을 뭉클케 하는 이런 話題들이 가끔 속 단비처럼 드물지만 끊이지 않고 있다.

8월 21일 서울대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대학원생 41명을 포함해 모두 1백38명의 본교 재학생들에게 2학

기 장학금이 전달됐다. 특히 장학기금 출연자가 장학금의 명칭과 지급 대상과 요건을 지정할 수 있는 특장학금의 구조가 매년 늘어나 이번에는 58명이나 특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받았다. 장학금 출연자로부터 직접 장학증서를 전달받은 이들 꿈나무들의 눈동자는 감사하는 마음과 向學熱로 더욱 빛나 보였다.

현재 서울대학생 가운데 등록금 전액지원을 비롯해

“관악산 꿈나무를 키웁시다”

학비감면과 대여, 조수 등 각종 장학금의 혜택을 校内外로부터 받고 있는 장학금 수혜율은 40%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국내 대학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선진국의 유명대학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하버드, 프린스턴, 코넬 등 우수한 대학교에서는 전체

재학생의 60~80%에 달하는 학생들이 각종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격차는 경제발전 수준에 견주어 우리나라의 寄附文化가 아직도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donation」이라는 말 자체가 일상 생활화되어 있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 주변에서는 여유가 있더라도 남을 돕는 일을 웬지 쑥스럽고 낯설게 느끼는 사람들이 아직도 더 많다. 더구나 쓸 것 다 쓰고도 남아야 남을 도울 수 있다는 小兒病的 思考의 틀에 갇힌 弊風들도 여전히 많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富와 權力이 있는 사람부터, 배운 사람부터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꿈나무들을 정성껏 가꾸는데 주저 없이 나서야 할 때다. 이런 의미에서 서울대 동문들이야말로 우리나라 인재양성의 寶庫인 冠岳山의 수많은 꿈나무들을 키워나가는 장학사업에 남보다 먼저 스스로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圭〉

만든 사람 논설위원 金哲洙, 金昌悅, 朴世熙, 林炯斗, 崔青林, 李炯均, 南仲九, 金鎮銅, 金好俊, 宋鎮赫, 丘月煥, 洪性萬, 朴明珍, 李成俊, 安炳燦, 李元龍, 安國正, 李慶衡, 金鍾勳,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嚴基永, 朴時龍, 姜天錫, 朴聖姬 편집장 安興燮 편집기자 朴宰亨, 表智媛 광고부장 金千鶴

긴급제안을 하나 하고 싶다. 전국의 모든 소리내는 물건을 긴급 점검하고 소리발생을 줄이자는 것이다.

얼마전 환경부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62%, 지방 48%의 주민이 『시끄러워 못살겠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국민이 소음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언제부터인데 이제사 고작 여론조사를 해보는 행정수준에 분통이 터지지만 이제라도 빨리 소음 대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우리 환경은 정말 너무 시끄러워 매일매일 견디기 힘들 정도다. 웬 공사장은 그렇게 많은지 광광하는 굉음은 아마 십리 밖까지도 들릴 것이다. 시위대는 연설할 때가 아니더라도 구호나 음악을 틀어대기 때문에 죄 없는 부근 사람들은 죽을 지경이다. 전파상·음반상들이 거리에 확성기를 내 놓고 음악을 틀어대는 것도 장사를 위해 필요하겠지만 정도가 심해 음악이 아니라 소음으로 들리는 경우가 많다. 수많은 백성들이 이런 생지옥 같은 소음 속에 매일매일 진저리치고 잔기가 멀어지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사정을 우리의 대통령님·장관님·국회의원님·도지사님·시장님들이 과연 알고나 계시는지 원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선거 때면 온갖 것들을 다 해준다고 수많은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왜 소음문제를 해결해주겠다 나 천천히 대처해도 괜찮은 문제인가 아니다. (본보 논설위원)



노티나무광장

긴급제안, 소리를 낮추자



宋鎮赫
중앙일보 논설위원

당장 소음규제관련 법을 고치자.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워지기 전인 12년 전에 만들었다는 현행법으로는 지금의 이 소음을 제대로 규제할 수 없다. 집회·시위 등 행사를 하는 분들도 부디 확성기 볼륨을 한두 단계 낮춰주기를 앙망한다. 공사장에서는 차단막이라도 좀 치고 부근에 사는 사람들의 사정도 조금은 생각해가며 공사를 해주기 바란다. 늦은 밤이나 아침시간에까지 굉음을 울리는 공사는 부디 자제해 주기를 당부한다.

그리고 방송국에도 건의하고 싶다. 목청을 돋워 악을 쓰며 보도하는 행위, 마치 악머구리 꿩들 시끄럽게 떠들고 시시덕대는 방송 등은 좀 개선해 주면 좋겠다. TV나 라디오가 소음발생기가 돼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말 소음문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 빨리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권장할 것은 권장하고, 시설을 마련할 것은 시설을 마련함으로써 이 나라가 좀 덜 시끄러운 나라가 되도록 하는 작업에 즉각 착수하길 부탁하고 싶다.

이런 우리 모두의 종합적인 노력으로 소음이 줄어들면 국민 평균건강이 증진되고 일의 능률이 올라갈 것이고, 각종 아이디어나 연구성과도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소음문제는 결코 작거나 천천히 대처해도 괜찮은 문제가 아니다. (본보 논설위원)

동문칼럼

주5일 근무제, 명쾌한 해답 찾아야

일하지 않는 토요일과 주 40시간 노동을 법으로 규정하는 주5일 근무제에 관한 입법을 앞두고 노사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한 주일에 44시간을 정상 근무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새 법은週 근무시간을 40시간 한도로 줄였기 때문에 주 5일간 하루 8시간 근무로 정규 근로시간의 한도를 줄인 셈이다. 주당 4시간에 지나지 않은 노동 시간의 단축이지만 이 법이 가져올 변화는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2일 연속되는 주말의 휴일은 근로자들의 여가시간을 늘여서 그들의 생활양식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와 소비구조의 변화, 산업구조와 고용구조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경제 구조의 변화는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변화도 수반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업의 고용관계 내에서도 노동의 강도가 높아지고 일하고 쉬는 시간의 구분이 보다 확실한 전형적인 선진국형 직장 풍토가 확산 될 것이다. 한 사회의 물질적인 풍요와 여가 시간의 증가는 노동 생산성의 향상에 의존한다는 생각에서 우선 노동 시간의 단축을 전략적인 출발점으로 삼아 그 파급효과를 노리는 것이 새 법을 추진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현정부의 전략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새 법을 놓고 노사간에는 상반되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구체적인 쟁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먼저 경영측의 주장은 이 법이 시행되면 초과 근무시간에 대한 할증임금이 증가하여 기업의 원가부담이 늘어나서 국제 경쟁력에 큰 타격을 줄 것이 확실하므로 이런 충격을 완화하려면 실제 근로시간의 자연감축을 기다려서 서서히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만약 지금 당장 도입하려고 한다면 법정 유급휴일 수를 줄여서 새 법의 도입에 따르는 임금 부담의 증가를 상

쇄할 조치를 취하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노동조합의 주장은 지금 당장 법으로 강제하더라도 일부 중소기업은 비롯한 한계기업 외에는 임금상승의 부담을 흡수할 능력이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자기개발을 자극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근로자 생활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우리 경제 전반에 걸친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입법하는 것이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해서도 해로울 것 없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면서 기업측이 요구하는 조기도입의 조건인 유급휴일의 삭감은 절대 반대하며 근로자들의 임금이 새 법으로 인해 저하하는 부분을 보상하는 조치를 반드시 강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지금 후발국 특히 중국을 위협한 저임금 국가들과 가격 경쟁력 면에서 크게 위협을 받는 처지에 있다. 이들 국가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내시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임금개선은 수요와 공급 양면에서 경제 구조의 개편에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의 개선과 근로시간의 단축은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중소 한계기업의 대량 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측도 유급휴일을 줄이는 조치에 동의함으로써 새 법의 조기 시행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金植鉉
(58년 商大卒)
모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건강을 지킵시다

활발한 두뇌 활동이 치매 예방

장수무병.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윤택한 노년기를 갈망한다. 정신 없이 바쁘고 활동적인 청·장년기를 보내고 이제는 고요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삶의 여유를 찾으려 하는 시기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스며드는 병이 치매다. 치매는 65세 이상 노인의 5~10%에서 발병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격히 증가한다.

이제 우리 나라도 현대의학의 발전과 사회 문화적 환경의 발달로 노령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해 고령화 시대로 치닫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2000년도에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7.1%인 3백37만명이었으며, 2020년에는 2배로 늘어나 전 인구의 14.3%인 7백53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한다.

따라서 치매환자수도 급격히 늘어날 것이며 치매환자의 치료와 관리가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치매란 정상적인 생활을 해오던 사람이 뇌에 발생한 각종 질환으로 인지기능을 상실해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초기에 경미한 기억장애만 있는 경우에 건망증과 혼돈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건망증은 사건의 세세한 부분만 잊고 일깨워주면 곧 기억을 되찾으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메모를 하는 등 기억을 보완하려고 노력하는데 비해, 치매는 사건 자체를 잊고 귀뜸을 해줘도 기억하지 못하며 자신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李奎恒(60년 醫大卒)
계요의료재단 계요병원 이사장

것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다. 원인에 따라 치매의 종류는 많지만 제일 많은 것은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치매로 전체 치매의 80~90%를 차지한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 중 가장 흔한 병으로 원인은 아직 확실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학설에 의하면 뇌 속에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점차적으로 증가해 뇌세포를 파괴하고 그 결과 아세틸콜린이 감소함으로써 치매가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료는 아직까지 뚜렷한 방법이 없으며 아세틸콜린의 농도를 높여주는 약물을 사용해 초기 치매환자의 증세를 개선해주고 병의 진행을 늦추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규칙적인 운동, 식생활의 절제, 성인병의 조기발견 치료, 금연, 비만예방 등이다. 칼날은 쓰면 쓸수록 무디어져서 둔한 칼로 변하지만 머리는 쓰면 쓸수록 명석하고 영리해지게 마련이다. 아무리 늙은 노인일지라도 꾸준히 지능을 잘 다스리면 치매는 오지 않는다.

(연락처 : 031-455-3333)

추억의窓

인터넷 수강신청...우리때는 상상 못해

올해 법대 입학한 막내딸과도 격세지감

高文昇(63년 法大卒)제주산업정보대 교수

50년대 말에는 서울대 학생들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었는데, 지금 서울대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

50년대 말 대학생들은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수강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 지금의 서울법대 학생은 인터넷으로 수강신청을 하고 집에 있는 컴퓨터보다 속도가 빠른 컴퓨터가 있는 PC방에 아침 7시에 가서 강의 신청을 하는 것을 보았다. 그렇지 않으면 수강신청 학생들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그 강의를 수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일을 나는 대학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했다. 나의 막내딸 정현이가 금년에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고, 법대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의 일부분을 볼 수 있었다. 2002년도에 입학한 서울대생들이 강의마다 한 학기에 리포트를 두세 개 이상 제출해야 한다고 하니 전에 비해 서울대가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법대 재학시절,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지성들과 민족적 지성인들이었던 교수님들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었다는 것이 당시에는 법대 학생들이 받은 축복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시 법대 학생 수는 1천2백여 명이었고, 교수님들은 15분 정도였으니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80명 수준이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교수님들은 33분이시고, 학생 수는 8백여 명이라고 하니 교수 1인당 학생은 27명 정도이다.

서울법대 홈페이지에 의하면 현재의 교수님들은 박사 학위를 서울대에서 10명, 미국의 대학에서 9명, 독일의 대학에서 8명, 프랑스의 대학에서 3명, 영국

의 대학에서 1명, 일본의 대학에 1명, 기타 대학에서 1명이 받으셨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해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의 훌륭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셨고 그 후에도 세계의 여러 대학에서 연구하셨던 것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으니 졸업생으로서, 그리고 학부형으로서 50년대의 학부형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며 감탄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발전에 자랑스러운 느낌을 가진다.

50년도 말에 옛 서울법대 교정에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는 표어와 함께 「정의의 종」이 있었다. 2002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지금의 서울법대 교정에 있는 「정의의 종」앞에서 딸 정현이와 사진을 찍었다. 40여 년 전과 다른 것은 「정의의 종」이 있는 것이었다.

고등교육법 28조는 50년대 교육법의 조문과 한가지로 대학교육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대학은 인류와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쓰여 있다.

서울대학교는 계속해서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하기를 바란다.



야유회에서 동기들과 함께(뒷줄 우로부터 다섯 번째 필자).

2백22명에게 장학금 3억3천9백만원 수여

林회장 “꿈과 용기를 갖고 최선을 다해주길”



본회(재단법인 관악회·이사장 林光洙)는 지난 8월 21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2학년도 2학기 장학금 및 특기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鄭相鎬(응용생물화학부 4년)군을 비롯한 1백34명에게 2억4천75만4천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본회 李世震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林光洙회장은 식사를 통해 「장학생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꿈과 희망을 갖고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겠다는 의지와

용기를 지니고 최선을 다할 때 성취와 보람을 느끼며 이 나라의 굳건한 대들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참석자들에게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 이러한 장학사업을 알려 형편이 어렵지만, 우수한 모교 재학생들을 돕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교 鄭雲燦총장은 격려사에서 「오늘날 도처에서 불어오는反서울대 바람과 따가운 비난의 시선을 뒤로하고 서울대의 참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창의적 도전과 새로운 비전을 가져야 한

다」고 말하고 「오늘의 이 뜻깊은 장학금 전달식은 장학생과 우리 모두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출발이며, 꿈을 이루기 위해 멈추지 말고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장학금 수여식에 앞서 모교와 동창

회의 발전을 위해 지난 1994년부터 2002년 3월까지 회장을 역임한 金在淳 명예회장의 노고를 위로하고 업적을 기리기 위해 관악홀에 金在淳 명예회장의 흉상을 안치, 제막식을 가졌다. 또 5년에 걸쳐 무상으로 흉상을 제작한 白文基고문에게 본회에서 준비한 공로패와 선물을 전달했다.

崔主鎬 전임 회장의 흉상을 제작하기도 한 白文基고문은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1970년 무교동을 지나다가 2평 남짓한 총동창회 사무실을 보고 뭔가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생긴 것이 동창회와의 첫 인연」이라고 말하고 「金在淳 명예회장의 흉상을 제작하게 된 동기는 그분의 지성적인 면모와 은퇴 후의 삶에 매력을 느껴 직접 흉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작업실에서 여러 번의 제작 끝에 완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金在淳 명예회장은 「인간은 누구나 젊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소년기를 보내고, 결혼을 잘 알지 못하면서 결혼을 하며, 노년이 되면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며 「홍상으로의 모습이 아닌 살아 있는 저의 모습이 여러 친구들과 나 자신에게 여겨워지지 않도록, 싫어지지 않도록 만년의 미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장학금 수여를 마친 후 鄭相鎬군이 장학생을 대표해 「선배님들께서 모아주시는 정성들은 후배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양분이며, 선배님들의 배려와 격려는 서울대 교문을 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일깨워주는 등대」라고 답했다.

이어 장학생 林尙勳(성악과 석사 2년)군이 金榮建(기악과 4년)군의 피아노 반주로 레온카발로의 「아침의 노래」를 추가로 선사했다.

이날 행사에는 白文基고문, 金在淳 명예회장,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韓斗鎭·李海遠·金讚淑·孔大植·鄭永勳·鄭忠始부회장, 재단법인 관악회 洪性大상임이사, 明泰鉉·鄭哲圭·李鍾基·朴明潤·鄭八道·金秉順이사, 朴英俊·朴柱鐸감사, 동창회보 金仁圭상임논설위원을 비롯해 모교 鄭雲燦총장, 黃俊淵학생처장, 치대 柳寅哲교수, 간호대동창회 楊銀淑 명예회장, 농대동창회 尹勤煥회장, 지질학과동창회 金英雄회장, 金鍾祺前인제고 교장, 鄭大永 前한주통산 고문, 가천의대 金勇一총장, 李元珪 前산림청 임업연구원, 성지출판 洪尙郁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각 단과대학(원)동창회가 88명에게 9천9백6만4천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해 2002년도 2학기 동창회 장학금은 8월말 현재 총 2백22명에게 3억3천9백81만8천원이 지급됐다.

각 단과대학(원)동창회에서 지급한 장학금과 인원수는 다음

과 같다.

▲가정대동창회(회장 李義淑)=1명:1백만원 ▲간호대동창회(회장 朴明子)=5명:3백96만7천원 ▲법대동창회(회장 裴命仁)=낙산장학회 장학생 26명:2천12만4천원 ▲상대동창회(회장 高炳佑)=30명:3천6백20만8천원 ▲수의대동창회(회장 李佑宰)=2명:6백만3천원 ▲약대동창회(회장 李禮植)=5명:2백50만원 ▲음대동창회(회장 金正吉)=1명:2백1만8천원 ▲치대동창회(회장 梁源植)=4명:1천41만3천원 ▲대학원동창회(회장 金圭植)=2명:5백63만1천원 ▲경영대학원동창회(회장 金英大)=2명:3백만원 ▲신문대학원동창회(회장 趙容直)=1명:1백60만원 ▲환경대학원동창회(회장 丁榮植)=5명:3백만원 ▲국가정책과정동창회(회장 金相賢)=2명:3백만원 ▲가정간호수습과정동창회(회장 朴英淑)=2명:60만원

(表)

2003년 DIARY를 발송해 드립니다

본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급가족으로 양장제본하고 금박과 금장을 입힌 「포켓용 DIARY」를 제작, 보내드립니다.

특히 이번 DIARY는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문을 가로로 편집했으며, 주소부와 정보부를 분리해 Volume을 줄였으며, 세로 사이즈도 줄여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2003년 癸未年の 설계와 구상을 새롭게 변신한 동창회 DIARY에 기재하여 멋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동창회 DIARY는 모교 발전과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평생 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해 주신 동문(이사, 일반 포함) 여러분께 11월 중순부터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창회를 사랑해 주시는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

홈커밍데이 겸 서울대 가족 친목 등산대회

10월 20일 일요일, 동문 여러분을 모교로 초대합니다

서울대인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제24회 홈커밍데이 겸 서울대 가족 친목 등산대회가 오는 10월 20일 거행됩니다.

모교를 방문하여 그동안 잊고 지내던 선·후배·동기들과 재회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등산대회에서는 참가하신 동문 가족에게 성악가 曹祥鉉(51년 音大卒·서울뮤지컬림(SMC) 회장·바리톤)동문과 자녀로 구성된 조TRIO의 협연 CD를 기념품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모교의 품에서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일 시: 2002년 10월 20일(日) 오전 9시

△집합장소: 모교 관악캠퍼스 대운동장

△참가대상: 동문 및 서울대 가족

△참가비용: 없음

△제공물품: 도시락, 식음료, 기념품 등

△경 품: 다량의 선물 추첨

△문의전화: 702-2233

미술작품

李 誠 恩 作



「Rock 2002」, 유화, 10호, 2002.

〈작가약력〉

- ▲68년 모교 미대 회화과 졸업
- ▲67~68년 16·17회 대한민국 미술전 입상
- ▲88~95년 한국미술협회전 작품
- ▲89~02년 호을전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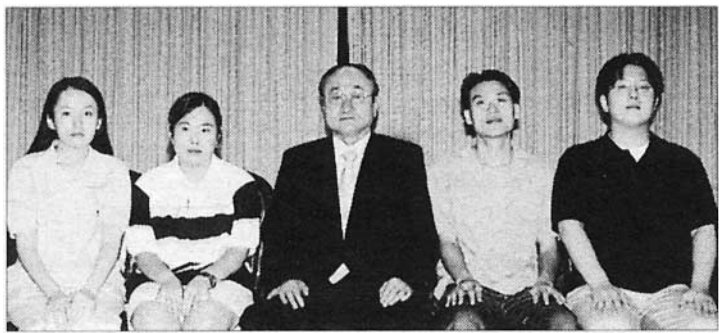
- ▲96년 선농미술전 작품, 서울대 개교 50주년 기념 미대동창전 작품
- ▲97년 환경직 미술관 건립 준비 축하전 작품
- ▲현재 한국미술협회, 호을회, 선농회 회원

亞南 특지장학금

아남그룹(회장 金柱津·54년 法大入)은 지난 8월 21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아남그룹 金綉雄전무가 대리로 참석한 가운데 2002학년도 제2학기 「亞南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 모교 재학생 任挑均(기계항공공학부 석사 2년)·韓銀俊(기계항공공학부 석사 1년)·金明俊(행정대학원 석사 1년)·金泰君(기초과학계열 2년)·趙仁國(공학부 1년)군, 金雅麟(디자인학부 1년)·尹水仙花(제약학과 3년)양 등 7명에게 1천6백18만원을 전달했다.

林光 특지장학금



본회 林光洙(52년 工大卒·임광토건 회장)회장은 지난 8월 21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2학년도 제2학기 「林光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林회장은 모교 재학생 鄭文棋(기계항공공학부 4년)·

權智勳(기계항공공학부 3년)·朴相源(기계항공공학부 2년)·趙炳鎬(경영학과 4년)군, 宋美愛(생물교육과 2년)·李愛娜(의류학과 3년)양 등 6명에게 9백38만원을 전달했다.

洪性大 특지장학금



학교법인 상산학원 洪性大(63년 文理大卒·본회 부회장·관악회 상임이사)이사장은 지난 8월 21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2학년도 제2학기 「洪性大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洪이사장은 이날 모교 재학생 鄭相鎬(응용생물화학부 4년)·宋昶斗(의학과 3년)·宋燦雨(경제학부 4년)·鄭雲慶(의학과 2년)군 등 4명에게 1백50만원씩 총 6백만원을 전달했다.

孫致武 특지장학금

지질학과동창회 金英雄(67년 文理大卒)회장은 지난 8월 21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2학년도 제2학기 「孫致武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金회장은 이날 모교 재학생 朴泰胤(지구시스템학과 3년)군, 金旻那·朴允貞·朴和妍(지



구시스템학과와 3년)양 등 4명에게 1백만원씩 총 4백만원을 수여했다.

李鍾基 특지장학금

상영무역 李鍾基(73년 商大卒·관악회 이사)사장은 지난 8월 21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2학년도 제2학기 「李鍾基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李사장은 이날 모교 재학생 姜錫賢·柳賢明(경영학과 3년)군, 李潤宰(경제학부 2년)



군 등 3명에게 등록금 전액 3백67만1천원을 전달했다.

金讚淑 특지장학금

청아치과병원 金讚淑(60년 齒大卒·본회 부회장)이사장은 지난 8월 21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2학년도 제2학기 「金讚淑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金이사장은 이날 모교 치대 치의학과 朴斗南(3년)·朴勝範



(2년)군, 李修珍(본과 1년)양 등 3명에게 등록금 전액 7백98만9천원을 전했다.

李吉女 특지장학금

경원대 李吉女(57년 醫大卒·본회 부회장·의대동창회장)총장은 지난 8월 21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가천의대 金勇一(61년 醫大卒)총장이 대리로 참

석한 가운데 2002학년도 제2학기 「李吉女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수여식에서 모교 재학생 蔡炫廷(인류학과 2년)양과 石知沈(자연과학부 2년)양이 등록금 전액 3백51만4천원을 받았다.

張世一 특지장학금

일성(주) 張世一(63년 工大卒·관악회 이사)사장은 지난 8월 21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일성(주) 李瑄恒고문이 대리로 참석한 가운데 2002학년

도 제2학기 「張世一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 모교 재학생 張在貞(사회복지학과 3년)·金惠敬(수학과학교육계열 1년)양 등 2명에게 등록금 전액 총 2백61만원을 수여했다.

鄭八道·李慈倖 특지장학금

(주)홍인 鄭八道(1기 AIP·관악회 이사)회장은 지난 8월 21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2학년도 제2학기 「鄭八道·李慈倖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鄭회장은 모교 재학생 姜筆盛(산업공학과 4년)·



金泰植(경영학과 4년)군에게 등록금 전액 총 2백83만7천원을 전했다.

鄭哲圭 특지장학금

신앙문화재단 鄭哲圭(52년 工大卒·관악회 이사)이사장은 지난 8월 21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2학년도 제2학기 「鄭哲圭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鄭이사장은 이날 모교 재학생 金泰安(응용화학부



박사 1년)·金倫煥(응용화학부 2년)군 등 2명에게 등록금 전액 총 4백24만5천원을 수여했다.

金秉順 특지장학금

(주)한국구아노 金秉順(4기 AMP·관악회 이사)이사는 지난 8월 21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2학년도 제2학기 「金秉順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金동문은 의대 黃善培(의학과 4년)·법대 朴達宰(법학



부 2년)군에게 등록금 전액 총 4백45만천원을 전달했다.

郭永駟 특지장학금

(주)도화종합기술공사 郭永駟(60년 工大卒·본회 부회장)회장은 지난 8월 21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2학년도 제2학기 「郭永駟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郭회장이 지난 5월 2일 출연한 1억원을 본회에서 관리, 이날 공대 金原局(지구환경시스템



공학부 3년)·愼瑞元(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2년)군에게 등록금 전액 3백59만4천원을 지급했다.

특지장학금 전달식

1천8백87만2천원 수여

각 특지장학회는 지난 8월 21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2학년도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주)한국기술교류 朴柱鐸(74년 商大卒·관악회 감사)대표이사가 설립한 「朴柱鐸 특지장학금」으로 체육교육과 2년 李旭弼군에게 1백84만3천원을 전달했으며, 간호대동창회 楊銀淑(54년 看護大卒) 명예회장이 설립한 「楊銀淑 특지장학금」으로 간호학과 박사과정 1년 金尹美양에게 2백49만5천원을 수여했다.

재미동창회 吳仁錫(62년 法大卒) 명예회장이 설립한 「吳仁錫 특지장학금」으로 인문계학과 2년 金아름양이 1백37만5천원을, 동일기술공사 黃海根(60년 工大卒)회장이 설립한 「李金玉·黃海根 특지장학금」으로 법학부 4년 崔宇辰군이 등록금 전액 1백12만3천원을 받았다.

鄭大永(55년 商大卒·前한주통산 고문)동문이 부인 閔婉基 여사와 공동명의로 설립한 「鄭大永·閔婉基 특지장학금」으로 모교 재학생 林煥凡(경영학과 1년)군에게 1백45만5천원을 수여했으며, 金鍾祺(55년 師大卒) 前인제교 교장이 설립한 「金鍾祺 특지장학금」으로 金동문이 특별히 지정한 인재高 출신 신입생 金秀寧(사회대 기초과정 1년)군에게 1백45만5천원을 지급했다.

성지출판(주) 洪尙郁(87년 農大卒)사장이 설립한 「洪尙郁 특지장학금」으로 기초과학계열 2년 金康勳군에게 1백50만원을 전했으며, 화학과동창회(회장 金秀子)가 설립한 「화학과동창회 특지장학금」으로 화학과 4년 許 淵군이 등록금 전액 1백66만8천원을 받았다.

유니온테크 安聖哲(63년 法大卒·본회 부회장)회장이 설립한 「安聖哲 특지장학금」으로 모교 재학생 李大承(법학부 4년)군에게 1백12만3천원을, (주)오미아코리아 鄭忠始(76년 工大卒·본회 부회장)사장이 설립한 「鄭忠始 특지장학금」으로 鄭동문이 특별히 지정한 공대 재학생 吳世源(응용화학부 4년)군에게 1백73만원을 전달했다.

한국우드워드(주) 李海遠(55년 法大卒·본회 부회장)회장이 설립한 「李海遠 특지장학금」으로 모교 재학생 柳宇鉉(법학부 2년)군에게 1백37만5천원을 수여했으며, 송원기업(주) 明泰鉉(50년 工大卒·관악회 이사)대표이사가 설립한 「明泰鉉 특지장학금」으로 모교 재학생 柳行烈(기계공학과 3년)군에게 등록금 전액 1백73만원을 전했다. <表>



홀트아동복지회 金根祚회장

부모 없는 아동에게 행복한 가정 만들어줘

“해외 입양은 결코 부끄러운 일 아니다”

『우리가 왜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 해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나와 내 주위를 둘러보면 내가 입고 있는 옷, 앉아 있는 의자와 책상, 사무실, 자동차 등이 있죠. 흔히 볼 수 있지만 없어서도 안될 것들입니다. 하지만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온전히 자기만의 노력으로 성공하거나 지금까지 살 수 있었다고 할 수 없어요. 이처럼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생활하는데 도움을 준 수많은 이름 없는 기여자들에게 나 역시 조용하게, 조금이라도 도움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버려지고 갈 곳 없는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와 따뜻한 집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홀트아동복지회(이하 홀트) 金根祚(66년 法大卒)회장은 봉사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다.

도움 받은 것이 있으니 당연히 베풀어야 한다는 것. 얼핏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처럼 들린다. 하지만 정작, 지금까지 누구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았는지 기억하거나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金동문은 다음의 유명한 일화를 통해 다시금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해준다.

자신의 이름을 딴 세계적인 비누 및 치약회사 「Colgate」를 만든 윌리엄 콜게이트는 너무나 가난하여 12살 때 미국으로 이민, 허드슨 강을 건너 맨허튼에 가려했지만 배 값이 없어 안절부절하고 있었다. 이를 유심히 지켜보던 한 뱃사공이 해가 누엣누엣 저물 때쯤 아이를 불러 말했다. 『저 강을 건너도록 도와줄테니 훗날 성공하면 나와서 약속을 꼭 지켜라』 너무나 고마웠던 콜게이트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뱃사공은 그날 벌어들인 1백50달러까지 몽땅 아이에게 주고는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



개 주고, 10분의 1은 이웃을 위해 쓰라고 당부했다. 콜게이트는 그대로 행했고 그는 세계적인 사업가가 됐다. 황혼의 기로에 선 그는 어느 날 모임 석상에서 그 뱃사공의 얘기를 꺼내며 『오늘의 내가 있게 해준 것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모르지만, 그가 나를 위해 베푼 선행, 그가 한 말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17년간 대학에서 사회복지법을 가르치고 있는 金동문은 늘 상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생생한 얘기들을 들려주며 진정한 사회복지사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인식시킨다. 특히 딱딱한 법을 가르칠 때면 金동문은 한 학기 강의 분이 정리된 책자에 이와 같은 이야기나 농담들을 중간 중간에 삽입해 아예 개강 첫날부터 학생들에게 배부한다. 그러면 학생들은 더욱 강의에 집중하게 되고, 인간을 위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의 참 의미를 깨닫는다고 한다.

모교 법대를 졸업하고, 행정부에서 우리 나라 근대화를 위해 굼직굼직한 업무들을 맡기도 한 金동문이지만 그는 1981년 친구의 부탁을 받고 홀트와의 인연을 맺으면서 이토록 열심히, 기분 좋게, 그리고 피곤함을 느끼지 않으며 일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金동문은 출근할 때마다 부인에게 『오늘

도 좋은 일 하러 가니 집에 올 때까지 기대하고 있으라』는 말을 남겼었다고 한다.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부인에게 그날 도움을 준 어린이나 가난한 사람 등의 얘기를 들려주며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 짓곤 했었다.

5형제 중 막내로 태어난 金동문은 고교시절, 사회정의의 위해, 상식을 배우기 위해 소신껏 법대에 지원했다. 입학하자마자 4·19를 겪으며 혼란 속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나름대로의 추억이 서린 시절이었다고 말하는 金동문. 한번은 동기들과 함께 자전거 여행을 떠나기로 하고, 한 친구에게 모은 돈을 다 줬다. 그러나 다음날 일행은 돈을 담당했던 친구가 그만 집에만 여행비를 고스란히 남겨두고 왔던 것이다. 건뎡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비포장도로를 꼬박 하루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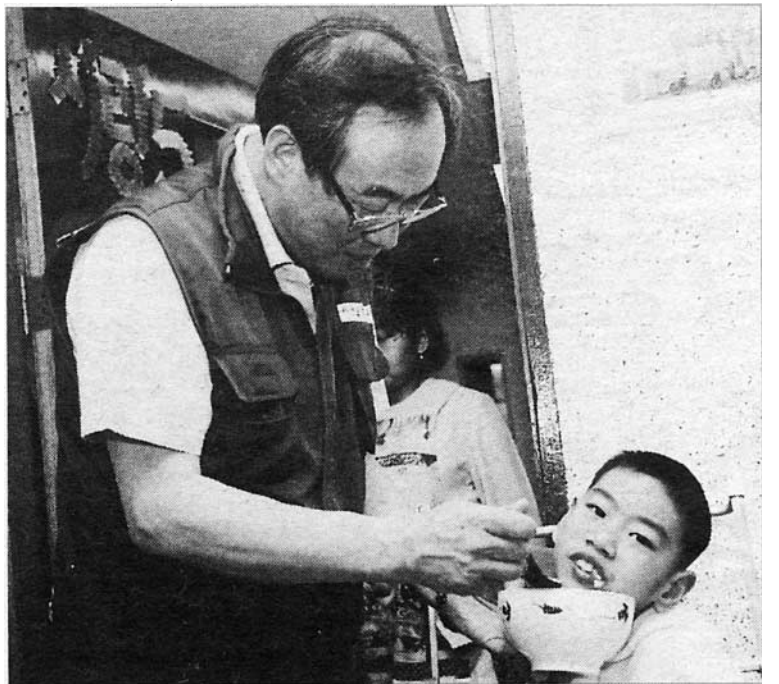
달려 목적지인 광릉에 도착한 일행은 다행히 경찰서 직원들의 따뜻한 배려로 그들이 대령(?) 해준 트럭으로 무사히 집으로 갈 수 있었다. 그때도 그는 이름 모를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었다.

홀트에는 정신지체 아동들로 구성된 「영혼의

소리로」합창단이 있다. 2시간의 긴 공연동안 이들은 무려 12곡을 악보 없이 소화해낸다. 심금을 울리는 그들의 노래가 소문을 타면서 金동문은 오는 9월부터 이들과 함께 미국 순회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회장을 맡고 있는 金동문은 『지금까지는 아이들에게 좋은 가정을 만들어주는데 노력했지만 앞으로는 해외로 입양된 수많은 한국 동포들이 다시 모국을 찾아왔을 때 고향처럼 느낄 수 있는 안식처를 마련해주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다.

또 『사람들은 해외 입양을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국내에서 가정을 못 찾을 때는 해외로 보내게 됩니다. 까다로운 심사를 거친 외국 양부모들 밑에서 자란 아동들 가운데는 훌륭한 의사, 과학자, 정치가, 학자, 변호사 등이 많습니다. 일본이 IMF 때 우리 나라를 가히 저력이 있는 나라라고 감탄한 적이 있는데, 당시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해외 동포들이 고국에 계신 부모님, 가족들에게 매년 30억 달러 이상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분명 우리 나라에서 꼭 필요한 소중한 자원이 될 것』이라며 해외 입양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알았으면 한다고. (表)



자원봉사자로 나선 金동문.

지부 순례

미국 유타 지부

아메리카 대륙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로키산맥 서편을 따라 도시들이 남북으로 형성돼 있는 이 곳 유타주는 Navajo 인디언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 1847년 Mormon교도들이 거주하며 정착촌을 건설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 정착촌이 지금의 유타주 수도이자 얼마 전 동계올림픽으로 잘 알려진 Salt Lake City이다.

도시 해발 평균이 약 1천3백m의 고지대에 위치한 이 도시는 주변에 소금호수인 Great Salt Lake과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분지를 이루고 있어 도시 한 복

판에서 30분 정도의 거리에 산림, 계곡, 호수, 강, 스키장 등의 풍부한 자연미를 감상할 수 있는 독특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Salt Lake City는 지난 몇 년간 연속해서 일반 생활환경 및 기업운영 여건 분야에서 미국 내 최고의 도시들 중 하나로 선정돼 오고 있다. 그러나 유타주의 가장 큰 매력은 큰 협곡과 숨을 멎게 할 정도의 멋지고 다양한 경치를 볼 수 있는 국립공원들이라고 한다.

남북한을 합한 정도의 면적을 가진 유

타주에는 Salt Lake Metropolitan 지역에 약 65%의 인구가 집중돼 있으며 전체 한인인 약 4천5백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중 서울대 동문은 약 50명에 이르고 있다. 동문 가운데 이민 온 사람은 14명이고 나머지는 유학생과 교환 교수들로 구성돼

있으며, University of Utah가 있는 Salt Lake City, Brigham Young University가 있는 Provo, Utah State University가 있는 Logan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1946년 University of Utah에서 초청, 이론화학에 큰 기여를 하고 70년대 중반에 후학을 위해 과학원으로 귀국했던 故 李泰圭박사를 효시로, 중서부지역 이민사 연구에 노력장을 자랑하고 계시는 李廷冕(51년 師大卒)박사, 태국 개발 UN Project로 4년째 현지에 나가 있는 金鍊(58년 文理大卒)박사, Extractive Metallurgy계에 국제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孫洪龍(62년 工大卒 화공과)박사, Biomaterial과 Gene Drug Delivery System의 권위인 金城完(63년 文理大卒)박사, 인공 체장과 Protein Drug Delivery System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裴有漢(80년 工大卒)박사 등 각 전공 분야에서 뛰어난 공헌을 하고 있는 다섯 분의 교수와 더불어 Campus 중심의 유동적인 동문들이 대부분이지만, 때때로 모여 동문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며 서울대 가족의 일원임을 확인하기도 한다. 또한 위의 3개 대학에서 학위를 끝내거나 연구 업적을 남기고

귀국한 동문들이 여러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있음은 학구적인 분위기가 다분한 이 지역의 자랑이기도 하다.

1993년 12월 30일 유타지부 동창회 발기회와 1994년 1월 8일 1차 정기총회를 거쳐 朴鍾秀(64년 工大卒)동문이 초대회장에 선출돼 회칙 제정 및 조직을 갖췄으며, 현재는 韓成洋(69년 文理大卒)회장이 동창회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

비록 작은 규모의 지부이지만 유타 지부는 매년 골프대회, 테니스대회, 야유회 등을 개최하며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인 동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올해 가을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송년회를 겸한 정기총회와 친목 테니스대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새로 진출입한 동문들을 update하여 주소록 발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韓成洋 회장



1999년 정기총회.

기과 순례

건축학과 동창회

소규모 모임 열어 회원간의 교류 증대 힘써

글 : 李永熙(61년 工大卒)회장



李永熙 회장

건축학과 동창회는 학과의 오랜 연원만큼이나 왕성한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한일합방 후 1916년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기술교육체제를 갖추기 위해 「京城工業專門學校」가 설치됐고, 이는 이후 일제의 정책변화에 맞춰 「京城高等工業學校」로 그리고 다시 「京城工業專門學校」로 개편되는데, 이들이 해방 후 1946년 설립된 「국립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의 전신이 된다.

1964년 金熙春(37년卒)교수가 동창회장을 맡으면서 정기적으로 신입생 환영회를 개최하는 등 동창회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1976년 11월 제1회 「흙커밍데이 행사」가 시작됐고 1977년 4월 「동창회보」 제1권 1호가 발간됐다. 이후 동창회 회원명단을 발간하고, 동문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계속되는 동창회 회원들의 노력과 참여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최근 동창회는 각종 사업과 활동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해 일신을 하게 됐는데, 이는 전임 동창회장인 洪性夫(60년卒·前대우 사장)동문의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 즉, 동창회 운영진이 효율성을 갖도록 재정비함과 동시에, 회원 개개인에게는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선배와의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회원들에게는 동문 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모임이 되며, 후배 재학생에게는 같은 길을 걷는 인생의 선배로서 진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창회가 될 수 있도록 그간의 각종 행사들이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동창회 회칙이 전면 개정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존 상임이사 중심의 운영에서 동창회의 실질적 주축인 각 기별 이사 중심의 이사회 운영으로 전환됐다. 2001년도부터는 매년 2월 총회를 겸한 신년하례회의 개최를 정례화했으며, 5월 중 개최되던 기존의 「체육대회」를 「동문의 날」로 개편해 행사의 내용을 대폭 다양화했다. 재학생을 위해서는 기존의 학과 도서관 운영 및 도서 기증, 장학금 전달 등 이외에 선배로서 보다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기 위한 「동문 초청 간담회」가 신설됐다.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동창회의 굵직한 행사를 되짚어 보면, 지난해 12월 6일 洪性夫 전임 동창회장과 金永哲(63년卒·(주)퍼시스 명예회장)동문을 모시고 재학생을 위한 제1회 동문 초청 간담회(동문 성공학 강좌)를 모교 건축학과에서 개최했는데, 예상외의 많은 재학생이 참여해 선배로서 들려주는 진솔한 이야기를 경청했다.

또 9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본교 건축학과에서 「건축전」이 개최됐다. 재학생 후배들이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전시하는 자리로서, 동창회에서는 건축전 기간에 맞춰 「흙커밍데이」를 개최해 모교를 다시 찾은 선배들에게 후배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25년만에 다시 찾은 모교에서 후배들의 작품을 보며, 그리고 참석하신 지난날은사님들을 다시

뵈어 과거 학창시절에 대한 향수를 다시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였다.

앞으로 건축학과 동창회는 회원간의 교류를 더욱 증대시키기 위해 동문들 간의 소규모 모임 및 활동들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현재로는 동문 골프모임인 「건우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만, 젊은 회원들을 주축으로 한 많은 소규모 모임들의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보다 동문들의 생활과 사회활동에 밀접한 동창회가 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2002년 정기총회 겸 신년회.

노사정위원회 申 弘위원장



서울시 梁鉉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대화의 장」 마련해 상호 신뢰 구축”

지난 8월 8일 여의도에서 종로로 이전한 노사정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申 弘(62년 法大卒·서울시립대 교수)동문이 위촉됐다. 이에 申동문을 만나 위원회에 관한 궁금증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소개를.

『사회, 경제, 노사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해 정책을 정립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노·사·정 대표로 구성돼 있죠.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대통령의 제안으로 설립돼 경제 위기극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위기관리위원회는 아니지만 노·사·정이 모여 협의하는 공동의 장으로 노사관계를 원만히 풀어나감으로써 경제발전과 사회적 화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주5일제 근무 제도에 대한 갈등은 어떻게 풀어 가실지.

『2000년 5월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제가 위원장을 맡으면서 이 문제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1년에 근로자의 평균 노동시간이 2천5백시간 정도 되는데, 이를 2천시간으로 줄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영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자는 취지로 논의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많은 쟁점들이 해결됐고 이제 막바지 의견 조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시간 감소만큼 임금을 삭감하지 않겠다는 「임금보전」에 대해 기본 합의가 이뤄졌으나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타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원만한 노사문제 해결 방법은.

『근로자는 좋은 조건에서 근무하고 싶어하고 시주는 노동력을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활용하길 원하기 때문에 노사관계는 본질적으로 상충되는 관계입니다. 원만한 관계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항상 잘 해결된다면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니지



요. 어느 정도의 갈등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립만 계속된다면 경제와 나라가 불안정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간에 공통분모를 발견해 이해관계를 절충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일단 노사 또한 사람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 노사간의 문제 해결 방법이 예전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올해 상반기에 공공부문에서 일시적인 파업도 있었지만 노사관계가 지금처럼 안정적인 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동안 노사관계 당사자들이 성숙했다는 점과 나라를 위해 노사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서로 자각한 이유라고 봅니다.』

— 앞으로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로간의 믿음이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노사정위원회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나갈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며, 이를 위해 공정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申동문은 모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고려대 법대 교수, 서울시립대 총장,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 위원장,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강북지역 경제활성화 앞당긴다”

1958년 복개됐던 청계천의 복원을 위해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추진본부를 설립했고 지난 7월 31일 초대 본부장에 梁鉉在(74년 工大卒·모교 환대원 교수)동문을 임명했다. 이에 梁동문을 만나 사업에 대한 궁금증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 청계천이 복원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 지.

『이 사업은 3조직 즉, 추진본부·시민위원회·연구지원단이 유기적으로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청계천을 복원한다는 것은 그동안 단절됐던 6백년 역사의 흐름을 잇는 것이고 이를 통해 서울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역사와 문화의 복원이라 말할 수 있겠죠. 한편으로는 서울이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환경 도시가 되기 때문에 생태학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점을 얻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덜 개발이 됐던 강북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라 볼 수 있어요.』

— 청계천의 역사적 배경은.

『조선시대에 한양이 수도가 되면서 청계천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계천은 북악산, 인왕산, 남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만나 한강으로 흘러가는 천인데, 태종이 당시 빈번한 홍수로 인해 많은 물난리를 겪게 되자 준설하여 만든 것으로, 어느 정도 인공적인 천이라 할 수 있죠. 청계천이라는 이름은 일제시대 때 붙여진 것이고 당시는 「開川」이라고 불리었어요. 많은 목교가 놓아졌지만 홍수로 인해 제대로 버티지 못하자 「광교」라는 석교가 놓였고 세종 때는 수표를 만들어 홍수에 대비하기도 했죠. 6·25 이후에는 전쟁으로 인해 가난을 겪은 많은 사람들이 판자촌을 세웠습니다. 이후 박정희 정권 때, 새마을운동



의 일환으로 도로가 놓여지면서 판자촌들은 없어지고 청계천은 복개됐죠.』

— 교통혼잡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청계천이 복원되면 고가도로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70%가 도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차량입니다. 때문에 도심을 통과할 수 있는 다른 도로들이 있어 충분히 이를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중교통 중심으로 시민들의 인식이 전환돼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계획은.

『세계환경위원회에 청계천 복원 사업을 위해 지원금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죠. 그리고 청계천은 우리 후손들에게 남길 유산이기 때문에 먼 미래를 보면서 더욱 신중히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梁동문은 美일리노이대·하버드대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모교 국제교류센터 소장 겸 기획부실장, 대학신문 자문위원, 한국도시설계학회 실행추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亨)

보건대학원 동창회 具聖會회장

단과대 동창회장
인터뷰

환경대학원 동창회 丁榮植회장

“가을 흠커밍데이서 모교 사랑 확인”

지난해 12월 보건대학원 동창회장에 선출된 具聖會(59년 師大卒·69년 保大院卒·서울보건대학 학장)동문을 만나 그동안 활동과 앞으로 동창회 운영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임기 동안 동창회 활성화 계획은.

『동창회장의 역할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동창회 설립 목적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선 「참여하는 동창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회원들의 참여가 없으면 동창회는 본래의 기능과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더불어 「모교를 사랑하는 동창회」로 거듭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졸업생들이 자신의 모교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의 고마움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부터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참여 유도 방안은.

『2천6백여 명 전체 동문들이 동창회에 참여하고, 모교를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난 4월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만 등산대회를 정례화하여 매년 봄·가을에 가질 예정이며, 특히 올 가을에는 흠커밍데이 행사를 마련하여 모교 사랑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물론 기존에 펼쳐온 신입회원 환영회와 우수논문 발표자 포상, 자랑스런 동문상 시상 등은 꾸준히 진행할 것입니다. 더불어 동문 상호간에 긴밀하게 연락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한 주소록을 제작, 연말 송년회 겸 정기총회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서울보건대학을 소개한다면.

『우리 대학은 식품가공과, 간호과, 병원경영과, 환경과학과, 방사선과, 치위생과 등 16개 보건계열학과와 안전시스



템과, 전산정보처리과, 시각디자인과, 관광영어통역과 등 7개 미래산업분야학과로 나뉘어 있으며, 6천6백명의 학생이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보건계 전문대학으로서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의 학과를 연계하여 전문성을 창출해내는 이른바 퓨전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상병리과와 관광영어통역과, 식품영양과와 유통과학과처럼 학과와 학과를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 교육시키면 다른 대학 졸업생과 차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학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스스로 서울대 출신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반면에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지녀야 합니다. 또 동문으로서 동창회에 관심을 갖고 솔선해서 참여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具회장은 62년부터 6년간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면서 세계보건기구와의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며, 그 후 서울보건대학에서만 34년간 봉직하고 있다. 현재 한국환경위생학회 고문, 한국식품위생학회·한국 곤충학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분기별 조찬세미나 열어 정보교환”

지난 4월 25일 환경대학원 동창회장에 丁榮植(75년 環大院卒·前행정자치부 차관)동문이 취임했다. 최근 박사학위 논문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丁회장을 선릉역 부근 사무실에서 만나 보았다.

-환경대학원 동창회만의 장점이 있다면.

『회원 상호간의 유대관계로만 보자면 대학원동창회보다는 단과대동창회, 또 단과대동창회보다는 고교동창회가 더욱 끈끈하고 긴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대학원 동창회의 경우 도시계획, 조경 등 유사업종에 종사하는 동문들로 대부분 구성돼 있기 때문에 서로 연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결속력이 강하지요.』

또 환경대학원 동창회에는 대학 교수는 물론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전문가로서 국토개발 정책에 참여하는 인물이 가장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동창회 운영 계획은.

『우선 빠른 시일내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동창회 소식을 전하고, 1천8백여 회원들의 주소를 업데이트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임 全錫洪·李正植회장께서 추진해온 행사입니다만 분기별로 유명인사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조찬세미나를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지난 5월 롯데호텔에서 건설교통부 林寅澤(63년 法大卒)장관을 모셔서 강연을 듣고 토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장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장을 초빙하여 지역개발 정책 등 국토개발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 9월에 모교 교수님을 모셔서 사은회를 가질 예정이며, 아직 구상단계에 있지만 지방순회를 통해 지역별 동창회 모임에 참석하여 유대를 강화하고 싶습니다.』



니다.』

-공직에 몸 담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은.

『목포시장 시절인 93년 7월 전남 해남군 마산리 마천마을에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추락했습니다. 승객 66명이 희생되고, 44명이 살아난 대참사였는데 그때 진두지휘를 맡아 의료진과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구조활동을 펼쳤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 95년 광주시 부시장으로 근무할 때는 광주비엔날레를 창설하여 2백만명에 이르는 관람객을 유치, 흑자대회로 이끄는 등 우리 미술의 세계화에도 한몫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체험한 내용을 정리해서 책으로 펴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丁회장은 70년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전남 여천군수·무안군수·광양군수·나주시장·목포시장, 광주시 부시장,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장, 행자부 소청심사위원, 대통령 행정비서관·공직기강비서관, 행정자치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 (雙)

충북대 金福文 명예교수

화제의 동문

성균관대 沈慶久 교수

「국어의 영어식 로마자 표기법」 고안

“금강산이 줌깡센으로 발음되서야”

외국인이 우리 나라의 어떤 지명을 찾아갈 때, 우리말 로마자 표기와 그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길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가령 경복궁을 찾아가려는데, 외국인들이 지도의 로마자 표기를 보고 우리에게 「가이웅복궁」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의사 소통의 단절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로마자 표기법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올바른 표기를 연구하고 있는 金福文(51년 文理大入)동문을 소개한다.

현재 로마자 표기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金동문이 고안한 새로운 로마자 표기법은 몇 번의 개정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金동문이 처음 우리말의 로마자 표기에 관한 연구를 시작한 것은 1966년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로스앤젤레스 한국무역관장을 맡아 일하면서부터이다. 당시 문교부에서 개발한 로마자 표기가 우리말을 정확히 발음할 수가 없었고 이 때문에 무역업무에 많은 불편을 겪으면서 새로운 로마자 표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

그는 일본말의 로마자 표기는 발음과 일치하는데, 왜 우리말의 그것은 일치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가장 컸다고 한다. 이런 의문 속에서 많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되풀이하면서 우리말의 발음과 로마자 표기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끊임없이 한 결과, 하나의 표로 완성했다. 이를 계기로 일제시대의 잔재가 남아 있는 우리의 로마자 표기법이 드디어 독립했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우리말 독립운동가가 된 듯 하다고.

金동문은 현재 문화관광부가 고시한 로마자 표기법에 의해서 금강산은 「Geum



Gang San」으로 이것이 실제로 「줌깡센」, 이성계는 「I Seong Gye」로 「아이송가이」라는 발음이 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자신의 표기법에 의하면 「Gum Gahng Sahn」, 「Yee Surng Gye」라고 써서 그 발음이 표기와 일치한다고 말한다. 이 모든 것들을 모음과 자음으로 구별해 하나의 표로 고안해냈으며, 예문을 들어 그 오류와 이에 대한 올바른 표기를 상세히 적어 「국어의 영어식 로마자 표기법」이라는 저서를 썼다.

이 로마자 표기법은 언론에 의해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나 아직 채용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는 정부 각 부처뿐만 아니라 여러 정당을 찾아다니면서 호소했고 일부에서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흔히들 우리말의 올바른 로마자 표기법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를 가능케 하는 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국제무역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능률성, 경제성을 갖춘 일본의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표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궁화 연구·품종개량 20년 외길

“은사 아호 따서 신품종 이름 붙여”

무궁화가 우리 나라에 최초로 건너 온 때를 대체로 2천1백년 전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무궁화의 역사는 오래됐지만 나라꽃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일제의 침략이 시작되는 무렵이었다.

나라꽃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에서 무궁화만을 20여 년간 연구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 沈慶久(63년 農大卒·성균관대 교수)동문을 만나보았다.

沈동문은 최근 신품종 「星泉」, 「水陽」, 「松岩」의 명명식을 성균관대 식물원 무궁화 동산에서 가졌다. 이 신품종들은 그의 모교 석사 기간동안 은사인 星泉 柳達永명예교수, 故 水陽 李台現명예교수, 故 松岩 表絃九명예교수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그들의 호를 따서 명명한 것이다. 이들 신품종 중에 星泉은 진돗물에 강하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다른 무궁화에 비해 다음날 아침까지 피는 꽃이다. 水陽은 아래를 바라보는 수양형태의 꽃인데, 마침 형태와 은사의 호가 일치해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짙은 색을 가진 松岩은 홑꽃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역시 진돗물에 강한 꽃이라고.

그가 무궁화를 연구하게 된 것은 1990년 美메릴랜드에 있는 농무성 국립수목원을 방문하면서 받은 충격 때문. 그 당시 미국 학자들이 정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각국의 나라꽃을 연구하고 있었고 무궁화 또한 우리보다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던 것이다.

沈동문은 그 뒤로 무궁화 연구를 지속해 12품종을 개발했으며, 세계 모든 나라의 2백여 품종을 모아 기르고 있어 세계적인 무궁화 권위자가 됐다. 그는 어느 누구도 자신만큼 무궁화를 많이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무궁화는 7~9월에 피는 꽃으로 이 기



간동안 한 그루에 3천 송이 정도의 꽃이 피고 진다. 일제치하 시기에 진돗물이 많고 하루동안 피고 지는 하루살이 꽃이라 기분 나쁘다고 뿌리채 뽑아버리라는 교육 때문에 무궁화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한다. 실제로 진돗물 같은 경우 장미가 무궁화보다 더 많이 끼는 꽃이다.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많은 무궁화가 심어졌으나 쉽게 보기 어려운 것은 무궁화는 기르기 까다로운 꽃인데 반해 심기만 하지 가꾸지 않아 잘 자라지 않는다는 것.

沈동문은 북한의 나라꽃은 「목란」인데, 우리 나라꽃을 제대로 개발해 놓지 않는다면 남북이 통일됐을 때 북한에게 어떻게 무궁화를 나라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고 한다. 이를 위해 진돗물이 적고 추운 곳에서도 잘 자라는 무궁화를 개발할 계획이며, 무궁화 축제와 무궁화 박물관을 여는 것이 목표이다. 그리고 노란 무궁화와 향기 나는 무궁화를 개발해서 더 많은 보급에 힘을 쓸 것이라고.

(亨)

제3회 商大人 걷기대회 및 등산대회



“관악산이 부른다”

모여라 “뭉치자·돕자·빛내자”

일시: 2002년 10월 3일(목) 오전 10시

장소: 모교 노천강당 집합

※ 참가하실 분은 참가신청서(항상의 탑 여름호 P.121)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商大總同窓會 TEL: 761-2278, 761-7172 / FAX: 761-7110 / E-mail: snusd603@hanmail.net

고추익는 파란 가을 하늘이
상대 가족을 밝힌다.
모교 노천강당으로 모이자!

特報

【제2회 올해의 교수상 시상·정기총회 및 상대인 송년의 밤】

2002년 11월 20일(수) 오후 6시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 볼룸



⑦4 (주)알라딘

35만여 종 도서자료 갖춘 인터넷서점

매일 3만 회원 이용... 연 3백억 매출

「책」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았는가. 시 한 구절에 감동하고,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으로 인해 삶의 방향이 바뀌고, 그림이 있는 책을 통해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해보기도 하고, 사전에서 찾은 단어 하나에 지식이 축적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매체가 바로 「책」이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깨어있게 하는 「책」은 때론 배고픔을 채워주는 음식보다,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돈보다, 인생의 스승보다 더 많은 깨달음을 주는 존재임을 누구나 한번쯤 경험해보았을 것이다.

인터넷 시대로 인해 e-book이 생기고, 모든 일간지와 만화까지 한번의 클릭으로 읽을 수 있지만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사색할 수 있는 것 역시 손때가 묻은, 낡은 책 한 권이다. 하지만 바쁘게 살아가는 요즘 현대인에겐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뻘뻘하게 짜여진 틀 속에서 성공을 위해 달리는 직장인, 어릴 적부터 온갖 것을 다 해내야 하는 유치원생과 입시준비를 위해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공부해야하는 수험생들, 모두 바쁜 시간에 쫓기다보니 정작 꼭 필요로 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가 많다.

책은 읽고 싶는데 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 시간이 나도 막상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하다 그만둔 사람, 섣달 책을 골랐는데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인터넷 서점 「Aladdin」이다.

IT시대에 발맞춰 2백24일간의 프로그램 개발과 데이터베이스 정리작업을 거친 끝에 지난 1999년 7월 오픈한 (주)알라

딘(사장 曹裕植·94년 社會大卒)은 몇 백여 종의 책과 직원으로 출발해 3년이 지난 지금은 연 3백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35만여 종의 도서관련 데이터와 차별화된 콘텐츠를 자랑하는 회사로 성장했다.

이렇듯 알라딘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책」과 함께 살아온 曹사장의 인생철학이 고스란히 깃들여있기 때문이다. 정치학과를 졸업한 曹사장은 중학교 시절,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과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 형제들」을 읽으며 소설가의 꿈을 키웠다. 이후 그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준 것은 「논어」였다. 나를 다스려 남을 편하게 하라, 즉 남을 변하게 하려면 나 자신부터 변해야 한다는 「修己安人」이라는 말이었다. 이러한 책속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曹사장은 「책과 사람과 정보, 그리고 문화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 지금의 알라딘(www.aladdin.co.kr)을 세우게 된 것이다.

알라딘이 여타 인터넷 서점들과 차별되는 점은 우선 웹사이트 상에 그 흔한 배너광고가 없다는 점이다. 수많은 기업들로부터 광고 게재 요청을 받았지만, 서점이 지녀야 할 본연의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 이를 모두 거절했다. 게다가 어지럽게 널린 광고들로 인해 알라딘을 찾아온 고



曹裕植 사장

객들이 편안한 서핑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하루에 40만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매일 3만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는 알라딘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는 뛰어난 보안 결제 시스템이다. 흔히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할 시 주민번호 등 세세하게 개인 신상 정보를 입력해야만 결제가 가능하지만, 알라딘은 고객들이 안심하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로그인 환경이 아닌 주문과 동시에 이메일 계정을 등록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는 온라인 송금 및 금액 확인, 환불까지 모든 결제과정을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책을 배달해주는 택배사의 화물조회 시스템과 배송상황도 수시로 확인 가능하다. 번거롭고 부담스럽기만한 회원가입 절차 대신 간단한 구매 정보 제공만으로 고객들과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기획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으로 알라딘은 지난 12월 제3회 조선일보 인터넷 대상 시상식에서 전자상거래 부문 대상을 차지하며 우수하고 독창적인 도서 쇼핑몰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이밖에 알라딘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의

미에서 인터넷 서점 최초로 책의 표지와 서평뿐만 아니라 책 본문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Let's Look」코너와 독자들이 직접 추천한 도서목록을 만들어 공유하는 「리스트의 달인」 코너를 신설해 네티즌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Let's Look」 코너는 오프라인 서점과 달리 책을 직접 훑어보고 살 수 없는 온라인 서점의 단점을 보완해 도서의 앞 뒤 표지와 책날개는 물론 본문 가운데 10~20페이지를 이미지로 보여줘 고객 만족을 실천하고 있다. 또 개성이 살아있으면서도 객관성을 잃지 않는 각 분야 편집자들의 서평이 독자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알라딘을 한번 찾은 고객은 다시 사이트를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알라딘은 좀더 정확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책을 전하기 위해 최근 물류센터를 확장 이전하고 사명을 (주)알라딘 커뮤니케이션으로 변경했다. 또 온라인 백화점으로 영역을 확대하며 책과 관련된 음반과 DVD를 추가했다. 단 曹사장은 종합쇼핑몰의 개념이 아닌 최고의 인터넷서점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다.

올해의 매출목표는 4백억 이상의 순수 도서매출을 올리는 것. 이에 曹사장은 「인터넷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이전보다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하겠지만 고객 중심주의, 고객의 편익을 먼저 생각하는 알라딘의 정신은 변함없이 이어나갈 것」이라고. (表)



알라딘 인터넷 사이트.



金善陽 前인하대 교수

가족동문 15명 중 7명은 교육계에 헌신

“손자들과 하나되는 「독후감 발표회」 열어요”

예전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말을 사용하곤 했었다. 하지만 요즘엔 10년이 아니라 1년 사이에도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경험한다. 특히 X, N, 최근엔 W세대가 등장하면서 사람과 사람, 과거 세대와 현 세대 사이에는 때론 보이지 않는 벽으로 인해 갈등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할아버지와 손자 세대를 다시 하나로 엮기 위해 1년에 두 번, 특별한 가족 행사를 열고 있는 동문 가족이 있다.

金善陽(57년 師大卒)동문과 부인 閔丙順(59년 師大卒)동문이 생각해낸 「독후감 발표회」가 바로 그것이다. 1남2녀를 둔 金동문에겐 6명의 손자가 있다. 얼마 전까지는 설날이다, 추석이다 하며 손자들에게 세배 돈을 줬지만, 金동문 내외는 돈보다 더 값진 것이 없을까 고민한 끝에 세배 돈 대신 책값을 주기로 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책을 고른 손자들은 다음 가족 모임 때까지 10권의 책을 읽어 그 중 가장 감명 깊게 또는 재미있게 읽은 책 두 권을 선정해 독후감을 단행본으로 만들어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처음엔 손자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쑥스러워 땀을 뻘뻘 흘리며 발표했다고 말하는 金동문. 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손자들의 기량이 향상되면서 발표가 끝나고 질문하는 시간에 모두들 그렇게 진지할 수가 없다고. 이로 인해 손자들 집을 방문할 때면 벽에 걸려있는 것이 학교에서 받은 독후감 상장들이다.

한편 金동문의 형제 가운데는 교육계에서 봉직한 동문이 많다. 그 영향은 지난 1951년부터 1953년까지 서울대 사대학장을 역임하며 우리 나라 교육을 위해 헌신한 부친 故 金基錫교수로부터 받았다. 첫째 누나 金惠卿(52년 師大卒)동문은 한양대에서 20년 이상 교수로 봉직했으며,



앞줄 가운데부터 시계방향으로 金善陽·閔丙順동문 내외, 한 명 건너 韓寅燮동문, 李肯遠동문, 한 명 건너 金聖天동문.

그의 남편 韓基彦(49년 師大卒)동문 역시 모교 명예교수로 퇴직했다. 韓基彦동문이 金惠卿동문과 맺어진 것은 당시 金基錫교수의 조교가 다름 아닌 韓동문이었기 때문이다.

남동생 金眞陽(59년 師大卒)동문과 그의 부인 俞永恩(61년 師大卒)동문은 과 커플로 맺어진 사이. 金眞陽동문 내외는 국내에서 교육자로 활동하던 중 미국으로 이민, 둘 다 목사의 길을 걷다 은퇴했다. 金眞陽동문과 동기생이었던 閔丙順동문의 스승이 바로 金基錫교수였으며, 閔동문은 어릴 적부터 정치가나 재력가보다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자를 배우자로 원하고 있었던 터라 선택배였던 金善陽동문을 보고 자연스레 가까워졌다고 한다. 매부 裴應賢(62년 師大

卒)동문이 金基錫교수의 사위가 된 계기는 이 집안의 주치의가 바로 裴동문의 부친이었기 때문. 金基錫교수로 인해 많은 이가 교육에 몸담게 됐고, 서로의 배우자를 만나게 된 셈이다.

金善陽동문 집안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음악으로 대화를 나눈다는 점이다. 기독교 집안인 관계로 교회에서 대부분 성가대 대원으로 활동하던 金동문 가족은 어릴 적 멋진 화음으로 노래를 부르곤 했었다고 한다. 지금도 金동문은 부인과 자녀들 가족과 모두 모일 때면 피아노의 반주에 맞춰 찬송가를 부르며 서로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金동문 집안과는 달리 부인 閔丙順동문 가족은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있다. 둘도 없는 오빠 閔丙琦(50

년 醫大卒)동문은 의사로 은퇴했으며, 아래로 남동생 閔丙國(63년 法大卒)동문은 변호사로, 閔丙均(66년 商大卒)동문은 자유기업원 원장으로, 閔丙坤(69년 工大卒)동문은 미국에서 수석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며 그의 부인 金惠卿(71년 文理大卒)동문은 화학과를 졸업했다. 閔동문 형제들이 모두 다른 분야를 전공하게 된 이유는 당시 은행지점장이었던 부친의 남다른 자녀교육 때문. 자녀 모두의 개성과 소질을 어릴 적부터 찾아내어 서로 다른 분야에서 꿈을 펼치기를 원했던 부친의 뜻에 따라 閔丙順동문의 형제들은 골고루, 사회 곳곳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金善陽동문에겐 3명(?)의 아들이 있다. 특히 사위 둘을 포함한 아들 셋 모두 서울대 동문이다. 장남 金聖天(83년 自然大卒)동문은 과학자의 꿈을 안고 화학과를 졸업, 현재 미국에 있는 LG그룹 생명과학부 사업개발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에서 AIDS 치료를 위한 콤팩트 드를 개발, 미국에 수출하는 작업을 하다가 스카우트 됐다. 그의 꿈은 열악한 국내 생명과학분야를 발전시켜 후배들에게 과학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첫째 사위 李肯遠(85년 自然大卒)동문과 둘째 사위 韓寅燮(85년 自然大卒)동문은 같은 물리학과 동기동창생. 韓寅燮동문이 金동문의 막내딸을 처음 만난 것은 절친한 친구 李肯遠동문의 함이 신부 집에 들어가던 날, 이를 직접 매고 왔던 사람이 바로 韓동문이었다. 이후 韓동문은 이 집안 가족이 돼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李肯遠동문은 현재 고려대 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韓寅燮동문은 NASA에서 우주 정거장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참여중이다. 특히 韓동문은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자신이 직접 참여한 우주선을 타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 평생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며 지난 1999년 인하대 교수로 정년퇴임을 한 金善陽동문은 끝으로 삶은 하나의 봉사라고 말한다. 이유는 나 혼자만 아닌 주위의 모든 것들과 함께 서로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내 가정이 화목하고, 나아가 사회가 전체가 화목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表)

모교소식

제23대 총장 취임식 거행

鄭총장 “用之不竭의 인재를 배출해야”
林회장 “책임만큼 경륜·정열 쏟아주길”



지난 8월 1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에서 본회 林光洙회장과 孫一根상임부회장을 비롯해 전임 高柄翹·權壽赫·李賢宰·趙完圭·李壽成·鮮于仲皓총장, 명지대 趙淳석좌교수, 고려대 韓昇洲총장, 연세대 金雨植총장 등 5백여 명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3대 鄭雲燦총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신임 鄭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모교가 진리의 불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지성의 전당이 돼야 한다』며 『정의와 도의로 사회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지성과 덕성, 그리고 감성을 갖춘 用之不竭의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임 李賢宰총장은 『신임 鄭총장께서는 국가와 민족의 최고 재신인 모교의 중책을 맡으셨다』며 『학자적 능력과 관리자적

인 뛰어난 능력을 모교를 위해 최대한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에서 『신임 총장에게 조국과 국민은 물론, 서울대 구성원과 동문의 기대가 크고 이에 책무 또한 무겁다』며 『모교가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경륜과 정열을 쏟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단과대학(원)별 회원현황

구분	8월 졸업	총 회원
인문대학	123	8,608
사회과학대학	119	11,023
자연과학대학	58	8,515
가정대학	28	3,254
간호대학	-	2,990
경영대학	54	5,143
공과대학	220	34,883
농업생명대학	57	18,181
문리과학대학	-	9,731
미술대학	15	4,275
법과대학	48	14,159
사법대학	116	22,899
상과대학	-	6,723
수의과대학	1	1,958
약학대학	1	5,550
음악대학	22	6,261
의과대학	-	9,906
치과대학	-	5,399
대학원	731	64,488
경영대학원	-	701
교육대학원	-	653
보건대학원	22	2,624
사법대학원	-	508
신문대학원	-	264
행정대학원	33	3,775
환경대학원	18	1,807
소계	1,666	254,278
준회원		13,338
(단기과정)		8,619
총계		276,235

2001학년도 후기 졸업

1천6백66명 학위 받아

모교 2001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이 지난 8월 28일부터 생활과학대학을 시작으로 30일까지 각 단과대학(원)별로 열려 학사 8백64명, 석사 4백42명, 박사 3백60명 등 모두 1천6백66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로써 동창회 총회원 수는 27만6천2백35명(준회원, 단기과정 포함)으로 늘어났다. 각 단과대학(원)별 졸업자수 및 동창회 회원수는 별표와 같다.

崔承熙교수 등

17명 정년퇴임

모교는 지난 8월 30일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앙당에서 鄭雲燦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와 재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17명의 교수 정년퇴임식을 가졌다.

이날 퇴임한 교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프로필 다음 호에 게재)

崔承熙(국사학)교수, 金容九(외교학)교수, 朴相大(생명과학)교수, 盧賢模(생명과학)교

수, 金相文(수리과학)교수, 李正浩(경영학)교수, 姜春植(재료공학)교수, 李華榮(응용화학)교수, 李炳駟(식물생산과학)교수, 崔大權(법학)교수, 任寅宰(교육학)교수, 申國鉉(제약학)교수, 徐桂淑(기약)교수, 李珍鏞(의학)교수, 趙斗英(의학)교수, 權泰煥(환경계획학)교수, 金安濟(환경계획학)교수.

(變)

鄭雲燦총장 취임사 <요지>



교육은 진리 탐구의 또 다른 한 축으로 그 중요성이 결코 연구에 뒤지지 않습니다. 아마 한국의 여건을 생각해 볼 때 국민이 서울대학교에 거는 기대는 교육의 측면에서 더 클지도 모릅니다. 우리 대학에는 해마다 전국 각지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이들이 우리의 교육을 통해 사회각계의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갖추어 가고 있는지 결코 자신할 수 없습니다. 혹시 막스 베버가 말한 「비지성적 전문가」들만 양산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럽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과 같은 혼탁한 사회에서, 부정과 부패를 물리치고 정의와 도의로 사회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지성과 덕성, 그리고 감성을 갖춘 用之不竭의 인재를 배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서울대학교가 한국 제일의 대학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나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더 이상 제일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부문도 생겨

林光洙동창회장 축사 <요지>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20萬 同門들의 團合과 參與, 獻身を 외쳐온 우리들 서울大人으로서도 鄭雲燦總長에게 거는 期待가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님을 이 자리에서 確認합니다.

아무쪼록 21世紀를 열어가는 母校 總長으로서, 우리 서울大學校가 世界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당신의 經綸과 情熱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서울대 危機論」이 擴散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밖에선 「서울대 獨走」를 批判하는 一角의 輿論이 儼然히 있고, 서울대 內에선 構成員들을 中心으로 「改革과 變化」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昨今の 狀況이 서울대의 位相을 根本的으로 흔들 危機라고 저는 보지는 않지만, 이 같은 霧圍氣와 狀況이 持續될 境遇 長期的으로는 서울대의 沈滯, 더 나아가 國家 競爭力의 低下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일단의 걱정을 지을 수는 없는 點 또한 事實입니다.

分明 時代는 놀랄만한 速度로 變해가고 있습니

다. 經濟나 科學技術의 變化는 歷史를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檢점으로 막혔던 障壁 - 國籍이며, 國境이며, 年齡, 性別, 階層 등을 뛰어넘어, 個個人이 인터넷을 通해서 直接 온 世界를 接하는 등 프론티어(Frontier)가 一時에 넓어지고, 때와 경우에 따라서는 個人的 힘이 지금까지보다 몇 배, 몇 배로 커지고 있습니다.

領土가 크다고 해서, 地下資源이 많다고 해서, 人口가 많다고 해서, 나라의 힘이 큰 時代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21世紀는 教育이 있고 高度의 專門職能을 가진 Human Capital 즉, 人的資本이 國力の 基礎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知識의 生産者, 保全者, 傳播者로서 大學의 役割과 機能은 나라의 命運과 直結된다 하였습니다. 눈부시게 變化해 가는 高級情報化社會에 適應해 나갈 수 있는 能力을 키워가는 일 - 人材의 養成이야말로 눈앞에 닥친 焦眉의 問題 中の 問題입니다.

앞으로 母校가 겨냥해야 할 무대는 韓半島의 남쪽 折半이 아니라 全 世界입니다. 따라서 보다 폭넓은 教養과 進取的 創意性, 드높은 道德性, 그리고 깊은 專門知識을 兼備한 人材를 養成할 수 있는 教育體制와 制度를 갖추어야 합니다.

敬愛하는 서울大人 여러분!

서울大人은 祖國 앞에 無限責任이 있습니다. 새 總長의 就任을 새 출발의 契機로 삼아 母校의 發展, 祖國의 發展에 힘을 모아갑시다.

저 또한 서울대를 限없이 사랑하는 永遠한 서울大 同門의 한 사람으로서, 언제까지나 서울大의 發展을 위해 精誠을 보낼 것입니다.

새 出發하는 者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鄭雲燦總長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모든 서울大 家族들의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 「民族의 偉大한 相續者」인 서울대를 「타오르는 빛의 聖殿」으로 길이길이 빛내 주시기를 懇切히 祈願합니다.



역경 이겨낸 「경험」은 성장의 밑거름

任淑彬(79년 看護大卒)을지의과대 간호학과 교수

아파트에 사는 내게는 30여 개 남짓한 화분이 놓여 있는 베란다가 화초밭이다. 대단한 품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절 따라 피고 지는 평범한 꽃들이 나를 즐겁게 한다. 그래서 별달리 챙겨주는 것도 없으면서 하루 한 두 차례 화분마다 유심히 들여다보는 게 어느새 습관이 됐다. 누구 말대로 식물은 돌보는 이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라는지 십여 년 전부터 있던 화분을 비롯해 엇그제 얻어온 야생화까지 대체로 잘 자란다.

그런데 남춘과 수국 사이에 놓인 수선화가 문제이다. 계절도 모르는지 아직까지 잎이 시들지 않은 채 버티고 있다. 대전으로 온 첫 해 봄, 꽃 한 송이에 마음이 이어지면 노란 수선화 밭이라도 떠오를까 싶어 샀는데 사오던 해 꽃이 진 후로는 매년 앞만 무성하다가 시들기를 반복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 꽃집 아줌마에게 물어보았더니 베란대에 키우면서 꽃을 보려면 동(冬)처리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범생 숙제하듯이 잎이 시들기를 기다려 일러준 대로 뿌리를 파내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이듬해 다시 분에 심었다. 그리고 봄날 내내 수선화가 피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잎만 올라오더니 이번에는 여름이 다 가도록 잎이 그대로 있는 것이다. 뭐가 안 맞은 걸까?

동(冬)처리, 말 그대로 겨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사실 있는 그대로도 다른 식물들은 이 베란다에서 제법 그럴듯한 겨울을 맞이하고 견뎌내며 점점 더 튼튼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더운 지방에서 자란다는 알로에조차도 「한겨울 베란다 살이」를 이겨내서 그런지 벌써 두해째 꽃을 피우고 있다. 그런데 수선화에게만은 이 환경이 꽃 피우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보다. 게다가 마음먹고 만들어준 겨울나기도 시원치 않았던 것 같고.

이런저런 생각이 얼마 전까지 TV에서 방영되던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에 다르다. 주인공들 대부분이 역경을 이겨내거나 주어진 한계를 뚫고 자기 목표를 꽃처럼 피우는 내용이었던 것 같다. 어떻게 그렇게 힘든 환경에서도 잘 버텼을까, 아니 버텨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두드러지는 성과를 낳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 같았다. 콩이 들판에 뿌러지면 콩나수가

되고 실내에서 싹이 트면 콩나물이 된다고 했었다.

인간의 정신건강을 이야기할 때 비슷한 환경이라고 모두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쯤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 이쯤에서 떠올릴 수 있는 것이 「resiliency」라는 개념이다. 우리말로 탄성력, 회복력, 극복력 등으로 번역해 사용하고 있는데 역경이나 재난을 성장의 경험으로 전환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환경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영향 받지 않을 수 있는 능력 내지는 더 나은 상태로 튀어오를 수도 있는 능력이라고 하겠다. 그러니 이 탄성력(극복력)이 큰 사람은 열악한 환경, 취약한 속에서 적응할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더욱 건강한 사회, 튼튼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시해야 할 것은 어른들보다도 아이들의 탄성력(극복력)이다. 흔히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서 이 능력과 관련되는 요소로 순한 기질, 인내, 높은 지능, 문제해결능력, 가족이외에 돌보아주는 어른, 가정 밖에서의 보상적인 경험, 규칙적인 집단활동 등을 든다.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혹은 사회성이 좋은 아이들이 경우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적절한 외적 지지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형태로 미래 세대의 탄성력을 기를 수 있을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 각자의 역할에 맞춰 생각해 볼 일이다.

크고 작은 걱정거리를 들고 찾아오는 학생들을 「가족이외에 돌보아주는 어른」의 심정으로 만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경험」을 갖도록 하고, 일상에서 만나는 아이들과 「보상적인 경험」을 나누고, 유약한 이들에게 「규칙적 집단활동」을 지도해야겠다. 베란다에서도 수선화꽃을 볼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선택과 집중! IT산업 경쟁력 강화책

趙一九(96년 大學院卒)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정책연구팀 연구원

21세기에 접어들면서 IT산업의 경쟁구조는 첨단기술과 시장을 선점한 기업만이 생존하는 국제 과점구조로 진화하고 있다. 즉, 축적된 기술력과 기술개발 능력을 가진 소수의 국가 및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IT산업의 이러한 거대경쟁(mega-competition) 구조는 다음과 같은 산업의 기술 혁신 패턴과 상호영향을 주면서 향후 더욱더 심화될 전망이다. 첫째, 국가간, 거대 기업간 기술경쟁의 심화로 IT산업의 기술수명주기가 대폭 단축되고 있다. 둘째, IT관련 기술혁신이 여러 분야의 과학기술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는 기술융합화와 기술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른 기술개발의 어려움이 더욱더 증가되고 있다. 셋째, IT산업의 기술혁신 주도가 정부나 공공부문의 기술공급 중심에서 민간의 산업적 수요 중심으로 변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술적 기회가 크게 확대되고, 기술혁신에 있어서 정부출연연구소와 민간기업간에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집중화와 제휴가 보다 빈번해질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어떠한 전략으로 미래에 대비해야 할까? 사회와 국가 변화의 주 요인인 기술 패러다임 특성은 유동성, 네트워크, 속도, 연결성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문화와 다원성에 바탕을 둔 사회와 국가의 질서를 가능하게 했다. 앞으로 IT에 힘입어 급속도로 글로벌, 지구촌화는 진전될 것이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핵심분야에 대한 선택과 우리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시키는 대응전략을 갖춰야 할 것이다.

13억 인구를 거느린 중국의 WTO가입과 더불어 우리 나라는 중국의 숨겨진 추격을 받고 있다. 물론 우리는 올해 들어서 한일 월드컵으로 잔뜩 고무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경쟁과 협력의 대상인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는 단계에는 아직 못미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중요한 기로에 선 것이다. 우리 기술로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CDMA산업이 그나마 우리 경제를 이끄는 성장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지만 향후 10년 이내 우리 경제의 앞날은 장담할 수 없다. 이러다가 남미형 개도국의 경제위기라는 전철을 밟을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일기도 한다.

따라서 미래에 대비한 투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사자의 자식 사랑은 우선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는 초원의 제왕이 가진 생존전략이 바로 선택과 집중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우리의 경쟁력을 철저히 분석해 핵심

역량(core competencies)의 확보 가능성이 있는 전문분야를 집중 육성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 IT산업의 새로운 성장엔진은 어떠한 분야에서 방향성을 찾아야 할까? 먼저 3, 4세대 이동통신 핵심기술개발 등 CDMA기술의 진일보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는 CDMA분야 기술 종주국으로서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의 산업 및 기술협력, 공동 연구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때에만 우리의 지속적 성장엔진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이 분야에서 성공한다면 우리 나라는 이동통신 강국으로서 뿐만 아니라 세계 이동통신 시장의 최강자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IT와 NT, BT 등의 융합기술분야에서 우리 기술의 강점을 심분 활용하는 한편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도기술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이 분야에서 신기술은 아직 개발 초기단계이고 세계시장의 빠른 성장과 주도권 경쟁력이 펼쳐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육성 전략 및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산업 육성 및 진흥에도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며, 현재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속정보통신망과 같은 IT 인프라를 구축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의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선택과 집중!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만이 가능하며, 그에 상응하는 막대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미래 핵심사업의 발굴과 선택 그리고 전략시장에 대한 역량이 집중 될 때만이 우리 나라는 미래를 선도하는 선진 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밑거름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대학교는 미래유망분야의 선택과 집중, 우수한 인재를 육성으로 가리고 최고로 다듬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항상 겸허한 자세로 유동성 있는 정신을 통한 국내외 협력을 증진하고 끊임없는 자기혁신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내는 서울대학교가 돼야 할 것이다.

SNUA OPINION LEADER

도를 넘는 이중성의 세계, 한국의 리더십

지난 6월 11일 연세대 宋 復교수는 자신의 정년퇴임을 앞두고 고별 강연에서 「한국적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강연을 통해 기업 또는 사회 각층의 리더들에게 오늘날 어떤 자질이 요구되는지와 동양과 서양의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 엿볼 수 있었다. 이날 그가 말한 **強과 柔를 결합한 리더십**에 관해 宋 復문으로부터 들어보았다.

한국 리더십의 특징은 이중성이다. 문제는 「얼마나 이중적인가」이다. 얼마나 이중성을 고유성으로 갖고 있으며, 얼마나 그 이중성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내재화하고 있는가」이다. 결론부터 간추리면, 우리는 「도를 넘는 이중성」이다. 그 정도는 어느 나라 사람들과도 비교될 수 없이 크다. 「剛柔兼全」, 「華實兼全」 말고도, 항용 쓰는 「文武兼全」이라는 말처럼 이중적이어야 하고, 「仁斷兼全」이라는 말처럼 또한 이중적이어야 한다. 「칼과 붓」을 함께 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 자애로움과 냉혹함을 함께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은 불경에도 없고 성경에도 찾을 수 없는 이중성이다. 儒家에서도 仁은 강조하지만 斷을 찾지는 않는다. 그 칼로 끊는 듯한 냉혹성, 잔혹성과 함께 인을 찬양하는 구절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겸전이라는 말을 보통으로 쓰고, 또 항용 바라고 있다.

강약이 함께 하는 것도 우리 특유의 이중성이다.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강자가 늘 이긴다고 생각지 않는다. 강자가 약자에게 이기는 것은 자연이고, 오히려 순리고, 더 따질 것 없는 상식이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弱能勝強」이라는 말을 더 자주, 더 즐겨 쓴다. 약한 것이 능히 강한 것을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발상은 아마도 세계 어느 곳에도 찾을 수 없는, 미상불 우리만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만일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해도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사고방식, 또는 생각의 버릇이라 할 수도 있다.

「柔能制剛」이라는 말도 우리의 그 「도를 넘는 이중성」 입증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부드러운 것이 능히 굳센 것을 제압한다. 이것은 어느 나라 사전에도 찾을 수 없는 비상식이고 몰상식이다. 굳센 칼로 부드러운 풀을 베는 법이다. 부드럽기 한량없는 풀잎으로 굳센 칼날을 막아낼 수는 없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그 풀이 그 칼날을 능히 제압하고도 남는다는 것이다. 칼로써 풀을 아무리 베어도 풀은 자라난다. 베고 또 베어도 풀은 자라나고, 마침내 칼날은 무더지고 망가져서 풀을 더 베어낼 수 없게 된다. 풀은 무성함때 같은 그만 효능을 잃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이른바 유능제강이다.

우리의 장롱, 우리의 국궁도 우리의 특유한 이중성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장롱은 강유겸전뿐 아니라 화실겸전까지 겸전한다. 장이나 농의 앞판은 과묵이나 먹감나무, 소나무 또는 참죽나무와 같은 단단한 나무, 이른바 「굳센」 나무판으로 돼있다. 반면 뒷판은 부드러운 오동나무를 쓴다. 과묵이나 먹감나무 또는 참죽나무는 단단할 뿐 아니라 그 무늬는 아

름다워서 화려하기까지 하다. 우리 나라 산에는 무늬가 아름답고 결이 단단한 잡목들이 수없이 많다. 그 어느 나무든 단단하고 무늬가 좋으면 앞판으로 다 쓰인다. 그리고 뒷판은 꼭 부드러운 나무를 쓴다. 부드러운 나무의 대표가 오동나무

한국 리더십은

剛柔兼全이나

德能兼備처럼

강약이 함께 한다.

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딸을 낳으면 우선 오동나무부터 심는다고 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우리 선조들이 강유겸전의 이중성을 그렇게 열심히 좇았을까. 거기에 금상첨화로 화실겸전까지 겸했을까. 화실겸전은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으레 좇음직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강유겸전이다. 그것은 미상불 우리의 가혹한 자연조건과 결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겨울은 너무 춥고 우리의 여름은 너무 덥다. 사철의 한서 차가 너무 심하다. 하루 중에도 일교차가 너무 크다. 거기에 매마를 때 너무 매마르고, 습할 때 너무 습하다. 건습의 폭이 너무 넓은 것이다. 이럴 때 굳셈과 부드러움 - 강과 유가 같이 있지 않으면 어떤 물건, 어떤 작품이든 트집을 일으키게 마련이다. 이 트집을 중화시키고 습기를 닦아 건습의 변덕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강유겸전이다. 우리 선조들이 그 지혜를 터득한 것이다.

강유겸전 못지 않게 「德能兼備」에 대한 요구도 우리 이중성의 전형을 구성한다. 강유처럼 덕능도 서로 반대지향이다. 부드러우면 굳세기 어렵고 굳세면 부드럽기 힘들듯이, 덕스러우면 능하기 어렵고, 능하면 덕스럽기 힘들다. 덕은 무엇이며 능은 무엇인가. 덕과 능의 대비는 사람과 과업의 대비로 요약된다. 덕은 사람에 초점을 두고, 능은 과업 곧 일에 초점을 둔다. 덕은 지도자(leader) 또는 한 집단의 長이 사람관계에 주력해서 人和로 그 집단을 이끌어 갈 때를 말하고, 능은 지도자 또는 장이 과업성취에 주력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 집단의 목적을 달성해 갈 때를 이른다. 전자의 경우 「그 사람 덕이 크다」고 말하고, 후자의 경우 그 사람이 「능력이 출중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덕이 있는 사람은 「무능력」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無德」한가. 그러한 대비가 과하다면 덕이 있는 사람은 능력이 좀 모자라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덕이 좀 얇은가. 그 둘을 함께 겸비할 수는 없는가.

덕은 집단 속에서 남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그 정도가 드러난다. 그만큼 남보다 너무 앞서도 안 되고, 너무 뒤져도 안 된다. 남보다 너무 앞서도 덕이 없는 사람이 되고, 남보다 너무 뒤져

도 덕이 없는 사람이 된다. 같은 이치로, 남보다 너무 머리가 좋거나 너무 예리하거나 너무 통찰력이 뛰어나도 덕이 없고, 반대로 머리가 너무 나쁘거나 너무 둔하거나 너무 통찰력이 떨어져도 덕이 없는 또는 역이 얇은 사람이 된다. 덕은 中이고, 평균이고, 보통인 데서 찾아진다. 학교 성적이 중간 정도의 보통 사람, 그 사람들 중에서 덕스러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 회사에서도, 일반 사회집단에서도, 덕스러운 사람은 모두 중간이고 평균인이고 보통 사람이다. 그는 절대로 「남다른」 사람이 아니라 꼭 「남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능력이 출중한 사람은 다르다. 그는 절대로 「남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사람이다. 그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머리가 뛰어나고, 예리하고, 통찰력이 깊다. 보통사람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곳까지 보고, 보통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까지 듣고, 보통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점까지 느낀다. 그는 수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학교 성적이 우수하고, 過人하다 할 정도로 회사에서도 실적도 크다. 조직 장악력도 남다르고, 정해진 목표의 도달에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목적 달성을 위해 동원하는 수단은 지극히 효율적이다.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적은 에너지를 투입해서 동료와는 비교될 수 없는 산출량을 낸다. 그 큰 산출량을 내는 것만큼 그는 냉철하다. 그의 몸에는 언제나 찬바람이 일고, 그의 얼굴에는 항상 냉기가 돈다. 보통사람이 범접하기 어려운 권위도 있고, 위엄도 감돈다. 덕스러운 사람의 훈훈함과 는 너무 대조적으로, 그는 언제나 찬바람을 안고 다닌다. 이런 덕능의 대비에선 으

덕은 中이고, 평균이다.

남보다 너무

앞서거나 뒤져도

덕이 없는 사람이 된다.

레 동서양이 비교된다.

서양인들은 능을 택하고, 동양인 특히 중국인들은 덕을 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서구 최초의 서사시인 호메로스의 「일리아드(Iliad)」부터가 능의 세계다. 최고의 용장 아킬레스가 트로이의 용장 헥토르를 죽이고, 트로이 용장 팔리스는 또 아킬레스를 죽인다. 그리고 오디세이는 트로이를 점령하고 신의 유혹도 뿌리치며 고향 이타카로 돌아온다. 개인 武勇과 雄飛가 절정에 달하는 가장 적나라한 서구인 始原의 능의 세계다. 오늘날 서구 경영자들이 같은 회사의 일반 종업원과 비교할 수 없는 1백배 내지 2백배 이상의 연봉을 챙기는 것도 이 바로 능 세계의 전통이다. 「능력이 있으면 가지라」는 메리트 시스템은 이 능 세계의 구현 그 자체다.

그러나 중국인들이 즐겨 읽는 4대 기서의 하나인 「水滸誌」는 능이 아니라 덕



宋 復

- 1960년 모교 문리대 정치학과 졸업
- 1959~1961년 사상계 기자
- 1967~1974년 서울신문 외신부 기자·차장
- 1975~2002년 연세대 교수
- 현재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 연세대 특별 초빙교수

의 세계다. 가장 능력 있는 주인공 晁蓋를 죽이고, 가장 평범한, 가장 보통 사람인 宋江을 1백명이 넘는 호걸들 - 최고 능력자 집단의 우두머리로 앉히는 것부터가 덕이 있는 사람만이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고의 틀이다.

같은 동양인이라도 일본은 능의 세계다. 武將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가 그들 말로 전설적 부대를 거느렸다는 이마카와 요시모토(今川義元) 군단을 붕괴시켰다는 것부터가 능의 세계를 말해주는 것이고, 이어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로 이어졌다는 것 또한 덕의 세계와는 무관한 능의 세계를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어느 하나만을 중시한 일원성 일원주의의 세계가 아니라, 덕능겸비의 이중성 세계다. 덕이 성해도 무능력하다고 지탄하고, 능이 성해도 독선 독단적이라고 지탄하는 나라, 바로 그 나라 사람이 우리다. 회사마다 인화와 창조를 똑같이 社是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덕능겸비의 표시다. 인화는 덕의 세계이고, 창조는 능의 세계이다. 그 정반대 되는 두 개의 세계를 우리는 조금도 거부감 없이, 모순감 없이, 갈등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오히려 사시로 이 둘을 내세우지 않은 회사가 모순에 찬 회사, 발전이 어려운 조직으로 생각되고 있다.

강유겸전, 덕능겸비. 그 이중성의 세계가 전통 한국, 현대 고유의 우리 세계라 말할 수 있다. 문제는 그 「도를 넘는 이중성」의 세계다. 왜 그러할까. 왜 우리는 그 「도를 넘는 이중성」의 세계일까. 흔히들 주장대로 「秋霜烈日」과도 같은 심한 차이를 보이는 기후 때문일까. 아니면 흔히 주장하는 대로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 때문일까. 그러나 그 같은 기후의 차이는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같은 외세의 침략은 또 우리만 경험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지리적 조건과 역사적 경험은 다른 나라도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유독 우리는 왜 그 「도를 넘는 이중성」일까. 왜 그 「도를 넘는 이중성」의 리더와 리더십을 요구할까.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밖에서 본 서울대, 서울대인

강점 더욱 빛내 스스로 존재를 증명하라

鄭美景(소설가) : 金炳宗(81년 美大卒·모교 미대 학장)동문 부인

지난 몇 년간 교육문제가 거론되었다 하면 「서울대 개혁」이 망가진 한국 백년 대계의 화두로 떠오르곤 했다. 언어가 극단화되고 있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하기라도 하듯 대뜸 「서울대 망국론」에서부터 「서울대 폐지론」까지, 처방전에 적힌 건 거의 독극물 분위기다.

내가 서울대출신의 남자와 사는 것을 모르는 어떤 사람은, 친절하게도 서울대출신치고 인간성 좋은 놈 없다며 때늦은 인간 감별법을 진지하게 알려주기도 한다. 그리고 보니 어느새 서울대는 우리 사회의 모든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분야 병폐의 원흉이라도 된 듯, 손가락질과 질시의 중심에 서 있는 모양이 돼 버렸다. 대세에 휩쓸리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국민성 탓인지 이제는 냉정한 분석이나 대안도 없이 서울대만 없어야, 이 나라의 수준이 적어도 한 단계는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는 이상한 신앙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는 과연 나라를 망치는 인간들의 집단인가. 서울대는 없어져야만 할 악한 존재인가. 혹은 이 모든 소란과 우

려가 우리 사회 최고의 엘리트집단에 대한 애정 어린 질책의 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까.

입시생을 가진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 서울대생이 된다는 건 실력과 천운을 겸비해야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도 주위를 둘러보면 서울대출신의 지인들이 꽤 많다. 서울대인이라는 큰 집합 속에 사이 좋게 묶을 수 있는 그들이지만 한사람 한사람의 면면을 살펴보면 과연 이들을 서울대인이라는 한 집합으로 묶어버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에 간단히 대답하기는 쉽지 않다.



내가 대학을 다닐 때 우리끼리 서울대 학생의 외적인 이미지를 간단히 표현할 때 「쫄새빠」라는 은어를 쓰곤 했다. 그건 대체로 검은색의 도수 높은 뿔테안경을 쓰고 다니는 그들의 외모가 쫄새망고 새까맣고 뻘뻘한, 그야말로 볼품 없음을 빗대서 하는 말이었다.

요즘 서울대를 가보면 격세지감이란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싶다. 두피에 피를 보면서까지 탈색과 염색을 반복해서 만든 은빛 헤어컬러나 찢어진 청바지도 더 이상 시선을 끌지 못하고 여학생들은 성을 구분하기 어려웠던 선배들과는 달리 외면적인 아름다움이나 치장에도 꽤나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외모의 다양함만큼이나 그들의 내면은 더욱 지독한 개성들로 눈부시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말이 있듯 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똑같은 한사람을 두고 사람들은 제각각 다른 면을 본다. 누구는 그의 서글픈 눈빛을, 긴 팔다리를, 자잘한 주름으로 기억되는 웃음을, 혹은 돈을, 힘을, 냉혹함을 읽어낸다. 그러니 서울

대라는 거대한 집단에 대해서는 어떻게든가, 지독한 이기주의, 모래알가죽이라 불리울 만큼의 개인주의, 지나친 우울감 등등, 대체로 인간은 남의 단점에 더 눈이 밝으니까.

나는 그들에게서 다른 걸 읽고 싶다. 다른 면을 보고 싶고 기대하고 싶다.

내가 보는 서울대인들은 대개 지독한 나르시시스트들이다. 자, 서울대인에게 나르시시즘을 빼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 오만함과 자신감을 빼버리고 나면 남은 흠담처럼 무너져 내려버릴 당신들에게 그러니 그걸 차라리 끝까지 지키라고 말하고 싶다. 어떤 의미에서의 초인이 되라고 얘기해주고 싶다.

스스로가 스타라고 생각한다면, 분야의 지존이라고 생각한다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에 합당한 아우라를 갖추어라. 욕먹는 게 두려워 하향 평준화할 것이 아니라, 지적 받는 단점에 주눅들 것이 아니라 강점을 더욱 빛냄으로서 스스로의 아우라를 획득하라고 말하고 싶다. 어떤 분야에서든 당신의 의견이 파이널 디시즌이 되도록,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벤자민 프랭클린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우리를 가르친다고 했다. 서울대는 앞으로도 동네북처럼 자주, 그리고 아프게 매를 맞을 때가 많을 것이다. 매는 아픈 거지만 우리를 가르쳐줄 것이고 그런 아픔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쓸쓸함보다는 행복한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

힘내라, 서울대여.

박 성 희 문화상책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본보 논설위원)

「천사와 악녀, 왕자, 강패」만 등장시키면 틀림없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TV 드라마엔 이런 공식이 생긴 듯합니다. 트렌디 드라마라는 이름 아래 똑같은 구도의 연속극을 계속 내보내니까요. 처음엔 천사와 악녀, 왕자의 삼각관계로 시작하더니 최근엔 그것만론 극적인 효과가 떨어지는지 강패를 보태고 거기에 「출생의 비밀」까지 포개 넣고 있습니다.

SBS 「토마토」(1999), MBC 「이브의 모든 것」(2000), SBS 「수호천사」(2001)에서 천사와 악녀의 대결구도를 보여주던 드라마는 올해 들어 SBS 「유리구두」와 「라이벌」로 이어지면서 강패와 출생의 비밀이라는 또 다른 요소를 삽입합니다.

TV연속극이라는 게 재미와 아슬아슬함을 무기로 시청률을 올리고자 하는 만큼 유행공식을 만들어 대입시키는 것 자체를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 공식에 나타나는 여성상이 너무

영종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싶은 것이지요.

게다가 이들 드라마는 다양한 직업군에서 각기 제자리를 찾아가는, 이른바 「커리어우먼 성공담」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들 드라마의 주인공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자신의 분야를 용감썩썩하게 개척하는, 건강한 커리어우먼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니다. 「일과 사랑을 함께 쟁취하는 새로운 여성상을 그리겠다」는 제작의도와는 거꾸로 이들 드라마는 한결같이 「자아 실현 욕구가 강한 여성은 악녀고, 악녀는 어떤 남자의 사랑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모든 걸 잃는다」고 주장합니다.

천사와 악녀 & 왕자와 강패

뿐인가요. 여주인공은 너무 뻔한 악녀의 술수에 거들거들 넘어가고(여자는 그저 열혈해야 한다는 걸 입증하려는 듯이), 그럼으로써 남자의 동정을 자아내고, 그 결과 사랑과 성공(왕자의 사랑을 얻는 게 곧 성공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을 함께 얻어내는 승리가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자는 그저 예쁘고 착하기만 하면 남자의 사랑만 얻고, 남자의 사랑만 얻으면 그 직업에 도무지 소양이 없어도 발탁돼 요직을 맡고(이브의 모든 것), 취직이라고 해놓곤 결핍하면 결근과 지각을 일삼아도 능력을 인정받고(유리구두), 갖가지 핑계로 번번이 약속을 어겨도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지는(라이벌) 것일까요?

그렇다면 얼마 전 신문 사회면을 장식한 「캠퍼스, 왕언니 득세」라는 제목의 기사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기사의 내용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던 여성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원 진학이나 고시 유학 공부 등을 위해 학교로 되돌아와 학과 사무실이나 동아리방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사엔 여자졸업생들이 왜 직장을 그만두는 지 구체적인 이유는 없이 그저 「만족할 수 없어서」 정도로 돼 있었습니다. 「만족할 수 없는」 까닭은 여러 가지 일 것입니다. 학교와는 달리 냉정하기만 한 직장생활에 쉽게 적응하기 어려웠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온갖 불평등이 존재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어려웠거나, 그

그 결과 남보다 빨리 승진할 수도 있고.

그러나 「자리란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어도 지키는 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몫이다」 또는 「왕자를 잡으면 「마님」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에서의 성공까지 보장되는 건 아니다」라고 한다면 「너무 뭘 모르는 소리」에 불과한가요.

드라마는 물론 허구입니다. 당연히 내용도 조작된 것이고 그러니 현실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트렌디 드라마는 스토리를 보는 게 아니라 등장 탤런트의 인물을 보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여성, 그것도 젊은 여성을 주시청자로 삼는 트렌디 드라마가 「여자는 예쁘고 착하면 된다. 쓸데없이 강한 자아나 높은 성취욕구를 지니면 곤란하다. 여자의 운명은 남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강조하는 건 씁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내의 TV드라마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 자체가 「여성에 대한 보이지 않는 천장」이 너무 두꺼운 현실의 반영 내지 그에 따른 여성들의 변명과 자위(여성이 직장생활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도태돼도 그건 왕자를 만나지 못해서라는)라는 「알송달송한」 주장도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저는 분노도 아니고, 악녀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천사도 아닌 보통여자, 남자와 함께 살아가긴 하지만 일방적으로 사랑 받고 도움 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의논하고 지켜봐주고 그럼으로써 시간을 두고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커리어우먼의 모습을 우리 대중매체에서 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보통남자들도 「왕자도 강패도 못되는 보통남자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야말로 취직해보니 전혀 적성에 맞지 않았거나 등등.

그야말로 상황이 나빠서일 수도 있고, 현실 인식이 약한 때문일 수도 있고, 남자와는 달리 「벌어먹고 살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덜해서일 수도 있습니다(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분명한 건 직장생활이라는 게 드라마에서처럼 그렇게 녹록한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회란 어쩌다 한번 주어질 수는 있어도 놓치면 다시는 잡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는 개인의 변명이나 핑계를 일일이 감안해 다시 기회를 줄만큼 너그럽지 않습니다. 물론 「뻥」이 있으면 없는 것보다야 한결 낫겠지요. 똑같이 입사해도 좀더 좋은 부서에 배치 받고, 고생은 덜하고 생색은 나는 일을 맡을 수도 있고

기금장학금 전달식

3명에게 3백79만1천원 지급

재단법인 관악회 산하 각 기금장학회는 지난 8월 21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2학년도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치과대학 불교학생회 출신 동문들로 구성된 齒佛會(회장 李在一)는 「齒佛會 기금장학금」으로 모교 柳寅哲(83년 齒大卒) 교수가 대리로 참석한 가운데 치의학과 2년 曁在亨군에게 1백

만원을 지급했으며, 본회 李世震(73년 法大卒)사무총장이 설립한 「李世震 기금장학금」으로 법학부 4년 朴正賢군에게 1백 12만3천원을 전달했다.

또 李元珪(63년 農大卒·前산림청 임업연구원)동문이 설립한 「李元珪 기금장학금」으로 金鍾讚(미생물학과 4년)군에게 등록금 전액 1백66만8천원을 지급했다.

관악회 金秉順이사

분당병원 후원금 1천만원 출연



으로 남기 丁仁一과 曁在亨군을 전달했다.

또 金동문의 아들 李志鎬(83년 醫大卒·서울시립 보라매병원 정형외과 과장)동문 명의로 8월 말에 1천만원을 추가로 출연키

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종근당 李章漢(37기 AMP)회장이 분당 모교병원 건립기금으로 3천만원을 전달했다.



부산지부 관악산우회 제27차 정기산행 다녀와

부산지부동창회 관악산우회(회장 金鍾旭)는 지난 8월 18일 양산 통도사 자장우굴에서 동문 및 동문 가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7차 정기산행

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더운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같이 많은 동문들이 참석했으며, 신입회원 소개와 함께 가을에 열릴 특별산행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비가 온 뒤의 등반이었기 때문에 길은 미끄러웠으나 동문들

모두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해 점심 식사와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산우회의 정기산행은 매월 셋째주 일요일 정기적으로 부산지부 동문들이 갖는 행사로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행사 중에 하나이다.



상과대학동창회(회장 高炳佑)는 지난 8월 28일 한국인론재단 매화홀에서 安台鎬(48년卒)·金種淳(52년卒)·沈昞求(53년卒)·韓英國(54년卒)·金斗璜(56

년卒)동문, 모교 金仁俊사회과학대학장, 尹錫喆·柳根寬교수 등을 비롯해 재학생 및 동문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상대를 졸업한 모교 鄭雲燦총장도 서울상대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다」며 「여러분들도 30에 뜻을 세우고, 40에는 유혹에 빠지지 말고, 50의 나이에 선배들처럼 대학총장, 장관, 기업의 CEO 등이 되어 이 나라를 훌륭히 이끌어달라」고 말했다.

모교 李之舜경제학부장은 격려사에서 「상과대학이 지금의 사회과학대학 및 경영대학으로 나뉘어졌지만, 다같이 서울상대 출신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서로 친목교류를 통해 더욱 우의를 돈독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수여식에서 경제학부 2학년 金鎬然·南時勳·尹賢錫·林相圭·趙康哲군, 3학년 許恩楨양, 金元東·申秀泳·尹藝鑽·李英錄군, 4학년 朴智元·吳知倫·丁炫朱양, 金容煥·朴永秀군과 경영학과 2학년 張善英양, 金健太·金韓求·朴海信·沈桐寬군, 3학년 徐孝周양, 金正洙·金周潤·金炯煜·李宗昊군, 4학년 朴貞·李知恩양, 金相亨·金厚成·鄭明奎군 등 30명이 등록금 전액 총 3천6백20만8천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농업생명과학대학

「상록인대賞」 선정위 결성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회장 尹勤煥)는 지난 8월 12일 교대역 소재 「재원」 한식집에서 「자랑스러운 상록인대賞」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제정된 「자랑스러운 상록인대賞」의 선정위원장에 朴正潤(60년卒)동문을 선출했으며, 위원에 金康植(56년卒)·李弘祐(56년卒)·金榮鎭(57년卒)·柳根學(60년卒)·沈載益(63년卒)·李銀鍾(63년卒)·李來秀(64년卒)·李相暎(69년卒)동문을 선임했다.

또 최종 후보추천 공고 및 추천서 양식을 승인했으며, 농업 관련 기업·지방지부·각 학과동창회·회장단으로부터 후보추천을 받아 수상자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접수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03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 전화: 031-290-2106)

약학대학

재학생에게 등록금 지원

약학대학동창회(회장 李禮植)는 지난 8월 20일 모교 관악캠퍼스 약대 학장실에서 2002년 2학기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李회장은 모교 재학생 배라영(제약학과 4년)·박현아(약학과 3년)·남지나(기초과정 1년)·이주원(기초과정 1년)·김신희(기초과정 1년)양에게 총 2백50만원의 장학금을 전했다.

또 뉴욕 약대동창회(회장 成耆魯)에서 보내온 지원금으로 이날 尹延玉동문이 최남선(약학과 4년)군에게 2백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한편 오는 9월 27일 오전 11시 30분 인천그랜드CC에서 동창회 전·현직 임원, 모교 교수 등을 초청해 친목 골프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表)

제5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공고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여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비동문) 또는 단체를 찾습니다.

아래 내용으로 제5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 상 부 문	
참여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여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협력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비동문 개인 또는 단체
영광상	사회 공익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동창회의 금지와 명예를 드높인 동문 개인 또는 단체

1. 시상 부문: 동창회 지표인 「참여」「협력」「영광」에 따라 세 부문으로 구분
2. 구비 서류: 추천서, 파추천자의 공적사항
3. 추천서 접수:
 - 1) 접수마감: 2003년 1월 31일
 - 2) 접 수 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 (전화: 702-2233·팩스: 703-0755)
4. 시상 시기: 서울대총동창회 정기총회 (2003년 3월 21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 林 光 洙 · 관악대상 운영위원장 孫 一 根

동 정

수 상

▲朴宇熙(58년 商大卒·모교 경제학부 명예교수)=최근 ABI (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가 수여하는 「미국 명예의 메달(the American Medal of Honor)」 수상자로 선정됨.

▲許鎭奎(63년 工大卒·일진그룹 회장·本會 副會長)=지난 8월 21일 한국 경제신문과 한국 무역학회가 공동 주최한 「2002 무역학자 전국대회」에서 무역인 대상을 수상함.

▲鄭城鎭(63년 法大卒·국민대 총장)=지난 8월 1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대한변호사 협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제33회 한국법률문화상을 받음.

이동·선임

▲安秉萬(64년 法大卒·한국의대 교수)=지난 8월 23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한국의국어대 제7대 총장 취임 축하연을 가짐.

▲李成俊(69년 文理大卒·前한국일보 부사장·本報 論說委員)=지난 8월 21일 언론중재위원회 제16대 대선 선

거기사심의위원에 선임됨.

▲楊興準(69년 工大卒·LGC생명과학사업본부장)=지난 8월 1일 LG생명과학 창립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金一燮(69년 商大卒·이화여대 경영부총장·冠岳會理事)=지난 8월 8일 벤처기업 협회 벤처윤리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위촉됨.

▲金基道(72년 新大院入·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최근 2002년 한국방송대상 심사위원회에 위촉돼 지난 8월 5~10일 개인 및 작품상부문 3백여 편의 작품을 심사함.

▲梁鎭在(74년 工大卒·모교 환경계획학과 교수)=지난 7월 31일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에 임명됨.

▲鄭夢準(75년 商大卒·대한축구협회장·국회의원·本會 副會長)=지난 8월 14일 말레이시아 팔라룸푸르 매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총회에서 AFC가 선출하는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에 재선임됨. 이로써 지난 94년 첫 FIFA 부회장에 당선된 후 세 번째 연임으로 2006년까지 부회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金東奎(78년 醫大卒·모교 신경의과학교실 교수)=최근 미국 신경외과학회 학술지인 「NEUROSURGERY」의 International liaison and advisory panel 위원에 선정됨.

행사·출간

▲李應百(49년 師大卒·모교 명예교수·重峯趙憲선생기념사업회장)=지난 7월 26~28일 白川 趙氏장학회와 공동으로

김포 청소년수련원에서 제2회 청소년 인성교육 수련을 실시함.

▲姜仁淑(56년 文理大卒·건국대 명예교수·寧仁文學館長)=지난 9월 7일부터 10월 20일까지 평창동 영인문학관에서 「창작의 뒤안길 : 문인육필·애장품전」을 개최함.

▲俞東濬(60년 農大卒·한국단미사료협회장·晶月 羅憲錫기념사업회장·수원지부동창회장)=지난 8월 26~31일 우리

민족서로돕기운동의 일환으로 대북농업지원 협의를 위해 평양을 방문함.

▲李基俊(61년 工大卒·모교 응용화학부 교수·한국공학한림원 회장)=지난 8월 25~31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세계 공학한림원 평의회 심포지엄과 총회에 참석함.

▲李相禹(61년 法大卒·서강대 교수·신아세아질서연구회장·本會 副會長)=지난 9월 5일 서울클럽지리산룸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으며 조선일보 金宗來(75년 文理大卒)편집부국장을 초청, 「21세기는 유목민 세기」라는 주제로 제6차 교양강좌를 실시함.

▲韓和甲(63년 文理大卒·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위원)=지난 8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중앙홀에서 「화합으로 으뭉이 된 남자」 출판기념회를 개최함.

▲卞柱仙(64년 師大卒·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한국아동단체협의회장·本會 副會長)=최근 한국아동의 상황을 점검하고 체계화하여, 정책수립의 귀한 자료로 활용될 「한국아동상황보고서 2001」을 발간함.

▲李玉姬(64년 音大卒·서울튜티앙상블 이사장)=지난 8월 26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서울튜티앙상블 제27회 정기연주회 겸 「청소년을 위한 문화환경콘서트」를 개최함.

▲金明子(66년 文理大卒·환경

편집주간석

특지 및 기금장학회 제도는

선배에게는 존경을,

후배에게는 신뢰를 일구는 場이 됩니다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이 총동창회는 물론, 각 단과대학(원) 동창회에서 있었습니다. 선배의 후배에 대한 배품과 나눔이 더 없이 훈훈한 자리였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면서 커가듯이, 후배 역시 선배의 등을 보며 살아갑니다. 선배가 말만이 아닌 실천으로 후배사랑을 키워나갈 때 존경을 얻게 되고, 후배 역시 예의바른 품성과 성실한 노력을 보여줄 때 신뢰를 얻게 되겠지요.

「산다는 것은 좋은 사람 만나 좋은 생각과 실천을 함께 나누는 것」-2002년도 재단법인 관악회와 특지 및 기금장학회 장학금수여식에서의 斷想입니다.

국제변호사 金容學동문

「펠드먼 웨인스테인」파트너



최근 재미 변호사 金容學(75년 法大卒)동문(사진)이 뉴욕 펠드먼 웨인스테인 법률회사 파트너에 선임됐다.

지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재미동창회 사무총장으로

봉사한 金동문은 84년 도미, 뉴욕 예시바대학 벤자민 카도조 법과대학원을 졸업한 후 유엔 과학기술개발센터, 램&러치·리드&프리스트 법률회사를 거쳐 뉴욕 월가의 와서만 슈나이더 램&리드 법률회사의 파트너로 봉직해왔다.

전문분야는 국제통상법, 상사계약법 및 무역협상 등으로 재미한국기업협회(KOCHAM) 고문 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다. (연락처 : 212-931-8702)



부 장관)=지난 9월 2~4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 세계 정상회의(WSSD)에 참석, 각국 정상 및 환경장관들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함.

▲李富植(66년 文理大卒·교통개발연구원장)=지난 8월 23일 건설공제회관에서 개원 15주년을 맞아 「수도권 교통대책 : 평가와 당면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가짐.

▲崔洋夫(68년 農大卒·농식품신유통연구회장)=지난 7월 26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 교수회관 컨벤션 센터에서 「산지 유통 전문조직의 수확후 관리평가와 발전과제」라는 주제로 신유통 심포지엄을 개최함.

▲張萬基(68년 經大院卒·인간개발연구원 회장)=지난 8월 22일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삼보컴퓨터 李龍兌(57년 文理大卒·本會 副會長)회장을

초청, 「선진국 마음먹기에 달렸다(e-Korea에 대한 구상)」라는 주제로 제1262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를 개최함.

▲李相驥(69년 工大卒·에너지경제연구원장)=지난 8월 21일 연구원 대강당에서 국내 에너지 분야 CEO들을 대상으로 16주간의 일정으로 「제1기 에너지 고위 경영자 교실」을 개강함.

▲金仁圭(73년 文理大卒·KBS 뉴미디어본부장·本報 論說委員)=지난 8월 2일 일본 도쿄에서 한국 어 전용 위성채널 KNTV와 약정서를 체결하고, KBS 국제위성방송인 「TV KOREA」 방송을 본격 개시함.

▲金貳煥(75년 新大院卒·아남반도체 사장·한국광고주협회 부회장)=지난 8월 21일 대전대에서 보직교직원을 대상으로 「21세기 대학경쟁력과 대학PR전략」을 주제로 강의함.

▲朴明潤(76년 保大院卒·한국

「아시아 차세대 리더」

康錦實동문 등 10명 선정

지난 8월 22일 세계경제포럼(WEF)이 올해 처음으로 선정하는 「아시아 차세대 지도자(Asian Young Leaders)」의 한국대표로 康錦實변호사 등 동문 10명이 결정됐다.

92년 이후 매년 1백명의 「세계 차세대 지도자」를 선정해온 세계경제포럼은 올해부터 한국·중국·일본 등 3개국과 동남아시아에서 각각 「아시아 차세대 지도자」를 별도로 뽑기로 하고 그 중 첫 번째로 한국대표를 공개했다. 「아시아 차세대 지도자」한

국대표로 선정된 동문은 △康錦實(79년 法大卒)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趙俊鎬(82년 社會大卒)LG전자 부사장 △鄭鐵(83년 自然大卒)삼보컴퓨터 고문 △卞大圭(83년 工大卒)휴맥스 사장 △李星圭(84년 經營大卒)국민은행 부행장 △金映基(84년 工大卒)삼성전자 상무 △安哲秀(86년 醫大卒)안철수연구소 대표 △李相輝(86년 工大卒)한국과학기술원 교수 △崔昌源(89년 社會大卒)SK글로벌 부사장 △金澤辰(89년 工大卒)엔씨소프트 사장 등이다.



과인트리클럽
총재·한국청소년
연구소 이사
장·冠岳會 理
事)=지난 8월
2~5일 경남
하동군 양포수련원에서 제37회
전국 대학생 하계수련회를 개최

함.



▲李珉柱(80년 美大卒·한국화
가·모교 강사)
=지난 7월 24
일부터 28일까
지 스페인 마베
야에서 개최된
국제 아트페어

8·8 국회의원 재보선

전국 13개 지역서 7명 당선

지난 8월 8일 전국 13개 지역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동문 7명이 당선됐다.

서울에서 종로 박 振(78년 法大卒·김&장법률사무소 고문)동문, 금천 李佑幸(62년 獸醫大卒·獸醫大同窓會長)동문, 영등포를 權寧世(81년 法大卒·법무법인 바른법률 변호사)동문이 승리했으며,

인천 서·강화를 李敬在(64년 文理大卒·前대통령 공보수석 비서관)동문, 광주 북갑 金相賢(27기 ACAD·국가정책 과정동창회장)동문, 경기 안성 李海龜(39기 ACAD·前내무부 장관)동문, 전북 군산 康奉均(69년 商大卒·前한국개발연구원장)동문이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방송위 선거방송심의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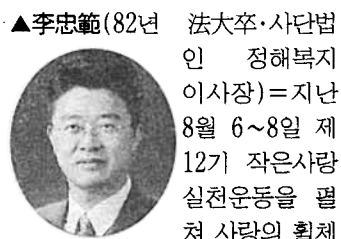
劉載天동문 등 6명 위촉

방송위원회(위원장 姜大仁·72년 新大院卒)는 오는 12월 19일로 예정된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8월 21일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劉載天(61년 文理大卒)교수 등 동문 6명을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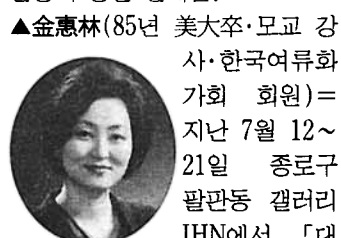
이날 위촉된 위원은 다음과

같다. 郭東憲(65년 法大卒)변호사, 조선일보 李永德(66년 文理大卒)논설위원, 한양대 언론광고사화학부 李敏雄(68년 文理大卒)교수,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申澈永(78년 工大卒)사무총장,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姜南俊(78년 師大卒)교수.

(MAC21)에 작품을 출품, 전문 컬렉터 및 미술계 인사들의 호평을 받음.



▲李忠範(82년 法大卒·사단법인 정해복지 이사장)=지난 8월 6~8일 제 12기 작은사랑 실천운동을 펼쳐 사랑의 휠체어 기금마련 캠페인, 재활원 일일봉사 등을 전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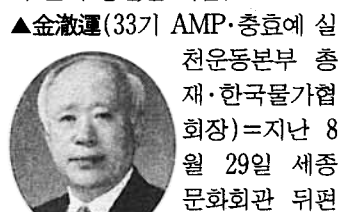


▲金惠林(85년 美大卒·모교 강사·한국여류화가회 회원)=

지난 7월 12~21일 종로구 팔판동 갤러리 IHN에서 「대지」를 주제로 개인전을 가짐.

▲권호정(90년 音大卒·천안대학교수)=지난 9월 6일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쇼팽, 슈만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를 가짐.

▲민병희(90년 音大卒·협성대 강사·바이올리니스트)=지난 9월 5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유유진(93년 音大卒·강남대 강사)동문 등과 함께 「비스 현악 4중주단」의 네 번째 공연을 가짐.



▲金澈運(33기 AMP·총효에 실천운동본부 총재·한국물가협회 회장)=지난 8월 29일 세종문화회관 뒤편 은행나무부페

올해의 건축가 承孝相작품전

국립현대미술관서 10월 27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이 선정한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한 承孝相(75년 工大卒·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대표)동문(사진)이 지난 8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Urban Void」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갖는다. 承孝相은 한국 현대건축을 대표하는 중견건축가 중 한사람으로 최근 미국 건축가협회 명예회원에 추대된 바 있다. 故 金壽根(50년 工大入·前

空間 대표) 문하에서 건축을 시작한 承孝相은 「빈자의 미학(Beauty of Poverty)」이라는 건축적 화두를 통해 자신만의 독자적인 건축세계를 발표해 왔다.

그는 건축의 공간적 배경을 이루는 주변의 역사적, 사회적 환경과 그 속에서 거주하는 사람의 삶의 가치가 공유되는 새로운 개념의 건축을 제시한다. 그는 건축이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承孝相은 「수출당」(1993), 「대학로 문화공간」(1997), 「수백당」(1999), 「웰컴 시티」(1999), 「과주출판단지」(2000) 등의 대표적인 건축작품을 통해 건축가협회상, 한국건축문화대상, 김수근 문화상 등을 수상했다.

에서 총효에 실천운동본부 제 12차 임시총회 및 제15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함. 또 9월 2~5일 중국을 방문, 광주시 및 백운구청과 건축자재 백화점 개설 등에 대한 업무제휴를 맺음.

▲崔烈坤(6기 ACAD·한국교육



삼락회 총연합회장)=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현직 교사들에게 수여하는 「한국 師道 대상」을 제정, 오는 11월 11일 첫 시상식을 갖는다.

▲朴尙東(2기 EPHPM·동서한방병원장)=지난 7월 25일 경희대에서 열린 경희대·경희의료원 공동주최의 국제심

포지엄에 참석, 「한·양방의 협진 실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함. 또 8월 10일 강서구 등촌7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방 무료진료를 실시함.

(정리=安興燮기자)

新刊

■나들이

—李應百 著



蘭臺 李應百(49년 師大卒·모교 명예교수·한국어문화 이사장·전통문화협회의 회장)동문이 두 번째 시조집을 출간했다.

생활 경험과 염원을 담은 시조를 비롯해 先人들의 한시를 번역한 글, 시조로 인연을 맺은 이에 대한 弔辭와 추모의 글 등이 담겨 있다. <동경刊·값12,000원>

■오늘보다 더 진한 어둠이 오더라도

—曹祥鉉 著

바리톤 曹祥鉉(51년 音大卒·한국슈베르트협회 이사장)동문이 네 번째 시집을 발표했다.

올해로 부인과 부산 피난 시



에 결혼한 지 50년이 되어 금혼식을 맞이 하면서 그동안 정리한 1백여 편의 시를 모았다. <상음刊·값5,000원>

■아이들을 위한 모차르트 이펙트

—曹洙哲 著



모교 의대 소아·청소년 정신과학교실 曹洙哲(73년 醫大卒)교수가 음악과 인간의 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책을 펴냈다.

태아기부터 11세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아동의 음악과의 관계를 쉽게 풀어 나가면서 모차르트 음악의 풍부하고도 강력한 표현력, 단순함, 명료함, 선율의 아름다움이 아동들의 발달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과학적으로 제시했다. <황금가지刊·값15,000원>

■世界 麻將

—金太業 著



인공지능 마장게임을 개발해온 金太業(72년 工大卒·탱크소프트 대표·세계마장협회 공동대표)동문이 정통 麻雀의 바이블을 펴냈다.

초보자라도 쉽게 마장을 배울 수 있도록 많은 예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수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수학적인 수읽기 방법도 제시돼 있다. <중앙M&B刊·값12,000원>

■심장학의학

—李明哲·鄭俊基 編著



최근 모교 의대 학과실 李明哲(73년 醫大卒)·鄭俊基(77년 醫大卒)교수가 편저로 「심장학의학」이라는 전문서적을 발간했다.

이 책은 심장학의학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가장 흔히 쓰이는 심근관류 SPECT 이외에도 심근 PET, 심장혈액풀스캔, 일회통과스캔 등을 기술했으며 관상동맥질환, 심근경색증에서의 이용에 중점을 두어 설명했다. <고려의학刊>

公演

■池恩惠바이올린독주회

—9월 29일 OPUS Hall



바이올리니스트 池恩惠(91년 音大卒)동문이 「스트링엔보우가 추천하는 영 스트링 플레이어 시리즈 2002」의 일환으로 독주회를 갖는다.

나사렛대, 목원대에 출강하고 있는 池恩惠는 이날 바르토크, 힌데미트, 스트라빈스키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음연 3436-5222>



華 燭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촉을 밝힐 동문을 소개한다.

- * 오상우(92년 法大卒)군·노문경 양=9월 28일 17시.
- * 손경완(99년 大學院卒)군·송은경(97년 看護大卒)양=9월 29일 12시 30분.
- * 김신우(95년 社會大卒)군·강선아 양=9월 29일 14시.
- * 박수찬(96년 自然大卒)군·이혜영(96년 看護大卒)=10월 3일 14시.
- * 윤동환(97년 農生大卒)군·최희경(00년 農生大卒)=10월 5일 14시.

이 사

회비납부 출선하여 참여하는 동문되자

〈理事: 2002년 5월 8일~6월 3일·一般: 2002년 5월 3일~5월 31일〉

◇人文大學

▲곽성문76 ▲배준동83 ▲정동영79
▲정세혁78 ▲조홍욱77 ▲홍문수80

◇社會科學大學

▲김민석89 ▲박재원77 ▲박종국77
▲박종운85 ▲이호웅80 ▲장경찬78
▲정두언80 ▲조현래77 ▲최형근76
▲홍석규79 ▲황주철77

◇自然科學大學

▲구본준78 ▲문화록76 ▲양명룡78
▲이 건77 ▲이장우76 ▲이창복76

◇家政大學

▲김구자64 ▲유영주61 ▲유효선74
▲윤승금70 ▲이기영70 ▲임정빈61
▲정하진61 ▲조순욱62 ▲조은자65

◇看護大學

▲박문희63 ▲박영숙69 ▲양은숙54
▲유숙자63 ▲윤순녕73 ▲이상미78
▲이은옥63 ▲이정자69 ▲허 영74

◇經營大學

▲권영수79 ▲김도련78 ▲김두진78
▲박명호76 ▲송요신80 ▲이종욱76
▲조태현79

◇工科大學

▲강 관64 ▲강기세60 ▲강명순46
▲강부건69 ▲강승무69 ▲강영국63
▲강창오71 ▲강행연65 ▲강호익64
▲강효순68 ▲고병삼55 ▲고문찬73
▲고석구75 ▲고영길69 ▲고영주71
▲고재웅66 ▲곽삼영55 ▲구영창52
▲구자영58 ▲권문식77 ▲권수웅62
▲김 철56 ▲김경태69 ▲김광욱61
▲김광우65 ▲김광웅66 ▲김국진70
▲김권식70 ▲김기동74 ▲김동규60
▲김동명73 ▲김동진73 ▲김동호76
▲김문경71 ▲김문순66 ▲김반석76
▲김병길63 ▲김병준64 ▲김상식64
▲김상연51 ▲김석철66 ▲김선구64
▲김성년72 ▲김승평68 ▲김수광63
▲김신원72 ▲김억조74 ▲김영윤66
▲김영철63 ▲김영희53 ▲김용석59
▲김은영61 ▲김정근65 ▲김정선74
▲김제영76 ▲김종욱65 ▲김종은71
▲김종의65 ▲김종찬58 ▲김종찬71
▲김주호58 ▲김주홍51 ▲김주환61
▲김진만58 ▲김창세65 ▲김창수63
▲김창익60 ▲김채원67 ▲김충세68
▲김태섭57 ▲김학재69 ▲김한영76
▲김현진70 ▲김형진55 ▲김화용72
▲김희재60 ▲류시웅68 ▲마석일61
▲문수길73 ▲문정석78 ▲문화성57
▲민경식55 ▲민계식65 ▲박경배74
▲박덕철61 ▲박동서65 ▲박민태72
▲박병화71 ▲박상규68 ▲박상률77
▲박상훈77 ▲박성현68 ▲박순자54
▲박신구68 ▲박영무80 ▲박영희61
▲박용승58 ▲박용준56 ▲박용택70
▲박우규75 ▲박우병56 ▲박응대67
▲박주천65 ▲박준병56 ▲박준창49
▲박찬민63 ▲박찬섭60 ▲박찬정77
▲박창순68 ▲박창용71 ▲박창호70
▲박태원77 ▲박항태72 ▲배영호70
▲백성기60 ▲백이호67 ▲부대진63
▲서립규61 ▲서상기70 ▲서석천57
▲서일홍77 ▲서정욱57 ▲서정훈55▲선석문72 ▲선우정호66 ▲설영화69
▲성기초55 ▲성낙정54 ▲성준용71
▲손동준66 ▲손민영71 ▲송원근74
▲송지오70 ▲송진환48 ▲송호식73
▲승효상75 ▲신갑성67 ▲신동수56
▲신승교65 ▲신차영68 ▲신현국68
▲신현주66 ▲신훈철51 ▲심명규57
▲심옥진65 ▲심윤식72 ▲심일보77
▲심해경58 ▲안경수74 ▲안사은61
▲안수길57 ▲안철호52 ▲양재현69
▲양홍준69 ▲어 당72 ▲어성준73
▲여인희63 ▲오계환68 ▲오명환65
▲오병욱61 ▲오성환63 ▲오승환71
▲오옥수72 ▲오원석75 ▲오응현71
▲오창석50 ▲우남용63 ▲원정수57
▲원종환56 ▲원형재75 ▲유광준74
▲유기형71 ▲유병철47 ▲유승빈71
▲유인영56 ▲유대성64 ▲윤병양56
▲윤석열79 ▲윤신박63 ▲윤여익71
▲윤우석67 ▲윤재석63 ▲윤정호74
▲윤충중64 ▲윤팔문57 ▲이 철72
▲이계수67 ▲이관수72 ▲이광노51
▲이광재58 ▲이광호70 ▲이교일66
▲이구택69 ▲이기준61 ▲이대락66
▲이동춘57 ▲이만철60 ▲이면우68
▲이명화77 ▲이병익68 ▲이병휘54
▲이상각73 ▲이상룡54 ▲이상주63
▲이상철71 ▲이상호77 ▲이서형68
▲이선계69 ▲이선우59 ▲이수일67
▲이순종58 ▲이승관71 ▲이승기76
▲이승일68 ▲이영재69 ▲이영호56
▲이영희61 ▲이용경64 ▲이용우69
▲이원국52 ▲이원복59 ▲이원형74
▲이윤우69 ▲이재욱65 ▲이재환70
▲이정남62 ▲이정목56 ▲이정인63
▲이종대63 ▲이종진59 ▲이준상71
▲이준식61 ▲이종재71 ▲이창갑50
▲이창건54 ▲이창우71 ▲이충웅58
▲이호정74 ▲이호현55 ▲이홍중71
▲이환범62 ▲임 회64 ▲임단직60
▲임병주56 ▲임승근67 ▲장기욱58
▲장명수56 ▲장삼진55 ▲장세창69
▲장준호80 ▲장학순50 ▲장희익72
▲전봉수68 ▲전삼백57 ▲정대환69
▲정병숙50 ▲정성현71 ▲정연세57
▲정연철57 ▲정영철65 ▲정옥희59
▲정조섭61 ▲정철수75 ▲정형수63
▲조남혁61 ▲조래승60 ▲조명호78
▲조병철65 ▲조선희56 ▲조성현75
▲조양래64 ▲조연재65 ▲조일제56
▲조재문49 ▲조정남67 ▲조정호69
▲조정희58 ▲조충희70 ▲조필제50
▲조현영57 ▲조효상70 ▲주종원57
▲지 순58 ▲진국봉68 ▲진상범69
▲진행섭70 ▲차정식69 ▲채호석53
▲전주훈68 ▲최관영65 ▲최대현56
▲최돈웅58 ▲최동훈75 ▲최승주60
▲최영식54 ▲최영택72 ▲최완철77
▲최용덕55 ▲최용일67 ▲최원갑60
▲최인규80 ▲최인재57 ▲최재철56
▲최정길56 ▲최정욱56 ▲최흥민56
▲추지석64 ▲편종근70 ▲하현성76
▲한기인71 ▲한대립64 ▲한상겸57
▲한상규79 ▲한상준67 ▲한수양71
▲한용호62 ▲한재소75 ▲함승호57
▲허영석73 ▲현희현59 ▲홍상복69
▲홍영희58 ▲홍의석87 ▲홍종민68
▲황계문71 ▲황이선66 ▲황창규76

◇農業生命科學大學

▲강영규57 ▲김규석67 ▲김기채67
▲김남용57 ▲김동암56 ▲김사일57
▲김상원56 ▲김성곤69 ▲김영섭69
▲김영일69 ▲김영준38 ▲김영철69
▲김일종73 ▲김택구70 ▲김훈동69
▲박대경57 ▲박재룡65 ▲박정수69
▲박진환52 ▲방형구71 ▲서병륜73
▲서정근65 ▲송재관56 ▲신평승73
▲신한풍63 ▲신희순76 ▲심완조61
▲안정국65 ▲안종운73 ▲오세승57
▲오세인59 ▲유원형74 ▲유회기49
▲윤영기70 ▲윤오섭52 ▲이돈구69
▲이무근64 ▲이병일63 ▲이상규59
▲이순욱74 ▲이영일71 ▲이재현50
▲이정식73 ▲이정영56 ▲이혜근71
▲임경순58 ▲장정수71 ▲장정식65
▲장후동63 ▲전용화51 ▲차성윤61
▲한정길70 ▲함종한70 ▲허문화54
▲홍성구72

◇文理科學大學

▲강두식51 ▲강만식55 ▲곽원호72
▲권오득68 ▲권혁조69 ▲김현익55
▲김건중70 ▲김경환68 ▲김규상57
▲김기주58 ▲김년태69 ▲김동진70
▲김두영64 ▲김두진69 ▲김민영71
▲김병일64 ▲김상근70 ▲김선희72
▲김성집58 ▲김성호61 ▲김수진61
▲김승국60 ▲김승익64 ▲김영석75
▲김영주75 ▲김영환71 ▲김용국59
▲김용언65 ▲김우현61 ▲김춘안70
▲김태홍66 ▲김희중67 ▲남광성65
▲남상진49 ▲남시욱58 ▲남영우72
▲노재봉57 ▲류종택61 ▲류지웅56
▲문명호64 ▲박 실63 ▲박맹호57
▲박순국63 ▲박영훈68 ▲박용안61
▲박용욱59 ▲박용우71 ▲박용환66
▲박운서63 ▲박종오60 ▲박창정73
▲박하진71 ▲박희주63 ▲박희준70
▲방효선55 ▲배길훈70 ▲서광석55
▲서명원46 ▲성희웅69 ▲손세일59
▲손제석56 ▲신동오68 ▲신동호57
▲신명범51 ▲신용하61 ▲신우식57
▲신현웅68 ▲심 혁71 ▲안택수66
▲양규모65 ▲염준걸65 ▲오병남63
▲유보일64 ▲유성희69 ▲유현준50
▲육보근61 ▲육세홍70 ▲윤명중57
▲윤상철61 ▲윤석현49 ▲윤영택60
▲윤옥영61 ▲이광웅63 ▲이광희63
▲이규원51 ▲이근무60 ▲이기원56
▲이기화63 ▲이남기55 ▲이대승71
▲이두호64 ▲이병상65 ▲이상현68
▲이성재63 ▲이승윤51 ▲이인재72
▲이정남55 ▲이종길64 ▲이종명73
▲이현구65 ▲인태오61 ▲임상원62
▲임석진56 ▲임정빈74 ▲장병우73
▲장성주71 ▲장정환63 ▲장중웅68
▲장하구46 ▲장조완69 ▲전종갑68
▲전중수56 ▲전희천72 ▲정문모64
▲정순원75 ▲정양모58 ▲정연하65
▲정진대61 ▲정춘택58 ▲정학성72
▲정효섭65 ▲조영길62 ▲최 환65
▲최병민75 ▲최서립70 ▲최종수56
▲최홍룡64 ▲표순승68 ▲하두봉56
▲하영식58 ▲한우석55 ▲한태길73
▲허운욱64 ▲홍두표61 ▲홍사덕68

◇美術大學

▲강은엽63 ▲김 태55 ▲김춘욱68
▲김현실70 ▲김형주70 ▲나성숙75▲박대순55 ▲서동희70 ▲성기점62
▲신완식77 ▲이종복66 ▲이종철63
▲조승환63 ▲조영철65 ▲최만린68
▲최종태58

◇法科大學

▲강명식55 ▲강신원76 ▲강용구59
▲강용현78 ▲강인현62 ▲강총석77
▲강해룡57 ▲강현중66 ▲고광석66
▲고광우58 ▲고왕석61 ▲고흥달72
▲공영규64 ▲구용완49 ▲구운회63
▲구자춘58 ▲구충서75 ▲권동렬63
▲권문구66 ▲권병일57 ▲권석진60
▲권영훈75 ▲권오윤60 ▲권혁제64
▲김 숙76 ▲김경태63 ▲김경한66
▲김권택67 ▲김근대67 ▲김기섭68
▲김기인62 ▲김길영55 ▲김능환75
▲김대권74 ▲김대환65 ▲김덕영64
▲김도연63 ▲김동연75 ▲김동원56
▲김명윤66 ▲김문환69 ▲김봉화74
▲김봉환60 ▲김봉환65 ▲김상준71
▲김상호76 ▲김석기68 ▲김석영55
▲김성길64 ▲김성룡64 ▲김성수65
▲김세훈58 ▲김승진62 ▲김시승69
▲김시영75 ▲김신태62 ▲김양일65
▲김영균59 ▲김영기70 ▲김영무64
▲김영수64 ▲김영수72 ▲김영술63
▲김영일65 ▲김영재62 ▲김영진72
▲김영철65 ▲김영훈68 ▲김영훈75
▲김완섭69 ▲김유후63 ▲김의재60
▲김의재62 ▲김익하64 ▲김인중60
▲김일권68 ▲김재구72 ▲김재기72
▲김재덕77 ▲김재진69 ▲김재철61
▲김재호55 ▲김정근64 ▲김정술70
▲김정후61 ▲김종대72 ▲김종삼69
▲김종일56 ▲김종환72 ▲김준섭69
▲김종양69 ▲김중웅64 ▲김진무64
▲김진영73 ▲김진우56 ▲김진호61
▲김창근61 ▲김창근65 ▲김창준58
▲김태경56 ▲김태근73 ▲김태조58
▲김태훈72 ▲김학원70 ▲김현채61
▲김형배55 ▲김홍규67 ▲김홍현71
▲김희선78 ▲김효종65 ▲김홍현49
▲김희근77 ▲나대진71 ▲나정욱64
▲노명준61 ▲노재성70 ▲류시열61
▲문영국69 ▲문영길69 ▲문익상62
▲문정두64 ▲문홍주40 ▲민병국63
▲박경구64 ▲박경순76 ▲박명석56
▲박무용68 ▲박부찬60 ▲박상기61
▲박선우64 ▲박영준68 ▲박용도61
▲박인수61 ▲박인호71 ▲박장우70
▲박재권73 ▲박정서61 ▲박종렬66
▲박종우62 ▲박종익68 ▲박준서64
▲박철근59 ▲박종근72 ▲박태웅64
▲박태준69 ▲박해성78 ▲박환일75
▲박휴상69 ▲반한수64 ▲방 현76
▲배무남65 ▲배상오59 ▲백창훈80
▲변규철62 ▲변동걸70 ▲변충근62
▲서광하80 ▲서돈양80 ▲서정석69
▲서대영74 ▲서형석59 ▲선우종원41
▲설동훈51 ▲성주형63 ▲성천경64
▲손지열69 ▲손진근64 ▲송광수71
▲송병대71 ▲송영식69 ▲송용식55
▲송윤재58 ▲송종의64 ▲송진훈65
▲신동환62 ▲신성철69 ▲신영무67
▲신오철59 ▲신원구73 ▲신원식61
▲신정철66 ▲신학근66 ▲신현무62
▲심규철80 ▲심삼명64 ▲심재돈76
▲심한준64 ▲안병수48 ▲안영욱77
▲안용득63 ▲안종택77 ▲양인석79▲양희종72 ▲어윤배58 ▲여동영64
▲여상규77 ▲오규원69 ▲오동섭69
▲오성환57 ▲오세빈72 ▲오세희62
▲우의형70 ▲우창록74 ▲유길수68
▲유원석75 ▲유인의65 ▲유재복77
▲유재웅63 ▲유종해54 ▲유홍종64
▲유희열63 ▲윤보욱70 ▲윤상일77
▲윤석정71 ▲윤일영56 ▲윤재승85
▲윤재열55 ▲윤진수77 ▲윤준근70
▲이 흥66 ▲이강환58 ▲이건방62
▲이건종76 ▲이광택75 ▲이국재76
▲이규오47 ▲이규장74 ▲이국로70
▲이대공64 ▲이덕모75 ▲이동춘63
▲이명재65 ▲이명희57 ▲이무룡65
▲이민재76 ▲이병석58 ▲이보환65
▲이석형77 ▲이선우65 ▲이선우67
▲이세창61 ▲이순배62 ▲이순복58
▲이승우79 ▲이신섭66 ▲이영대85
▲이영범63 ▲이영욱56 ▲이영재54
▲이영준61 ▲이용우65 ▲이원호65
▲이인표58 ▲이재식74 ▲이재영62
▲이재철77 ▲이재현74 ▲이재후62
▲이정락63 ▲이정빈60 ▲이종걸89
▲이종상58 ▲이종순61 ▲이종용65
▲이종일61 ▲이주성63 ▲이주홍74
▲이진세63 ▲이천수65 ▲이충범82
▲이태희64 ▲이한구61 ▲이해봉67
▲이현범76 ▲이형하78 ▲이희창57
▲임광수66 ▲임규운57 ▲임상순73
▲임승관74 ▲임인택63 ▲임종선61
▲임채홍56 ▲임태유64 ▲임홍빈56
▲임휘운67 ▲장 호71 ▲장준철71
▲장준호77 ▲장창호67 ▲전선기64
▲전수일62 ▲정구영62 ▲정극수59
▲정대훈76 ▲정도출72 ▲정명택64
▲정민수68 ▲정병석77 ▲정시영64
▲정연조59 ▲정재룡69 ▲정찬욱77
▲정대웅62 ▲정해운57 ▲정해창60
▲정휘위66 ▲조 언58 ▲조규향64
▲조남돈76 ▲조대현73 ▲조동원58
▲조상흥71 ▲조성일65 ▲조일웅63
▲조정식72 ▲조주순69 ▲진 영75
▲진병춘74 ▲진영배61 ▲채수철71
▲채재익61 ▲전정배76 ▲최광룡58
▲최상영61 ▲최상태64 ▲최세관58
▲최영광64 ▲최원현78 ▲최인기66
▲최재원77 ▲최재훈53 ▲하종선77
▲하창우73 ▲한경국61 ▲한광세64
▲한광수69 ▲한승희61 ▲한영석61
▲한운섭62 ▲한진유64 ▲함영업66
▲함정호57 ▲허 명72 ▲허 준59
▲허홍구69 ▲현종찬78 ▲현천욱76
▲현희남63 ▲호문혁72 ▲홍성계64
▲홍성우61 ▲홍성좌56 ▲홍이석75
▲홍진태56 ▲황길수65 ▲황병기59
▲황병인58 ▲황보중78 ▲황봉환77
▲황수길72 ▲황영선59 ▲황의만74
▲황인민53 ▲황찬홍69

◇師範大學

▲강병주60 ▲강신주55 ▲강철용76
▲고남호73 ▲고준식55 ▲구보형79
▲권상철55 ▲권청자37 ▲김경지62
▲김기민79 ▲김남조51 ▲김대식61
▲김동길61 ▲김상욱51 ▲김상준52
▲김영근72 ▲김영봉61 ▲김영찬56
▲김종기55 ▲김지자63 ▲김진원80
▲김창선65 ▲김철규78 ▲김태홍79
▲김하준77 ▲노갑기70 ▲노지숙57
▲문영식77 ▲민무일69 ▲민재익56
▲박교식79 ▲박봉상63 ▲박성수68
▲박송자67 ▲박종달49 ▲박한식53
▲박화서44 ▲박희문60 ▲배구섭65
▲신란식55 ▲신철순61 ▲안선준79
▲오경환72 ▲유광원79 ▲유덕준64

일 반

◇人文大學

▲권기환⁹⁰ ▲권오걸⁸² ▲권태인⁷⁸
▲김동철⁸² ▲김범준⁹⁰ ▲김상우⁹⁸
▲김승환⁸⁷ ▲김연식⁹⁸ ▲김영현⁸⁶
▲김원배⁹⁴ ▲노태성⁹¹ ▲도면희⁸³
▲박상철⁸⁸ ▲박진형⁹⁸ ▲박홍로⁸⁷
▲송기국⁸⁰ ▲송혁준⁸⁵ ▲오병갑⁸⁰
▲오성기⁸² ▲이동일⁸⁹ ▲이영훈⁷⁹
▲이재용⁹² ▲이정웅⁸¹ ▲이종범⁸⁰
▲전인한⁸⁷ ▲정병윤⁸² ▲정영철⁸⁴
▲조성인⁸⁷ ▲주종득⁸⁶ ▲진준현⁸³
▲최유진⁹⁷ ▲홍선근⁸² ▲황상선⁹¹
▲황성태⁹⁸

◇社會科學大學

▲강은모⁸² ▲강창재⁷⁹ ▲강호철⁸⁷
▲권진호⁹⁰ ▲김정우⁷⁸ ▲김 열⁷⁷
▲김경렬⁹⁵ ▲김경수⁹⁷ ▲김광재⁹⁵
▲김만현⁷⁶ ▲김상은⁹³ ▲김석구⁸⁶
▲김성완⁹⁷ ▲김영남⁹⁰ ▲김원호⁸⁶
▲김종호⁹⁶ ▲김준하⁸⁴ ▲김진기⁸⁶
▲김창기⁸⁹ ▲김태식⁸² ▲김형일⁸⁷
▲김혜숙⁷⁶ ▲나종호⁸⁴ ▲노형식⁹⁶
▲박 철⁸⁷ ▲박승희⁹⁰ ▲박재현⁹¹
▲박재홍⁹⁰ ▲박종세⁸⁹ ▲박준식⁹⁶
▲박호성⁸² ▲방창식⁸⁷ ▲배광민⁹⁸
▲백승주⁹⁰ ▲서재호⁹³ ▲서창교⁸⁸
▲서창록⁸⁴ ▲손개화⁸⁹ ▲송석준⁸⁷
▲송성욱⁹³ ▲신장섭⁹¹ ▲신희창⁷⁶
▲안영일⁸⁴ ▲안재영⁸⁵ ▲양현덕⁸⁷
▲오문석⁸⁵ ▲우병훈⁸⁹ ▲유성엽⁸⁴
▲유화철⁷⁷ ▲윤영상⁹⁰ ▲이기만⁸⁵
▲이병훈⁸⁴ ▲이상희⁸¹ ▲이성기⁷⁹
▲이성만⁸¹ ▲이수열⁹⁹ ▲이영수⁹⁹
▲이원수⁸⁵ ▲이윤수⁹⁴ ▲이재하⁸⁵
▲이정윤⁹⁵ ▲이종무⁸⁸ ▲이찬우⁹⁰
▲이창수⁸⁵ ▲이창수⁸⁹ ▲이창열⁸²
▲이희재⁷⁷ ▲장현성⁸⁹ ▲장효근⁹⁰
▲정병찬⁹¹ ▲정성호⁸⁵ ▲정성호⁹⁴
▲정재호⁷⁷ ▲조면식⁹⁴ ▲조석현⁸⁷
▲조성원⁹³ ▲조소라⁹³ ▲조한욱⁸⁸
▲주일식⁹⁶ ▲최경진⁷⁷ ▲최광해⁷⁸
▲최낙민⁸⁷ ▲최범식⁷⁶ ▲최정배⁸⁶
▲최종선⁸⁹ ▲하현우⁸⁹ ▲한상진⁹¹
▲한승복⁹⁶ ▲함상욱⁹¹ ▲홍기두⁷⁸
▲홍남주⁷⁶ ▲홍덕률⁸⁰ ▲홍진표⁸⁷
▲황선웅⁷⁶ ▲황성준⁸⁷ ▲황영만⁹¹

◇自然科學大學

▲강민현⁸⁸ ▲고광일⁹⁸ ▲김규중⁷⁶
▲김남수⁷⁷ ▲김상길⁸⁹ ▲김윤수⁹¹
▲김이준⁹⁸ ▲김재우⁷⁶ ▲김찬중⁹⁵
▲김제운⁹⁹ ▲김혁주⁸² ▲김효진⁸⁵
▲박동윤⁹⁸ ▲박명홍⁷⁷ ▲박상수⁹⁵
▲박성준⁸⁹ ▲송호석⁸⁸ ▲신용순⁸¹
▲안대영⁷⁷ ▲여선구⁸⁵ ▲오달균⁸⁰
▲유광호⁷⁷ ▲이동일⁸⁸ ▲이동화⁸⁷
▲이도재⁷⁶ ▲이병영⁹⁰ ▲이병재⁷⁸
▲이봉근⁸² ▲이용학⁷⁸ ▲이재범⁸⁷
▲이현식⁷⁸ ▲장병태⁸⁹ ▲장승혁⁹³
▲장종만⁷⁶ ▲전동오⁸⁸ ▲전용호⁷⁹
▲정기영⁸⁵ ▲정희경⁸⁹ ▲진호용⁹³
▲허덕행⁸⁹

◇家政大學

▲강영애⁹⁹ ▲고영숙⁷⁴ ▲권영은⁷⁵
▲김선미⁷⁵ ▲김은희⁷³ ▲박세진⁹⁰
▲박수경⁸⁸ ▲심복자⁸¹ ▲유경순⁸⁵
▲이승희⁹⁹ ▲이신영⁸² ▲이재선⁹⁸
▲장기숙⁷² ▲전영숙⁸² ▲전임호⁸⁵
▲정수혜⁸³ ▲조영옥⁸² ▲조옥례⁸¹
▲조진희⁸⁴ ▲최선아⁹⁷ ▲한인수⁸²

▲유서영⁷⁸ ▲유익식⁷⁸ ▲윤용혁⁶⁴
▲윤용섭⁶⁸ ▲윤희원⁷⁹ ▲이기태⁶⁵
▲이덕수⁶⁵ ▲이석우⁵⁴ ▲이석조⁵⁹
▲이원우⁶⁹ ▲이유택⁶³ ▲이응백⁴⁹
▲이익환⁶⁸ ▲이정민⁷⁸ ▲이주연⁷⁹
▲이흥기⁶⁶ ▲이환희⁵⁹ ▲임창선⁷⁶
▲임환순⁶⁴ ▲장경성⁷⁹ ▲장성원⁶¹
▲장충식⁵² ▲장혜자⁷⁸ ▲전성택⁵⁸
▲전팔근⁵² ▲정경배⁶² ▲정광현⁷⁸
▲정봉섭⁷² ▲정선호⁷⁹ ▲정주섭⁵⁷
▲정태규⁷⁶ ▲조 훈⁵⁵ ▲지태성⁷⁹
▲진명자⁴² ▲최영삼⁶¹ ▲최진오⁶⁶
▲홍성한⁵⁶ ▲홍승직⁴⁹ ▲황성욱⁶⁸

◇商科大學

▲강문수⁷¹ ▲강문창⁶⁸ ▲강선필⁶²
▲강수현⁶² ▲강신돈⁷³ ▲강신종⁶⁶
▲강영주⁶⁶ ▲강종호⁶⁵ ▲계영희⁵⁹
▲고두모⁶³ ▲곽영홍⁶² ▲구명준⁶⁸
▲구석모⁶³ ▲구선희⁶⁰ ▲구영치⁶⁶
▲구정희⁶¹ ▲권영부⁶⁴ ▲권영진⁶⁴
▲권오균⁵³ ▲권오화⁶¹ ▲권희구⁶⁰
▲기병태⁵⁷ ▲김 욱⁶⁵ ▲김경덕⁵⁷
▲김경모⁶⁵ ▲김광선⁶¹ ▲김광조⁶⁵
▲김광진⁶⁰ ▲김규석⁵⁹ ▲김근태⁷²
▲김남현⁵⁷ ▲김녀명⁷⁰ ▲김동영⁶³
▲김두만⁶³ ▲김두산⁶³ ▲김만유⁷¹
▲김방연⁵⁶ ▲김배철⁵⁰ ▲김병기⁵⁹
▲김병덕⁵³ ▲김상은⁵⁷ ▲김성규⁶³
▲김성호⁷¹ ▲김승정⁶⁴ ▲김영규⁵⁹
▲김영수⁶² ▲김영신⁶¹ ▲김웅태⁵⁷
▲김원길⁶⁸ ▲김윤기⁶⁵ ▲김윤재⁵⁹
▲김유택⁴⁹ ▲김재관⁶⁵ ▲김재진⁵⁸
▲김재철⁶⁶ ▲김종국⁶⁷ ▲김종욱⁶²
▲김종희⁶⁹ ▲김주복⁶¹ ▲김중수⁷³
▲김진건⁶⁹ ▲김진환⁶¹ ▲김창수⁷⁰
▲김천욱⁵² ▲김철홍⁶⁶ ▲김충환⁶⁷
▲김태두⁵⁶ ▲김학덕⁶⁵ ▲김형수⁷⁰
▲김형영⁶⁰ ▲김홍준⁶⁵ ▲김효석⁷²
▲나공목⁶¹ ▲나길웅⁶⁵ ▲나제탁⁵⁷

▲남정우⁶⁶ ▲노경섭⁶⁷ ▲노명래⁵⁸
▲류종목⁶⁵ ▲맹정주⁷¹ ▲문대원⁷⁵
▲문동준⁶¹ ▲문성철⁵³ ▲문영도⁵⁹
▲문철한⁶⁰ ▲문화모⁶⁴ ▲민경재⁵⁹
▲민병윤⁵⁵ ▲민상기⁷⁰ ▲박경수⁶⁴
▲박길상⁷² ▲박병윤⁶³ ▲박세만⁴⁹
▲박수기⁵³ ▲박영구⁶⁷ ▲박영대⁶⁰
▲박영배⁷⁵ ▲박영복⁶³ ▲박영일⁶³
▲박영철⁶³ ▲박영호⁷¹ ▲박육근⁷⁴
▲박인철⁶³ ▲박재범⁵⁸ ▲박재윤⁶³
▲박재준⁶⁷ ▲박종수⁷⁰ ▲박종한⁵³
▲박정희⁶⁴ ▲박태하⁶⁴ ▲박해룡⁶³
▲배갑순⁴⁹ ▲배경일⁷³ ▲배무기⁶²
▲배영한⁵⁸ ▲배창모⁶⁴ ▲변원욱⁵⁵
▲변창기⁵³ ▲사공일⁶⁴ ▲서승원⁵⁷
▲서주성⁴⁷ ▲서준호⁷³ ▲서태식⁶³
▲석학진⁶⁴ ▲설 유⁷¹ ▲성유경⁶⁷
▲성하현⁶³ ▲손수일⁶⁵ ▲손정삼⁴⁹
▲송삼석⁵² ▲송용삼⁶⁰ ▲송인덕⁶⁹
▲송인상³⁵ ▲송진호⁵⁶ ▲신명호⁵⁰
▲신세길⁶¹ ▲신영철⁵⁷ ▲신인식⁶⁴
▲신평재⁶¹ ▲심대평⁶⁶ ▲심원택⁴³
▲심재석⁶³ ▲심재선⁶⁴ ▲심정구⁵⁷
▲안경태⁷⁵ ▲안재동⁶⁷ ▲여현동⁶²
▲연영규⁵³ ▲오강욱⁶⁰ ▲오규삼⁶⁷
▲오덕균⁵⁷ ▲오세종⁶⁵ ▲오정현⁵⁸
▲우두현⁶⁷ ▲우보형⁶⁵ ▲원용훈⁵⁷
▲원우식⁵⁶ ▲유무성⁶⁶ ▲유석기⁶¹
▲유장희⁶³ ▲유창록⁶¹ ▲유충식⁶¹
▲유호기⁶⁸ ▲유희춘⁵⁵ ▲윤귀섭⁶⁸
▲윤세극⁵¹ ▲윤승두⁴³ ▲윤영석⁶⁴
▲윤우진⁶⁵ ▲윤원배⁶⁹ ▲윤은용⁶³
▲윤익수⁶⁰ ▲이갑현⁶⁸ ▲이건재⁵⁶
▲이경수⁷⁴ ▲이계문⁷⁷ ▲이계안⁷⁵
▲이광우⁶⁶ ▲이교섭⁷⁵ ▲이궁훈⁶⁶

▲이대원⁶⁵ ▲이덕종⁶⁵ ▲이만수⁶²
▲이만순⁶³ ▲이명기⁶³ ▲이문원⁷⁰
▲이병식⁶¹ ▲이상기⁶¹ ▲이상선⁶³
▲이상윤⁶⁶ ▲이석채⁶⁸ ▲이성렬⁷⁴
▲이성태⁶⁸ ▲이세근⁷⁰ ▲이순학⁶⁸
▲이승웅⁶⁴ ▲이영규⁶⁵ ▲이영서⁶⁵
▲이원덕⁷⁵ ▲이정복⁵⁸ ▲이정상⁶⁵
▲이정식⁷³ ▲이종기⁶¹ ▲이종현⁶⁵
▲이좌영⁶² ▲이주희⁷⁴ ▲이준용⁶⁰
▲이진우⁶⁵ ▲이찬구⁶¹ ▲이창준⁵⁷
▲이철영⁶⁸ ▲이철주⁶⁵ ▲이태승⁴⁴
▲이태형⁶³ ▲이태환⁶² ▲이희순⁶¹
▲임지순⁷² ▲임창열⁶⁶ ▲임채주⁵⁹
▲장기팔⁶² ▲장명섭⁵³ ▲장병구⁶⁹
▲전영완⁵⁶ ▲전유상⁵⁶ ▲정병호⁵⁷
▲정상진⁵⁷ ▲정소영⁵¹ ▲정인근⁷⁴
▲정장식⁷³ ▲정종득⁶⁵ ▲정종순⁶⁹
▲정종찬⁷⁵ ▲정해왕⁶⁹ ▲제정오⁶³
▲조 순⁴⁹ ▲조대찬⁵⁷ ▲조창제⁶⁴
▲조화국⁷² ▲조현택⁷⁴ ▲좌승희⁷¹
▲주주섭⁶⁴ ▲진영욱⁷⁴ ▲최광현⁶⁷
▲최남해⁵⁶ ▲최동건⁷⁴ ▲최명규⁴⁹
▲최명재⁴⁸ ▲최성식⁶⁵ ▲최창걸⁶⁴
▲최해은⁵⁶ ▲최행주⁷⁰ ▲추수욱⁵⁷
▲표계영⁶³ ▲한덕수⁷¹ ▲한병무⁶⁵
▲한상권⁵⁸ ▲한석운⁵⁸ ▲한찬수⁵⁸
▲허남린⁶⁰ ▲허병하⁶² ▲허성길⁶⁴
▲허성용⁵⁸ ▲홍면후⁵⁹ ▲홍성주⁶⁴
▲홍성표⁶⁵ ▲황동규⁷² ▲황문환⁶⁸
▲황재철⁶⁵ ▲황창연⁶²

◇獸醫科大學

▲김인호⁵⁷ ▲김진구⁶⁷ ▲김창윤⁵⁷
▲김택수⁵⁹ ▲김호훈⁶⁴ ▲김홍욱⁶⁸
▲배원환⁶⁰ ▲백충기⁷⁷ ▲서동일⁵⁹
▲소진국⁶⁸ ▲신 심⁷¹ ▲오창영⁵³
▲윤화영⁸³ ▲이도필⁵³ ▲이재철⁵⁶
▲이형우⁶⁰ ▲장병표⁶⁷ ▲장인호⁵⁹
▲차종삼⁶⁰ ▲최영일⁵⁶ ▲최용석⁷⁸

◇藥學大學

▲강석진⁵⁹ ▲공남식⁶⁰ ▲공영석⁵⁷
▲권 박⁶⁵ ▲권창호⁵¹ ▲김광순⁶³
▲김금립⁶⁶ ▲김길수⁶⁵ ▲김낙두⁵⁷
▲김상렬⁴⁸ ▲김선중⁶⁵ ▲김영호⁶¹
▲김용길⁶⁴ ▲김중수⁵⁸ ▲김종욱⁷⁰
▲김진우⁵⁸ ▲김진훈⁷⁹ ▲김하진⁷⁹
▲김한길⁶³ ▲김한주⁶¹ ▲노환성⁶¹
▲도광룡⁷⁶ ▲문경운⁵⁹ ▲문승만⁶⁰
▲박시우⁷³ ▲서석수⁵³ ▲송창진⁵⁸
▲신박일⁶⁴ ▲신현화⁶¹ ▲신화범⁵⁸
▲신화용⁵⁰ ▲양준호⁴⁵ ▲염기정⁶⁰
▲오성환⁶⁴ ▲우재성⁷⁵ ▲윤도중⁶²
▲윤승로⁶⁶ ▲이가평⁶⁴ ▲이갑열⁵⁷
▲이계관⁷⁰ ▲이계준⁶⁸ ▲이광식⁷⁰
▲이규호⁶⁵ ▲이규환⁵⁶ ▲이기연⁶²
▲이상섭⁵⁴ ▲이상은⁵⁸ ▲이상호⁷⁰
▲이상희⁶⁶ ▲이성태⁶⁴ ▲이승한⁷¹
▲이우영⁷⁸ ▲이원희⁷² ▲이홍석⁶²
▲전용동⁴⁷ ▲정순간⁶² ▲정지석⁶⁴
▲조내규⁶² ▲조정식⁶⁶ ▲주영현⁴⁹
▲지현석⁶⁰ ▲최규팔⁷⁴ ▲최명식⁶⁸
▲최상대⁷⁹ ▲최윤환⁶⁰ ▲최정애⁶⁴
▲최현식⁶⁴ ▲한규홍⁶⁸ ▲한상후⁶⁸
▲허 백⁶⁷ ▲허 상⁶² ▲허 용⁴⁷
▲홍기정⁶⁴ ▲홍순억⁵⁸ ▲황준수⁶⁰

◇音樂大學

▲김홍련⁶⁶ ▲박인수⁶⁸ ▲백낙호⁵²
▲신수정⁶³ ▲유봉우⁷⁸ ▲이동남⁷⁰
▲이석원⁷¹ ▲이성만⁵¹ ▲조창연⁷¹

◇醫科大學

▲강내열⁶² ▲강신일⁶⁴ ▲강형운⁴⁹
▲고건성⁷⁴ ▲고계환⁵⁷ ▲권이혁⁴⁷

▲김경식⁷⁴ ▲김관수⁷⁸ ▲김광수⁵⁰
▲김광현⁷² ▲김근우⁶⁷ ▲김기영⁵⁹
▲김동순⁷³ ▲김동은⁶⁸ ▲김명준⁶³
▲김명호⁷⁴ ▲김병국⁷⁰ ▲김병천⁷¹
▲김상준⁷² ▲김성덕⁷¹ ▲김세경⁴⁵
▲김세영⁷⁶ ▲김승욱⁶⁶ ▲김연기⁶⁴
▲김영민⁶² ▲김용락⁶⁶ ▲김용진⁶³
▲김우근⁶¹ ▲김종환⁶⁶ ▲김주일⁴⁸
▲김진복⁶⁸ ▲김진조⁴⁵ ▲김찬영⁵²
▲김현우⁷⁰ ▲김형묵⁶³ ▲김형주⁶¹
▲김홍기⁴⁴ ▲남궁경⁷³ ▲노동두⁵¹
▲노충희⁷⁶ ▲동영송⁶⁶ ▲류지문⁶⁰
▲문국진⁶⁵ ▲문성무⁶⁶ ▲문진수⁷³
▲문한규⁶⁷ ▲민병철⁶² ▲박명희⁷³
▲박문갑⁶³ ▲박상홍⁷⁰ ▲박성구⁶⁶
▲박성태⁶⁴ ▲박소배⁷⁸ ▲박성근⁶⁸
▲박조철⁶⁸ ▲박지홍⁷⁵ ▲방성호⁷²
▲방영주⁷⁹ ▲배대경⁷⁰ ▲백남선⁷³
▲백민기⁴⁷ ▲변상현⁶⁷ ▲서병준⁶⁴
▲선덕영⁴⁹ ▲선우대환⁷⁷ ▲손광현⁶⁸
▲손근찬⁵⁸ ▲손춘호⁵³ ▲송영명⁷³
▲송희승⁵⁹ ▲신순철⁶⁸ ▲신순현⁶⁸
▲신현정⁶⁹ ▲심완섭⁷⁰ ▲안상태⁷⁶
▲안영국⁶⁰ ▲안희영⁷² ▲양두병⁷⁷
▲오승환⁶² ▲우동영⁶² ▲우종인⁷²
▲위정일⁶⁹ ▲유인상⁵³ ▲유형래⁶⁰
▲윤수중⁷⁹ ▲이 영⁶³ ▲이갑순⁶¹
▲이경지⁵³ ▲이계평⁶⁵ ▲이광호⁷³
▲이도영⁶⁹ ▲이동우⁶⁶ ▲이동훈⁴¹
▲이문호⁴⁶ ▲이민호⁷³ ▲이병주⁶⁷
▲이상용⁷⁰ ▲이성규⁷⁸ ▲이순용⁶³
▲이용국⁶⁵ ▲이윤호⁷⁴ ▲이정환⁶⁶
▲이종구⁶⁷ ▲이종태⁷¹ ▲이진용⁶³
▲이태호⁷⁸ ▲이필우⁶⁹ ▲이학중⁵⁸
▲이훈용⁷⁸ ▲장성근⁷⁷ ▲전동원⁶⁴
▲정경태⁶⁹ ▲조경환⁶⁸ ▲조병규⁷⁰
▲주근원⁴³ ▲주인욱⁷⁸ ▲진용한⁷⁷
▲최경진⁷⁴ ▲최규완⁶¹ ▲최동수⁶⁰
▲최병희⁷⁹ ▲최용묵⁶⁷ ▲최재득⁶³
▲최정연⁷⁴ ▲최진수⁷⁰ ▲최호용⁶⁴
▲추연명⁷⁹ ▲하권익⁶³ ▲하재동⁵⁷
▲한동수⁶⁵ ▲한만희⁶³ ▲한명렬⁵¹
▲함의근⁵⁸ ▲허병렬⁶⁷ ▲홍영수⁷³
▲홍영식⁶⁷ ▲홍원선⁷⁷ ▲홍창의⁴⁷
▲황규엽⁷⁸

◇齒科大學

▲강구한⁶⁵ ▲강성현⁷⁵ ▲강태욱⁷⁶
▲구옥경⁶⁸ ▲김 일⁶⁵ ▲김경애⁶¹
▲김광환⁷⁶ ▲김기현⁶⁰ ▲김길태⁷¹
▲김낙형⁶³ ▲김문형⁶⁶ ▲김상세⁶⁶
▲김성룡⁶⁴ ▲김세동⁶⁷ ▲김용운⁶⁸
▲김용준⁶⁸ ▲김우철⁷⁵ ▲김윤영⁶²
▲김인수⁵¹ ▲김정기⁶¹ ▲김정범⁶⁶
▲김종우⁷⁷ ▲김주환⁴⁷ ▲김중수⁷²
▲김지호⁶⁵ ▲김홍석⁶¹ ▲노철진⁵⁸
▲라운영⁶⁶ ▲류재훈⁶⁹ ▲명동성⁶⁷
▲문현수⁷⁷ ▲민병진⁷⁷ ▲박광선⁷⁵
▲박금태⁶⁴ ▲박동욱⁷³ ▲박석주⁸⁰
▲박인철⁷⁷ ▲박재관⁷⁵ ▲박찬유⁷¹
▲박태수⁷¹ ▲방달호⁶³ ▲방승웅⁷⁰
▲백성기⁷⁸ ▲백순지⁶⁹ ▲변석두⁵⁷
▲부삼환⁶⁴ ▲서영수⁷³ ▲서정기⁶⁶
▲서현중⁷⁸ ▲성재현⁷² ▲손 근⁷¹
▲손화진⁷¹ ▲신일규⁷¹ ▲신현철⁶⁰
▲안병근⁶⁸ ▲안정모⁷³ ▲안창영⁷⁸
▲양 웅⁷⁷ ▲양유식⁷⁴ ▲양희일⁶⁰
▲염경철⁶¹ ▲유재석⁷⁴ ▲유치린⁶³
▲유대영⁶⁹ ▲윤경호⁷⁵ ▲윤창근⁶²
▲윤희영⁶⁸ ▲이경모⁶² ▲이미대⁶⁹
▲이배진⁶⁶ ▲이범권⁶¹ ▲이병우⁶²
▲이병환⁶⁵ ▲이봉재⁶¹ ▲이상필⁷⁶
▲이성복⁶⁸ ▲이수백⁷⁴ ▲이승우⁶¹
▲이언호⁶⁶ ▲이용오⁶⁰ ▲이원철⁶⁹
▲이재범⁶⁹ ▲이재운⁶² ▲이점식⁶⁸

▲이정호⁶⁶ ▲이종률⁶⁵ ▲이진근⁷⁰
▲이철용⁷⁷ ▲이한무⁷¹ ▲임동욱⁷³
▲임성수⁶⁶ ▲임순모⁷⁶ ▲장상현⁶⁵
▲장영일⁷⁰ ▲장영정⁶⁶ ▲장치영⁸¹
▲정건용⁵⁷ ▲정광현⁶³ ▲정기근⁵⁷
▲정상주⁶² ▲정소영⁶⁶ ▲정종선⁶¹
▲정종평⁶⁹ ▲정해구⁶² ▲정행남⁶⁸
▲정현주⁶¹ ▲조성직⁶⁸ ▲조영환⁷⁹
▲조유동⁵⁹ ▲조행작⁷⁰ ▲지한택⁴⁷
▲최성근⁷¹ ▲최옥환⁶¹ ▲최정식⁶⁰
▲하상완⁷⁰ ▲한광수⁶⁹ ▲한국영⁵⁰
▲한상욱⁶⁴ ▲한성훈⁶⁶ ▲한세현⁷¹
▲허 태⁷⁷ ▲허연욱⁵⁹ ▲허준구⁷²
▲홍예표⁷¹ ▲황희강⁶⁷

◇大學院

▲고창순⁶² ▲김석웅⁸¹ ▲김응진⁴⁹
▲나병민⁷⁷ ▲남덕우⁶⁶ ▲변정환⁶⁵
▲신경환⁷¹ ▲안영섭⁷⁶ ▲유정준⁶⁵
▲윤옥경⁷⁵ ▲윤재한⁶² ▲이 준⁷¹
▲이영두⁸⁵ ▲정상철⁷⁹ ▲황성근⁷¹

◇經營大學院

▲김민수⁷⁵ ▲김선대⁷² ▲김유택⁷⁰
▲김임식⁷⁰ ▲김호봉⁶⁹

일 반

◇人文大學

▲권기환⑩ ▲권오걸⑩ ▲권태인⑦⑧
▲김동철⑩ ▲김범준⑩ ▲김상우⑩
▲김승환⑩ ▲김연식⑩ ▲김영현⑩
▲김원배⑩ ▲노태성⑩ ▲도면희⑩
▲박상철⑩ ▲박진형⑩ ▲박홍로⑩
▲송기국⑩ ▲송혁준⑩ ▲오병갑⑩
▲오성기⑩ ▲이동일⑩ ▲이영훈⑩
▲이재용⑩ ▲이정웅⑩ ▲이종범⑩
▲전인한⑩ ▲정병윤⑩ ▲정영철⑩
▲조성인⑩ ▲주종득⑩ ▲진준현⑩
▲최유진⑩ ▲홍선근⑩ ▲황상선⑩
▲황성태⑩

◇社會科學大學

▲강은모⑩ ▲강창재⑩ ▲강호철⑩
▲권진호⑩ ▲김정우⑩ ▲김 열⑩
▲김경렬⑩ ▲김경수⑩ ▲김광재⑩
▲김만현⑩ ▲김상은⑩ ▲김석구⑩
▲김성완⑩ ▲김영남⑩ ▲김원호⑩
▲김종호⑩ ▲김준한⑩ ▲김진기⑩
▲김창기⑩ ▲김태식⑩ ▲김형일⑩
▲김혜숙⑩ ▲나종호⑩ ▲노형식⑩
▲박 철⑩ ▲박승희⑩ ▲박재현⑩
▲박재홍⑩ ▲박종세⑩ ▲박준식⑩
▲박호성⑩ ▲방창식⑩ ▲배광민⑩
▲백승주⑩ ▲서재호⑩ ▲서창교⑩
▲서창록⑩ ▲손개화⑩ ▲송성준⑩
▲송성욱⑩ ▲신장섭⑩ ▲신희정⑩
▲안영일⑩ ▲안재영⑩ ▲양현덕⑩
▲오문석⑩ ▲우병훈⑩ ▲유성엽⑩
▲유화철⑩ ▲윤영상⑩ ▲이기만⑩
▲이병훈⑩ ▲이상희⑩ ▲이성기⑩
▲이성만⑩ ▲이수열⑩ ▲이영수⑩
▲이원수⑩ ▲이윤수⑩ ▲이재하⑩
▲이정윤⑩ ▲이종무⑩ ▲이찬우⑩
▲이창수⑩ ▲이창수⑩ ▲이창열⑩
▲이희재⑩ ▲장현성⑩ ▲장효근⑩
▲정병찬⑩ ▲정성호⑩ ▲정성호⑩
▲정재호⑩ ▲조면식⑩ ▲조석현⑩
▲조성원⑩ ▲조소라⑩ ▲조한욱⑩
▲주일식⑩ ▲최경진⑩ ▲최광해⑩
▲최낙민⑩ ▲최범식⑩ ▲최정배⑩
▲최종선⑩ ▲하현우⑩ ▲한상진⑩
▲한승복⑩ ▲함상욱⑩ ▲홍기두⑩
▲홍남주⑩ ▲홍덕률⑩ ▲홍진표⑩
▲황선웅⑩ ▲황성준⑩ ▲황영민⑩

◇自然科學大學

▲강민현⑩ ▲고광일⑩ ▲김규중⑩
▲김남수⑩ ▲김상길⑩ ▲김윤수⑩
▲김이준⑩ ▲김재우⑩ ▲김찬중⑩
▲김제운⑩ ▲김혁주⑩ ▲김효진⑩
▲박동윤⑩ ▲박명홍⑩ ▲박상수⑩
▲박성준⑩ ▲송호석⑩ ▲신용순⑩
▲안대영⑩ ▲여선구⑩ ▲오달근⑩
▲유광호⑩ ▲이동일⑩ ▲이동화⑩
▲이묘재⑩ ▲이병영⑩ ▲이병재⑩
▲이봉근⑩ ▲이용학⑩ ▲이재범⑩
▲이현식⑩ ▲장병태⑩ ▲장승혁⑩
▲장종민⑩ ▲전동오⑩ ▲전용호⑩
▲정기영⑩ ▲정희경⑩ ▲진호용⑩
▲허덕형⑩

◇家政大學

▲강영애⑩ ▲고영숙⑩ ▲권영은⑩
▲김선미⑩ ▲김은희⑩ ▲박세진⑩
▲박수경⑩ ▲심복자⑩ ▲유경순⑩
▲이승희⑩ ▲이신영⑩ ▲이재선⑩
▲장기숙⑩ ▲전영숙⑩ ▲전임호⑩
▲정수혜⑩ ▲조영옥⑩ ▲조옥례⑩
▲조진희⑩ ▲최선아⑩ ▲한인수⑩

▲유서영⑦ ▲유익식⑦ ▲유용혁⑦
▲윤웅섭⑦ ▲윤희원⑦ ▲이기태⑦
▲이덕수⑦ ▲이석우⑦ ▲이석조⑦
▲이원우⑦ ▲이유택⑦ ▲이응백⑦
▲이익환⑦ ▲이정민⑦ ▲이주연⑦
▲이흥기⑦ ▲이환희⑦ ▲임창선⑦
▲임항순⑦ ▲장경성⑦ ▲장성원⑦
▲장충식⑦ ▲장혜자⑦ ▲전성택⑦
▲전팔근⑦ ▲정경배⑦ ▲정광현⑦
▲정봉섭⑦ ▲정선호⑦ ▲정주섭⑦
▲정대규⑦ ▲조 훈⑦ ▲지대성⑦
▲진명자⑦ ▲최영삼⑦ ▲최진오⑦
▲홍성한⑦ ▲홍승직⑦ ▲황성욱⑦

◇商科大學

▲강문수⑦ ▲강문창⑦ ▲강선필⑦
▲강수현⑦ ▲강신돈⑦ ▲강신종⑦
▲강영주⑦ ▲강종호⑦ ▲계영희⑦
▲고두모⑦ ▲곽영홍⑦ ▲구명준⑦
▲구석모⑦ ▲구선희⑦ ▲구영치⑦
▲구정희⑦ ▲권영부⑦ ▲권영진⑦
▲권오균⑦ ▲권오학⑦ ▲권희구⑦
▲기병대⑦ ▲김 욱⑦ ▲김경덕⑦
▲김경모⑦ ▲김광선⑦ ▲김광조⑦
▲김광진⑦ ▲김규석⑦ ▲김근태⑦
▲김남현⑦ ▲김녀명⑦ ▲김동영⑦
▲김두만⑦ ▲김두산⑦ ▲김만유⑦
▲김방연⑦ ▲김배철⑦ ▲김병기⑦
▲김병덕⑦ ▲김상은⑦ ▲김성규⑦
▲김성호⑦ ▲김승정⑦ ▲김영규⑦
▲김영수⑦ ▲김영신⑦ ▲김웅태⑦
▲김원길⑦ ▲김윤기⑦ ▲김윤재⑦
▲김윤택⑦ ▲김재관⑦ ▲김재진⑦
▲김재철⑦ ▲김종국⑦ ▲김종욱⑦
▲김종희⑦ ▲김주복⑦ ▲김중수⑦
▲김진건⑦ ▲김진환⑦ ▲김창수⑦
▲김천욱⑦ ▲김철홍⑦ ▲김충환⑦
▲김태두⑦ ▲김학덕⑦ ▲김형수⑦
▲김형영⑦ ▲김홍준⑦ ▲김효석⑦
▲나공복⑦ ▲나길웅⑦ ▲나제택⑦
▲남정우⑦ ▲노경섭⑦ ▲노명래⑦
▲류종목⑦ ▲맹정주⑦ ▲문대원⑦
▲문동준⑦ ▲문성철⑦ ▲문영도⑦
▲문철한⑦ ▲문화모⑦ ▲민경재⑦
▲민병윤⑦ ▲민상기⑦ ▲박경수⑦
▲박길상⑦ ▲박영운⑦ ▲박세만⑦
▲박수기⑦ ▲박영구⑦ ▲박영대⑦
▲박영배⑦ ▲박영복⑦ ▲박영일⑦
▲박영철⑦ ▲박영호⑦ ▲박옥근⑦
▲박인철⑦ ▲박재범⑦ ▲박재윤⑦
▲박재준⑦ ▲박종수⑦ ▲박종한⑦
▲박정희⑦ ▲박태하⑦ ▲박해룡⑦
▲배갑순⑦ ▲배경일⑦ ▲배무기⑦
▲배영한⑦ ▲배창모⑦ ▲변원욱⑦
▲변창기⑦ ▲사공일⑦ ▲서승원⑦
▲서주성⑦ ▲서준호⑦ ▲서태식⑦
▲석학진⑦ ▲설 유⑦ ▲성유경⑦
▲성하현⑦ ▲손수일⑦ ▲손정삼⑦
▲송삼석⑦ ▲송용상⑦ ▲송인덕⑦
▲송인상⑦ ▲송진호⑦ ▲신명호⑦
▲신세길⑦ ▲신영철⑦ ▲신인식⑦
▲신평재⑦ ▲심대평⑦ ▲심원택⑦
▲심재석⑦ ▲심재선⑦ ▲심정구⑦
▲안경태⑦ ▲안재동⑦ ▲여현동⑦
▲연영규⑦ ▲오강욱⑦ ▲오규삼⑦
▲오덕근⑦ ▲오세종⑦ ▲오정현⑦
▲우두현⑦ ▲우보형⑦ ▲원용훈⑦
▲원우식⑦ ▲유무성⑦ ▲유석기⑦
▲유장희⑦ ▲유창록⑦ ▲유충식⑦
▲유호기⑦ ▲유희춘⑦ ▲윤귀섭⑦
▲윤세극⑦ ▲윤승두⑦ ▲윤영석⑦
▲윤우진⑦ ▲윤원배⑦ ▲윤은용⑦
▲윤익수⑦ ▲이갑현⑦ ▲이건재⑦
▲이경수⑦ ▲이계문⑦ ▲이계인⑦
▲이광우⑦ ▲이교섭⑦ ▲이궁훈⑦

▲이대원⑦ ▲이덕종⑦ ▲이만수⑦
▲이만순⑦ ▲이명기⑦ ▲이문원⑦
▲이병식⑦ ▲이상기⑦ ▲이상선⑦
▲이상윤⑦ ▲이석채⑦ ▲이성렬⑦
▲이성태⑦ ▲이세근⑦ ▲이순학⑦
▲이승웅⑦ ▲이영규⑦ ▲이영서⑦
▲이원덕⑦ ▲이정복⑦ ▲이정상⑦
▲이정식⑦ ▲이종기⑦ ▲이종현⑦
▲이좌영⑦ ▲이주희⑦ ▲이준용⑦
▲이진우⑦ ▲이찬구⑦ ▲이창준⑦
▲이철영⑦ ▲이철주⑦ ▲이태승⑦
▲이태형⑦ ▲이태환⑦ ▲이희순⑦
▲임지순⑦ ▲임창열⑦ ▲임채주⑦
▲장기팔⑦ ▲장명섭⑦ ▲장병구⑦
▲전영완⑦ ▲전유상⑦ ▲정병호⑦
▲정상진⑦ ▲정소영⑦ ▲정인근⑦
▲정장식⑦ ▲정종득⑦ ▲정종순⑦
▲정종찬⑦ ▲정태왕⑦ ▲제정오⑦
▲조 순⑦ ▲조덕찬⑦ ▲조창제⑦
▲조학국⑦ ▲조현택⑦ ▲좌승희⑦
▲주주섭⑦ ▲진영옥⑦ ▲최광현⑦
▲최남해⑦ ▲최동건⑦ ▲최명규⑦
▲최명재⑦ ▲최성식⑦ ▲최창걸⑦
▲최해은⑦ ▲최행주⑦ ▲추수욱⑦
▲표계영⑦ ▲한덕수⑦ ▲한병무⑦
▲한상권⑦ ▲한석운⑦ ▲한찬수⑦
▲허남린⑦ ▲허병하⑦ ▲허성길⑦
▲허성용⑦ ▲홍만후⑦ ▲홍성주⑦
▲홍성표⑦ ▲황동규⑦ ▲황문환⑦
▲황재철⑦ ▲황창연⑦

◇獸醫科大學

▲김인호⑦ ▲김진구⑦ ▲김창윤⑦
▲김택수⑦ ▲김호호⑦ ▲김홍욱⑦
▲배원환⑦ ▲백충기⑦ ▲서동일⑦
▲소진국⑦ ▲신 심⑦ ▲오창영⑦
▲윤화영⑦ ▲이도필⑦ ▲이재철⑦
▲이형우⑦ ▲장병표⑦ ▲장인호⑦
▲차종삼⑦ ▲최영일⑦ ▲최용석⑦

◇藥學大學

▲강석진⑦ ▲공남식⑦ ▲공영석⑦
▲권 박⑦ ▲권창호⑦ ▲김광순⑦
▲김금림⑦ ▲김길수⑦ ▲김낙두⑦
▲김상렬⑦ ▲김선중⑦ ▲김영호⑦
▲김용길⑦ ▲김중수⑦ ▲김종욱⑦
▲김진우⑦ ▲김진훈⑦ ▲김하진⑦
▲김한길⑦ ▲김한주⑦ ▲노환성⑦
▲노광룡⑦ ▲문경윤⑦ ▲문승민⑦
▲박시우⑦ ▲서석수⑦ ▲송창진⑦
▲신박일⑦ ▲신현화⑦ ▲신화범⑦
▲신화용⑦ ▲양준호⑦ ▲염기정⑦
▲오성환⑦ ▲우재성⑦ ▲윤도중⑦
▲윤승로⑦ ▲이가평⑦ ▲이갑열⑦
▲이계관⑦ ▲이계준⑦ ▲이광식⑦
▲이규호⑦ ▲이규환⑦ ▲이기연⑦
▲이상섭⑦ ▲이상은⑦ ▲이상호⑦
▲이상희⑦ ▲이성태⑦ ▲이승환⑦
▲이우영⑦ ▲이원희⑦ ▲이홍석⑦
▲전용동⑦ ▲정순간⑦ ▲정지석⑦
▲조내규⑦ ▲조정식⑦ ▲주영현⑦
▲지현석⑦ ▲최규팔⑦ ▲최명식⑦
▲최상대⑦ ▲최운환⑦ ▲최정애⑦
▲최현식⑦ ▲한규홍⑦ ▲한상후⑦
▲허 백⑦ ▲허 상⑦ ▲허 용⑦
▲홍기정⑦ ▲홍순억⑦ ▲황준수⑦

◇音樂大學

▲김홍련⑦ ▲박인수⑦ ▲백낙호⑦
▲신수정⑦ ▲유봉우⑦ ▲이동남⑦
▲이석원⑦ ▲이성만⑦ ▲조창연⑦

◇醫科大學

▲강내열⑦ ▲강신일⑦ ▲강형운⑦
▲고건성⑦ ▲고계환⑦ ▲권이혁⑦

▲김경식⑦ ▲김관수⑦ ▲김광수⑦
▲김광현⑦ ▲김근우⑦ ▲김기영⑦
▲김동순⑦ ▲김동은⑦ ▲김명준⑦
▲김명호⑦ ▲김병국⑦ ▲김병천⑦
▲김상준⑦ ▲김성덕⑦ ▲김세경⑦
▲김세영⑦ ▲김승욱⑦ ▲김영기⑦
▲김영민⑦ ▲김용락⑦ ▲김용진⑦
▲김우근⑦ ▲김종환⑦ ▲김주일⑦
▲김진복⑦ ▲김진조⑦ ▲김찬영⑦
▲김현우⑦ ▲김형묵⑦ ▲김형주⑦
▲김홍기⑦ ▲남궁경⑦ ▲노동두⑦
▲노충희⑦ ▲동영송⑦ ▲류지문⑦
▲문국진⑦ ▲문성무⑦ ▲문진수⑦
▲문한규⑦ ▲민병철⑦ ▲박명희⑦
▲박문갑⑦ ▲박상홍⑦ ▲박성구⑦
▲박성태⑦ ▲박소배⑦ ▲박신근⑦
▲박조철⑦ ▲박지홍⑦ ▲방성호⑦
▲방영주⑦ ▲배대경⑦ ▲백남선⑦
▲백만기⑦ ▲변상현⑦ ▲서병준⑦
▲선덕영⑦ ▲선우대환⑦ ▲손광현⑦
▲손근찬⑦ ▲손춘호⑦ ▲송영명⑦
▲송희승⑦ ▲신순철⑦ ▲신순현⑦
▲신현정⑦ ▲심완섭⑦ ▲안상태⑦
▲안영국⑦ ▲안희영⑦ ▲양두병⑦
▲오승환⑦ ▲우동영⑦ ▲우종민⑦
▲위정일⑦ ▲유인상⑦ ▲유형래⑦
▲윤수중⑦ ▲이 영⑦ ▲이갑순⑦
▲이경지⑦ ▲이계평⑦ ▲이광호⑦
▲이도영⑦ ▲이동우⑦ ▲이동훈⑦
▲이문호⑦ ▲이민호⑦ ▲이병주⑦
▲이상용⑦ ▲이성규⑦ ▲이순용⑦
▲이용국⑦ ▲이윤호⑦ ▲이정환⑦
▲이종구⑦ ▲이종태⑦ ▲이진용⑦
▲이태호⑦ ▲이필우⑦ ▲이학중⑦
▲이훈용⑦ ▲장성근⑦ ▲전동원⑦
▲정경태⑦ ▲조경환⑦ ▲조병규⑦
▲주근원⑦ ▲주인욱⑦ ▲진용한⑦
▲최경진⑦ ▲최규완⑦ ▲최동수⑦
▲최병휘⑦ ▲최용묵⑦ ▲최재득⑦
▲최정연⑦ ▲최진수⑦ ▲최호용⑦
▲추연명⑦ ▲하권익⑦ ▲하재동⑦
▲한동수⑦ ▲한만희⑦ ▲한명렬⑦
▲함의근⑦ ▲허봉렬⑦ ▲홍영수⑦
▲홍영식⑦ ▲홍원선⑦ ▲홍창의⑦
▲황규엽⑦

◇齒科大學

▲강구한⑦ ▲강성현⑦ ▲강태욱⑦
▲구옥경⑦ ▲김 일⑦ ▲김경애⑦
▲김광환⑦ ▲김기현⑦ ▲김길태⑦
▲김낙형⑦ ▲김문형⑦ ▲김상세⑦
▲김성룡⑦ ▲김세동⑦ ▲김용운⑦
▲김용준⑦ ▲김우철⑦ ▲김윤영⑦
▲김인수⑦ ▲김정기⑦ ▲김정범⑦
▲김종우⑦ ▲김주환⑦ ▲김중수⑦
▲김지호⑦ ▲김홍석⑦ ▲노철진⑦
▲라운영⑦ ▲류재훈⑦ ▲명동성⑦
▲문현수⑦ ▲민병진⑦ ▲박광선⑦
▲박금태⑦ ▲박동욱⑦ ▲박석주⑦
▲박인철⑦ ▲박재관⑦ ▲박찬유⑦
▲박태수⑦ ▲방달호⑦ ▲방승웅⑦
▲백성기⑦ ▲백순지⑦ ▲변석두⑦
▲부삼환⑦ ▲서영수⑦ ▲서정기⑦
▲서현중⑦ ▲성재현⑦ ▲손 근⑦
▲손화진⑦ ▲신일규⑦ ▲신현철⑦
▲안병근⑦ ▲안정모⑦ ▲안창영⑦
▲양 웅⑦ ▲양유식⑦ ▲양희일⑦
▲염경철⑦ ▲유재석⑦ ▲유치린⑦
▲유대영⑦ ▲윤경호⑦ ▲윤창근⑦
▲윤학영⑦ ▲이경모⑦ ▲이미대⑦
▲이배진⑦ ▲이법권⑦ ▲이병우⑦
▲이병환⑦ ▲이봉재⑦ ▲이상필⑦
▲이성복⑦ ▲이수백⑦ ▲이승우⑦
▲이언호⑦ ▲이우모⑦ ▲이원철⑦
▲이재명⑦ ▲이재윤⑦ ▲이점식⑦

▲이정호⑦ ▲이종률⑦ ▲이진근⑦
▲이철용⑦ ▲이한무⑦ ▲임동욱⑦
▲임성수⑦ ▲임순모⑦ ▲장상현⑦
▲장영일⑦ ▲장영정⑦ ▲장치영⑦
▲정건용⑦ ▲정광현⑦ ▲정기근⑦
▲정상주⑦ ▲정소영⑦ ▲정종선⑦
▲정종평⑦ ▲정해구⑦ ▲정행남⑦
▲정현주⑦ ▲조성직⑦ ▲조영환⑦
▲조유동⑦ ▲조형작⑦ ▲지현택⑦
▲최성근⑦ ▲최우환⑦ ▲최정식⑦
▲하상완⑦ ▲한광수⑦ ▲한국영⑦
▲한상욱⑦ ▲한성훈⑦ ▲한세현⑦
▲허 태⑦ ▲허연욱⑦ ▲허준구⑦
▲홍예표⑦ ▲황의강⑦

◇大學院

▲고창순⑦ ▲김석웅⑦ ▲김응진⑦
▲나병만⑦ ▲남덕우⑦ ▲변정환⑦
▲신경환⑦ ▲안영섭⑦ ▲유정준⑦
▲윤옥경⑦ ▲윤재한⑦ ▲이 준⑦
▲이영두⑦ ▲정상철⑦ ▲황성근⑦

◇經營大學院

▲김민수⑦ ▲김선대⑦ ▲김윤택⑦
▲김임식⑦ ▲김호봉⑦ ▲김홍식⑦
▲박건호⑦ ▲박원봉⑦ ▲박정남⑦
▲안대륜⑦ ▲유진성⑦ ▲이상선⑦
▲이준학⑦ ▲이찬하⑦ ▲전도진⑦
▲최성종⑦ ▲최하경⑦ ▲한상신⑦

◇教育大學院

▲신극범⑦ ▲위준혁⑦

◇保健大學院

▲김공현⑦ ▲김성초⑦ ▲김송전⑦
▲김수철⑦ ▲박성배⑦ ▲박순영⑦
▲박희서⑦ ▲여현태⑦ ▲이규한⑦
▲이명화⑦

◇司法大學院

▲김기수⑦ ▲김적승⑦ ▲김창식⑦
▲석용진⑦ ▲설경진⑦ ▲신웅식⑦
▲이우길⑦ ▲이원섭⑦ ▲정경식⑦

◇新聞大學院

▲김기도⑦ ▲김언호⑦ ▲김화옥⑦
▲변정민⑦ ▲유일연⑦ ▲이근수⑦
▲이명화⑦ ▲이재훈⑦ ▲황영일⑦

◇行政大學院

▲고충삼⑦ ▲김관수⑦ ▲김명진⑦
▲김주섭⑦ ▲문화갑⑦ ▲박범채⑦
▲박용덕⑦ ▲배문환⑦ ▲서삼영⑦
▲신윤식⑦ ▲양석호⑦ ▲연기호⑦
▲오자복⑦ ▲유상철⑦ ▲유정복⑦
▲윤일근⑦ ▲이강래⑦ ▲이남기⑦
▲이호계⑦ ▲정상천⑦ ▲조상호⑦
▲조성근⑦ ▲주병덕⑦ ▲황갑순⑦

◇環境大學院

▲박춘배⑦ ▲박형석⑦

◇최고경영자과정

▲권기술⑦ ▲남궁석⑦ ▲박원홍⑦
▲안동선⑦ ▲유삼남⑦ ▲정재문⑦
▲전용택⑦ ▲황승민⑦

◇국가정책과정

▲김정수⑦ ▲박명환⑦ ▲조부영⑦
▲최선영⑦

◇보건의료정책최고관리자과정

▲이창규⑦ ▲정의화⑦

▲소병현52 ▲손수일55 ▲송성한68
▲송일웅64 ▲송정실71 ▲신병찬84
▲신승윤81 ▲신언철93 ▲신정숙39
▲신정인90 ▲안영숙56 ▲안온신55
▲안정순43 ▲안채봉40 ▲양태정46
▲연대성64 ▲왕문용70 ▲우명길72
▲유영선93 ▲윤동혁61 ▲윤익모66
▲윤재운75 ▲윤종상56 ▲윤태익65
▲윤홍중61 ▲윤희옥60 ▲이 종69
▲이강섭73 ▲이길오77 ▲이동균69
▲이명전76 ▲이민섭76 ▲이상온77
▲이상용77 ▲이석병57 ▲이석천58
▲이수영70 ▲이용현57 ▲이우진57
▲이원강61 ▲이윤자46 ▲이점숙44
▲이종명58 ▲이종문78 ▲이주한57
▲이진환58 ▲이재규73 ▲이춘근63
▲이태준53 ▲이현수76 ▲이현숙82
▲이희철90 ▲임창원70 ▲임태순44
▲임홍선57 ▲임홍순69 ▲장성희82
▲장종산86 ▲전병일73 ▲정봉화64
▲정선영70 ▲정성수81 ▲정영호56
▲정종률65 ▲정찬영60 ▲정홍대87
▲조정제57 ▲조초희72 ▲조현민77
▲지은숙73 ▲지충성61 ▲진경희86
▲최광만59 ▲최남신55 ▲최병선58
▲최원규63 ▲최은규82 ▲탁인자67
▲하연숙81 ▲한 념43 ▲한상주60
▲한주호56 ▲한전옥75 ▲허현도56
▲형남두52 ▲홍경식46 ▲홍길표73
▲홍동은41 ▲홍성화63 ▲홍성흠52
▲홍순관63 ▲홍인기58 ▲황금연54
▲황남룡39 ▲황상익63 ▲황옥연63
▲황적륜58

◇商科大學

▲강달중55 ▲강승규65 ▲강영복55
▲강인식70 ▲강화희59 ▲고광범63
▲공광우55 ▲김 동71 ▲김경렬59
▲김경무64 ▲김경민65 ▲김도승65
▲김동한56 ▲김만현56 ▲김성주61
▲김송자63 ▲김연배68 ▲김용일72
▲김용표72 ▲김은수55 ▲김이현66
▲김재진48 ▲김재현73 ▲김정훈54
▲김제심56 ▲김주호54 ▲김준식70
▲김진호58 ▲김진화65 ▲김홍식75
▲나웅배57 ▲민경희70 ▲민병관74
▲박노영61 ▲박복양44 ▲박순화69
▲박영도64 ▲박원규62 ▲박인석56
▲박종모56 ▲박충식66 ▲박항천65
▲배주원59 ▲배지열57 ▲백 철61
▲서병억65 ▲서병한61 ▲서상달66
▲서정호43 ▲손내선61 ▲송무희65
▲신범식56 ▲신선기78 ▲신양우74
▲신위철49 ▲심창순64 ▲안희중65
▲양승우72 ▲엄수명67 ▲연제성60
▲오기화63 ▲유만조61 ▲유명식64
▲유재운72 ▲윤명상71 ▲윤영원60
▲윤정근58 ▲윤종화72 ▲윤찬여58
▲이경룡69 ▲이동혁69 ▲이동훈59
▲이상훈63 ▲이송은57 ▲이수신70
▲이승균60 ▲이영상64 ▲이영일67
▲이웅근55 ▲이재원59 ▲이종오56
▲이중희52 ▲이해옥63 ▲인수환58
▲장기남68 ▲장세진72 ▲장현수66
▲전병운74 ▲전인홍58 ▲전하길56
▲정세진57 ▲정우강69 ▲정재창64
▲정호용56 ▲제환석74 ▲조한석48
▲주 일57 ▲주경로65 ▲진영수67
▲진창갑59 ▲최 돈57 ▲최석철62
▲최성주59 ▲최순원63 ▲최영석64
▲최종원59 ▲추준석71 ▲탁승호72
▲한상동42 ▲한홍광68 ▲한희영54
▲함기창63 ▲허남수66 ▲허재원60
▲현호경51 ▲홍대원75 ▲홍일표53
▲홍준기65 ▲황 훈72 ▲황건호74

◇獸醫科大學

▲강용만62 ▲고주영69 ▲구연강66
▲김경환64 ▲김동신60 ▲김승중73
▲김승환62 ▲김영춘58 ▲김원선58
▲남궁선61 ▲노병익65 ▲류광모60
▲문종복60 ▲박영수72 ▲박종명65
▲박진일64 ▲석호봉67 ▲신문균60
▲신현준65 ▲안석길55 ▲안영득64
▲이병상82 ▲이상우69 ▲이승용79
▲이종세83 ▲이준섭58 ▲이한길65
▲임옥빈60 ▲정승기58 ▲조용호87
▲최명근58 ▲최영식65 ▲한수남53
▲홍문표70 ▲홍인선85

◇藥學大學

▲강낙희82 ▲강삼식69 ▲강희경88
▲고정숙57 ▲권현옥83 ▲김광규68
▲김대욱82 ▲김병근57 ▲김상수70
▲김석린61 ▲김수진75 ▲김영자56
▲김학균55 ▲김효중79 ▲나도선71
▲노일협48 ▲박명호57 ▲박수일69
▲박정규64 ▲박준석67 ▲백윤승49
▲서혜란64 ▲성홍희49 ▲안삼문54
▲우숙희54 ▲윤형중61 ▲이오직54
▲이원재57 ▲이은방59 ▲이재원67
▲이재호77 ▲이정희81 ▲이필영56
▲이혜숙78 ▲이홍래56 ▲장안수67
▲전정숙61 ▲전하창71 ▲정상철56
▲정진기57 ▲정춘희53 ▲정현주97
▲조병탁76 ▲조영애86 ▲조용훈88
▲조중현72 ▲최근한53 ▲최진석66
▲추영규50 ▲하성상64 ▲한금순55
▲한연해97 ▲황영옥61

◇音樂大學

▲김대환93 ▲김동우78 ▲김문자63
▲김상원91 ▲김수진95 ▲김영식74
▲김의창70 ▲김정아94 ▲김주남85
▲김준희90 ▲김홍식77 ▲노숙자60
▲노정희90 ▲도완녀77 ▲박윤경95
▲박정임73 ▲배대윤53 ▲서계숙60
▲송인길90 ▲신영자67 ▲신효철73
▲안종선80 ▲양영란77 ▲양화연88
▲엄의경85 ▲여홍은60 ▲오문숙88
▲오유애80 ▲유명희76 ▲유태렬55
▲윤은희92 ▲이경희80 ▲이방숙65
▲이상희86 ▲이영수75 ▲임희정86
▲장성덕64 ▲장우형77 ▲장재호92
▲장혜정74 ▲전소영84 ▲전정희73
▲정미연81 ▲정애련73 ▲정혜원92
▲정홍자65 ▲조상현51 ▲차세정99
▲최수연89 ▲최인배77 ▲최중원80
▲최희연93 ▲허 난92 ▲홍순덕77
▲홍신숙61 ▲홍영자59 ▲홍준선62

◇醫科大學

▲강병수98 ▲강숙경98 ▲강일태80
▲강진구65 ▲계수덕49 ▲고원섭84
▲고행일70 ▲기만덕64 ▲김구상82
▲김기곤57 ▲김남호80 ▲김범용53
▲김병일81 ▲김선태73 ▲김성수73
▲김연수88 ▲김영덕77 ▲김영태88
▲김용섭84 ▲김용식78 ▲김종신62
▲김충철67 ▲김희섭46 ▲나영호77
▲노태성81 ▲문영규83 ▲문채구59
▲민충기47 ▲박동현76 ▲박영철52
▲박우윤84 ▲박재덕41 ▲박종철68
▲박찬일65 ▲방덕환59 ▲방영현41
▲방진현89 ▲배진기57 ▲백종일89
▲변창세78 ▲서정범54 ▲서정후50
▲손병선48 ▲송운영61 ▲송제일79
▲안중호89 ▲엄태현90 ▲옥홍남60
▲유수종91 ▲유재호85 ▲유재훈47
▲윤병우80 ▲이동철84 ▲이변상53

▲이문규81 ▲이상주66 ▲이수일75
▲이승희64 ▲이용규60 ▲이원로62
▲이윤모79 ▲이재순59 ▲이재원82
▲이종승77 ▲이주원48 ▲이지호83
▲이진화72 ▲이찬세39 ▲이형진52
▲이호규83 ▲임용철82 ▲장순명68
▲전규식56 ▲전지일55 ▲정명관97
▲정민화79 ▲정용원76 ▲정제일59
▲정진상81 ▲조상록84 ▲주진순47
▲최시윤59 ▲최영희97 ▲최일형61
▲최창운64 ▲최충신67 ▲홍성환82
▲홍순원56 ▲홍승인85 ▲황준식52

◇齒科大學

▲강수만89 ▲강우태66 ▲강인희83
▲강전영67 ▲구원우58 ▲김 무68
▲김공배62 ▲김규문63 ▲김기혁60
▲김명영81 ▲김민수60 ▲김병환60
▲김성곤72 ▲김영규76 ▲김영균55
▲김영수58 ▲김원우56 ▲김은희89
▲김의배56 ▲김진용87 ▲김천식77
▲김충배78 ▲김태건99 ▲김태우83
▲김현규70 ▲김혜숙77 ▲나병선76
▲동방진84 ▲류영남89 ▲목성규87
▲문명용84 ▲문일환71 ▲문진석82
▲민병희80 ▲박경정75 ▲박덕상70
▲박상윤78 ▲박용연61 ▲박원배55
▲박태선58 ▲변인숙78 ▲변호영88
▲서성구81 ▲선우일권84 ▲송세진84
▲송연희91 ▲신동인83 ▲안병관56
▲엄대섭50 ▲오성근65 ▲오인식56
▲우건희73 ▲원도중69 ▲유하식89
▲은세원85 ▲이광건79 ▲이대관80
▲이동주62 ▲이만희89 ▲이명호78
▲이문한79 ▲이병화88 ▲이상대74
▲이상표83 ▲이선형62 ▲이영훈84
▲이의웅65 ▲이장호61 ▲이재학78
▲이정식55 ▲이창순68 ▲이형구88
▲임병채86 ▲임심삼62 ▲임승찬75
▲임우하62 ▲임종호88 ▲임희숙80
▲장기산61 ▲장병전74 ▲정교현62
▲정낙현50 ▲정성창67 ▲정성화57
▲정연명82 ▲정윤석79 ▲정의종71
▲정진용78 ▲정철표81 ▲제갈선영71
▲조 웅67 ▲조경석83 ▲조광현74
▲조민선88 ▲조시형88 ▲조영진88
▲조영호71 ▲조한준67 ▲주광섭79
▲진익재84 ▲차영남73 ▲최봉섭67
▲최양근88 ▲하해근69 ▲한병소69
▲홍금표58 ▲홍성준82 ▲황규동71
▲황성명55 ▲황해순62

◇大學院

▲곽동석96 ▲김광주82 ▲김문한82
▲김성집63 ▲김세재85 ▲김연식58
▲김원진64 ▲김진경95 ▲김진양94
▲김창남93 ▲김태승78 ▲문수진77
▲박성호98 ▲박의열58 ▲박재순95
▲배명진83 ▲백대균82 ▲손명환80
▲윤경현64 ▲이남인83 ▲이남형73
▲이성로97 ▲이재훈85 ▲정원박81
▲조대우79 ▲진선주69 ▲최육경97
▲최원희65 ▲최인수85

◇經營大學院

▲송윤화96 ▲이승주95 ▲이종달75
▲이진원69 ▲이한득94 ▲전성용91

◇敎育大學院

▲김기태71 ▲박광희66 ▲이학원74
▲홍순강73

◇保健大學院

▲김정수81 ▲김종서61 ▲박종안72
▲오세민69 ▲오장수91 ▲윤기은72

▲이민희76 ▲이상훈82 ▲임완호83
▲정두채83 ▲최진석86

◇司法大學院

▲김준권69

◇新聞大學院

▲노재성73

◇行政大學院

▲김경엽65 ▲김상진67 ▲김순성72
▲김승정68 ▲김원영70 ▲김준봉65
▲소중영64 ▲여상환68 ▲이종렬65
▲진병호70

◇環境大學院

▲김수철78 ▲김종일86 ▲민병욱81
▲유춘수85 ▲윤종식91 ▲이재근81
▲임경숙86 ▲정우철93 ▲채승기83
▲최주섭75

◇최고산업전략과정

▲강명영20 ▲강민우5 ▲고귀선19
▲고상언11 ▲고인석26 ▲고희수25
▲구교근20 ▲권영익19 ▲권철규26
▲권태운22 ▲김광섭20 ▲김광호23
▲김민수12 ▲김상모7 ▲김상희4
▲김수영12 ▲김영수3 ▲김우식19
▲김익모23 ▲김재열16 ▲김정웅12
▲김창희19 ▲김학선1 ▲김학형10
▲김현우9 ▲김홍근24 ▲나기환22
▲박규영17 ▲박승욱21 ▲박인서12
▲박인호12 ▲박장춘18 ▲박정오16
▲박종우6 ▲박찬영20 ▲박희수11
▲백성근22 ▲서병오26 ▲서영배24
▲신성기14 ▲육남선6 ▲윤형식26
▲이근모1 ▲이명호20 ▲이문기16
▲이상원20 ▲이상희15 ▲이승규12
▲이용수22 ▲이용완17 ▲이원해15
▲이의현20 ▲이장호24 ▲이재형22
▲이중광11 ▲이창규26 ▲이창범22
▲이충언14 ▲이현희15 ▲이호재21
▲임한복21 ▲전기운25 ▲정용우24
▲정재룡20 ▲조석구4 ▲조성환21
▲조인형13 ▲조종제14 ▲주영현12
▲차동성2 ▲최원태26 ▲최익선25
▲최재동20 ▲최정숙24 ▲최정호17
▲최창식11 ▲하광운17 ▲현승기5

◇국가정책과정

▲가겸노39 ▲강경보20 ▲공윤현47
▲권상문45 ▲권영배40 ▲김남경41
▲김덕영18 ▲김도연6 ▲김동일42
▲김동찬18 ▲김병문23 ▲김석균39
▲김의준45 ▲김종달1 ▲김종환44
▲김창수35 ▲김태환38 ▲김행복27
▲김현수30 ▲김형준47 ▲남삼준45
▲남종우30 ▲노재우16 ▲노태극13
▲문연식47 ▲문인갑22 ▲박상만48
▲박상하28 ▲박영순43 ▲박재수53
▲방효복51 ▲백석현20 ▲서길병47
▲서대일37 ▲설용수53 ▲손문창14
▲손진영12 ▲송선근49 ▲신주현15
▲안광찬46 ▲안영철39 ▲안준태43
▲안중기39 ▲안필준8 ▲오복용61
▲오세득32 ▲오승채44 ▲오정숙43
▲오필기2 ▲원정부31 ▲유근환13
▲유길종12 ▲유병국30 ▲유홍열36
▲윤기병34 ▲윤치오5 ▲이건모61
▲이덕수44 ▲이병정25 ▲이보규62
▲이용구51 ▲이은홍48 ▲이재복21

▲이종성33 ▲이진삼21 ▲이학동44
▲이희찬30 ▲임 훈19 ▲임규홍34
▲장보교39 ▲전 홍48 ▲전재구1
▲전종식7 ▲전형일12 ▲조강호37
▲조건창49 ▲조옥식16 ▲조용안29
▲조철권6 ▲주문영48 ▲채증석13
▲최남진34 ▲최열근6 ▲최익한5
▲최종문22 ▲최창현25 ▲허위구38
▲황상구45

◇고급금융과정

▲강광희18 ▲강신학11 ▲권영운11
▲권오대19 ▲김길영19 ▲김선제9
▲김인대12 ▲김창경6 ▲남준복6
▲박재선19 ▲박준명12 ▲신연식14
▲양승규19 ▲양종하19 ▲오대욱11
▲장병목14 ▲조영천1 ▲조현석11
▲허선구7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

▲강재식6 ▲김수근2 ▲김종호4
▲오헌봉6 ▲유금종3 ▲이미경7
▲이상빈6 ▲이춘섭5 ▲이태열8
▲이희조5 ▲임영식5 ▲조백일6
▲황용연2

◇가정간호수습과정

▲김매자8 ▲김용숙2 ▲남궁임4
▲신길남3 ▲정경란8 ▲최영숙9

◇공기업고급경영자과정

▲강대가4 ▲강승원7 ▲강한옥7
▲김경태7 ▲김대규3 ▲김복승3
▲김세창6 ▲김용진1 ▲김진동8
▲김환룡7 ▲노관숙8 ▲문병덕4
▲박광신8 ▲박노평8 ▲박대순1
▲박종택7 ▲박현용8 ▲백문현8
▲변동조8 ▲서정설6 ▲선동우4
▲손용인4 ▲손일곤3 ▲송세광3
▲양화승8 ▲엄탁열7 ▲유재삼8
▲이양섭4 ▲이영세4 ▲이우용3
▲이재원4 ▲이현주8 ▲임학재8
▲전서구7 ▲전종희1 ▲전창영5
▲정만진4 ▲정재균8 ▲정태근5
▲조성출5 ▲조성필8 ▲조승식4
▲지준기8 ▲최용삼3 ▲최재덕6
▲한길호4 ▲한재웅7 ▲함준조2
▲홍기만3 ▲황경태3

◇보건의료정책최고관리자과정

▲강보영1 ▲권부옥1 ▲권준선8
▲김 현5 ▲김명관6 ▲김성한1
▲김윤희1 ▲김일용6 ▲김종은3
▲노동일7 ▲라석찬7 ▲류희근4
▲박원희4 ▲방금석2 ▲백성길4
▲서관석2 ▲서원영7 ▲송정순3
▲신정자7 ▲염송옥4 ▲오국진5
▲오창록1 ▲윤석모6 ▲이상민5
▲이상호3 ▲이순임1 ▲이장성6
▲이창훈4 ▲이충섭8 ▲이태수6
▲전영구1 ▲정관훈8 ▲정인화1
▲정호용8 ▲정홍균4 ▲조동섭4
▲최주재2 ▲홍성희3

◇해양정책최고과정

▲박영진1 ▲신석훈1 ▲정강성1

합 계 : 167,660,000원
총 계 : 407,098,182원

〈지면관계로 최고경영자과정 회비 납부하신 분은 다음호에 게재합니다〉

동문의 소리

관심과 배려 속에 신뢰 쌓는 리더십

鄭基算(83年 農大卒)농촌진흥청 언론홍보실장



IMF 이후 기업과 조직이 처한 고통이 채 가시지 않은 요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비전을 창출하는데 조직 내부의 신뢰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조직 내부에 신뢰가 높은 수준으로 축적돼 있지 않으면 상하간의 협력은 물론 구성원들간의 협력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없습니다.

리더십 유형을 서번트, 변혁적, 거래적 리더십으로 구분해 분석을 한 바에 의하면 서번트 리더십 관련 하위 행동특성 중에서는 「공동체 형성」 변인이

가장 큰 설명력을 보여 줬습니다.

이로써 리더 자신의 입장보다는 조직구성원의 관점을 배려하는 대화를 통한 공동체 의식의 형성이 신뢰에 가장 큰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상대를 존중하는 진정한 대화의 장을 조성하는 것이 조직사회의 신뢰형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 것입니다.

변혁적 리더십 관련 하위 행동특성 중에서는 「관심」변인이

가장 큰 설명력을 보여 중간관리자들이 조직구성원에게 낙천주의의 열정을 불어넣어 주고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신뢰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또 문제해결과 문제인식에 있어 조직구성원을 변화, 자극시키는 중간관리자들의 노력이 있을 때 조직 내 신뢰증진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거래적 리더십에 관련한 하위 행동특성 중에서는 「보상」변인이 높은 설명력을 보여 조직구

성원들이 합의된 성과수준에 도달했을 때 성과에 상응한 칭찬과 인센티브 제공을 할 경우 신뢰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새로운 시대에서의 리더는 첫째, 조직구성원에 대한 개별적 관심과 배려를 통해 조직구성원의 독특하고 이질적인 욕구를 수용하며, 업무의 권한 위임을 통해 조직구성원들의 능력개발을 도모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보였으며 둘째,

조직구성원들이 최선의 결과를 창출했을 때 이를 혁신적으로 보상해주는 투명하고 공명 정대한 근무평정 및 인사관리를 해야 하며 연공서열과 학연, 지연이 중요시되는 인사풍토를 쇄신하여 능력에 따른 승진제도의 구현과 창의성이 존중되는 문화풍토의 조성 노력해야 하고 셋째, 리더는 경영의 생활화를 통해 조직구성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팀이나 부서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하며 조직구성원들의 가치관 정립과 목표의식 함양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구성원들에게 따뜻한 함을 선사하고 밝고 웃음 넘치는 일터, 힘이 넘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리더의 역할을 다해 조직사회 신뢰구축을 통한 변화의 주체로서 우뚝 설 수 있을 때 전체적인 사회변화가 비롯되리라 생각해 봅니다.

국가·기업 브랜드 관리전략 바뀌어야

全貞娥(95년 家政大卒)(주)인컴브로더 PR사업부 과장



『꿈★은 이루어진다』

아직도 이 문구를 보면 6월 월드컵 합성과 환희가 생생해 가슴이 두근거린다. 월드컵이 끝난 지금, 자연 국민의 관심은 막대한 국가적 에너지와 자원이 집중된 월드컵 행사로 인해 창출 될 경제효과로 몰리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소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팀의 4강 진출로 총 27조원의 경제효과를 이룰 것이라 전망했다. 이중 태반이 국가브랜드와 개별 기업이미지 제고와 관련된 것이다.

이번 월드컵은 중국과 일본의 틈새에 끼어 세계인들에게 제대

로 인식되지 못했던 코리아라는 브랜드가 극적으로 차별화 되는 계기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 효과는 기업들로서는 커다란 원군을 얻은 것과 같다. 국가 브랜드가 중요한 것은 국가 이미지가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핵심인자이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마켓 시대에서 국가 이미지의 중요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국내외 PR서비스를 제공하는 PR대행사에도 몸담고 있어, 요즘 부쩍 해외 PR서

비스를 문의하는 국내 기업들이 자주 접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월드컵을 통해 IT강국으로 높아진 한국의 위상, 즉 국가브랜드의 후광효과가 채 가시기 전에 과실을 따먹자는 PR서비스 주문을 많이 한다. 즉, 당장 매출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국가브랜드 제고는 정부의 몫이거나, 아니면 좀 더 규모 있는 기업의 몫이라는 것이 기본인식이다. 또는 정부는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데 힘쓰고 기업은 개별 브랜드 육성에 힘써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인식도 지배적인 것 같

다.

물론 국가브랜드 파워를 키우는 데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정부도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를 출범키로 하는 등 국가이미지 관리에 힘을 쏟고 있으나, 이제까지의 국가 차원의 국가브랜드 관리 방안은 올림픽과 월드컵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 중심이었다. 여기서 88올림픽이 국가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는 기여했지만, 코리아를 좋은 브랜드로 세계인들의 뇌리에 각인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전례가 있음

을 짚어야겠다. 그것은 올림픽과 월드컵 등이 일과성 행사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브랜드=이미지라는 등가식을 갖고 브랜드를 관리하는 시대는 아니다. 브랜드=경험이라는 새롭게 재정립된 브랜드 개념에 발맞춰 국가와 개별 기업의 브랜드 관리 전략도 전환해야 한다.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출하는 세계 구석구석에 한국과 한국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브랜드 자산적 씨앗을 지금부터라도 심기를 바란다.

특히 화장품 등 문화상품적 속성이 강한 기업이라면 더욱 중·장기적 국가브랜드 제고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5년, 10년 후에 싹이 트고 뿌리가 내려 경제 성과란 과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현대인은 실천하는 사랑 필요하다

朴準九(47기 ACAD)천안경영정보고교 교장



현대는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물질만능시대이다. 미국의 황금만능시대였던 1923년 당시, 시카고의 에지워터비치호텔에 미국의 8대 부자들이 모였다. 매스컴들은 이들을 성공과 출세의 상징이요 신화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25년 후 4명은 자살했고 나머지는 파산해서 국외에서 죽거나 징역을 살다 죽었다.

또한 현대는 권력을 최고의 힘으로 생각한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단어가 없다』라고 말한 세기의 영웅 나폴레옹은

전쟁에 패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가면서 『오! 갈릴리 사람 예수여, 당신이 이겼소. 온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려했던 나는 패했지만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점령한 그대가 이겼소』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현대는 최첨단 과학기술과 초고속 정보기술의 발달로 IT와 BT혁명을 이뤘지만 민족간의 갈등과 부정부패의 비리, 청소년 범죄와 이혼의 증가 그리고 폭력과 성도덕의 타락으로 세계는 몸살을 앓고 있다.

나무를 성장시키고 열매 맺게

하는 원동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의 기능이다. 뿌리 없는 나무는 결국 고사한다. 인간에게 필요한 물질과 명예, 지식, 기술 그리고 권력을 선용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 즉 윤리와 도덕이 뿌리 깊게 자리잡아야 한다. 최고의 윤리와 도덕은 사랑이다.

현대는 사랑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그 혼란 대중가요와 드라마 속에도 사랑은 흥건히 젖어 있고 세계명작의 고고한 향취에도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독일의 서정시인 괴테는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는가, 사랑에서. 우리는 어떻게 멸망하는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으로 자기를 극복하는가, 사랑에 의해서. 우리도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까, 사랑에 의해. 우리를 울리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 우리를 항상 결합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이라고 읊었다.

금년 여름에도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다. 우리 모두 동포애로써 그

들을 도와야 한다. 홍수가 나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을 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식수이듯이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다.

사랑은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성장케 하며 삶을 완성시킨다. 또한 원수의 마음을 녹이고 흉악범 사형수들을 회심시키며 죽음을 이기는 기적을 낳게 한다. 프랑스 철학자인 파스칼은 『사랑이 세계를 변화시킨다』라고 했다. 사랑의 본질은 인내와 배움, 희생이다. 교육의 본질도 사랑이다. 사랑은 삶의 빛과 소금이고, 모든 종교의 총화이다.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달성하는 것도 사랑이다. 사랑이 실현되는 사회가 유토피아이다. 사랑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대의 신비한 힘이다. 사랑만이 영원하리라.